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3)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연구자 : 서울대학교 이기영
고려대학교 이연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의숙
대구대학교 조희금

목 차

I. 서 론	20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5
2. 연구의 목적	206
3. 연구의 내용 및 한계	207
가. 연구의 내용	207
나. 연구의 한계	208
II. 연구방법	210
1. 자료의 선정 및 분석체계	210
가. 분석 자료의 선정	210
나. 표본 및 분석설계	212
2. 생활행동분류 체계의 조정	213
가. 생활행동의 분류	213
나. 결과해석시의 유의점	215
III. 분석결과 및 논의	217
1. 생활행동별 국제비교	217
가. 생활시간 구조	217
나. 개인유지시간	221
다. 수입노동시간	224
라. 가사노동시간	226
마. 자유시간	229
바. 이동시간	235
사. 소결	238

2. 성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241
가. 생활행동별 국가간 성별차이	241
나. 개인유지 항목별 성별차이	245
다. 남성과 여성의 수입노동/가사노동 참여 정도	246
라. 남성의 가사노동 협력정도의 국가간 비교	248
마. 여가활동 참여의 성별차이	249
바. 이동의 성별차이	250
사. 소결	251
3. 연령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252
가.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252
나. 연령별 수입노동시간	255
다.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258
라. 연령별 개인유지시간	263
마. 연령별 자유시간	265
바. 연령별 이동시간	267
사. 소결	268
4. 남녀의 취업여부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270
가. 취업여부별 생활시간 구조	270
나. 개인유지시간	272
다. 수입노동시간	274
라. 가사노동시간	275
마. 총노동시간	276
바. 자유시간	277
사. 이동시간	280
아. 소결	280
5. 요일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281
가. 요일별 생활시간 구조	282
나. 수면시간	284

다. 식사시간	286
라. 수입노동시간	288
마. 가사노동시간	290
바. 사회활동시간	292
사. 레저활동시간	294
아. 대중매체 접촉시간	296
자. 소결	298
IV. 결 론	299
참고문헌	303
부 록	
1. 미국의 활동분류	308
2. 일본의 활동분류	309
3. 핀란드의 활동분류	309
4. 생활시간조사 결과 집계표	310

표 목차

〈표 2-1- 1〉	각국 자료의 개요	212
〈표 2-1- 2〉	표본의 특성	213
〈표 2-2- 1〉	생활행동의 분류	214
〈표 3-1- 1〉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의 노동과 여가 비율의 국제비교	220
〈표 3-2- 1〉	1주간의 남녀차	242
〈표 3-2- 2〉	수면/식사/신변에 관한 일의 남녀차 국제비교	246
〈표 3-2- 3〉	근무시간과 가사시간의 국가별 비교	247
〈표 3-2- 4〉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협력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 ...	249
〈표 3-2- 5〉	여가활동의 남녀차의 국가간 비교	250
〈표 3-3- 1〉	4개국 성인 남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253
〈표 3-3- 2〉	4개국 성인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255
〈표 3-3- 3〉	성인 남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260
〈표 3-3- 4〉	성인 여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260
〈표 3-3- 5〉	성, 연령별로 본 최장 여가시간과 해당국	265
〈표 3-4- 1〉	취업여부별 생활시간구조	271
〈표 3-5- 1〉	성인남성의 요일별 수면시간 국제비교	284
〈표 3-5- 2〉	성인여성의 요일별 수면시간 국제비교	284
〈표 3-5- 3〉	성인남성의 요일별 식사시간 국제비교	286
〈표 3-5- 4〉	성인여성의 요일별 식사시간 국제비교	286
〈표 3-5- 5〉	성인남성의 요일별 수입노동시간 국제비교	288
〈표 3-5- 6〉	성인여성의 요일별 수입노동시간 국제비교	288
〈표 3-5- 7〉	성인남성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 국제비교	290
〈표 3-5- 8〉	성인여성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 국제비교	290
〈표 3-5- 9〉	성인남성의 요일별 사회활동시간 국제비교	292
〈표 3-5-10〉	성인여성의 요일별 사회활동시간 국제비교	292

〈표 3-5-11〉 성인남성의 요일별 레저활동시간 국제비교	294
〈표 3-5-12〉 성인여성의 요일별 레저활동시간 국제비교	294
〈표 3-5-13〉 성인남성의 요일별 대중매체접촉시간 국제비교	296
〈표 3-5-14〉 성인여성의 요일별 대중매체접촉시간 국제비교	296

그림 목차

〈그림 3-1- 1〉 4개국 전체 성인의 생활시간 구조	217
〈그림 3-1- 2〉 4개국 남성의 생활시간 구조	218
〈그림 3-1- 3〉 4개국 여성의 생활시간 구조	220
〈그림 3-1- 4〉 개인유지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222
〈그림 3-1- 5〉 개인유지시간의 내역별 국제비교	222
〈그림 3-1- 6〉 수면시간의 취업여부별 국제비교	223
〈그림 3-1- 7〉 수입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224
〈그림 3-1- 8〉 수입노동시간의 취업여부별 국제비교	225
〈그림 3-1- 9〉 성인 가사노동시간의 국제비교	226
〈그림 3-1-10〉 가사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226
〈그림 3-1-11〉 성인 가사노동시간의 내역별 국제비교	227
〈그림 3-1-12〉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국제비교	228
〈그림 3-1-13〉 총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228
〈그림 3-1-14〉 자유시간의 국제비교	230
〈그림 3-1-15〉 남성 자유시간의 국제비교	231
〈그림 3-1-16〉 여성 자유시간의 국제비교	231
〈그림 3-1-17〉 성인 자유시간의 항목별 국제비교	233
〈그림 3-1-18〉 대중매체 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233
〈그림 3-1-19〉 대중매체 시간의 취업여부별 국제비교	234
〈그림 3-1-20〉 이동 시간의 내역별 국제비교	236
〈그림 3-1-21〉 이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236
〈그림 3-1-22〉 남성 이동시간 내역의 국제비교	237
〈그림 3-1-23〉 여성 이동시간 내역의 국제비교	237
〈그림 3-1-24〉 이동시간의 취업여부별 국제비교	238
〈그림 3-2- 1〉 한국·일본·미국·핀란드의 생활영역별 참여의 성별차이	243

〈그림 3-3- 1〉 수입노동시간의 연령별 국제비교	256
〈그림 3-3- 2〉 4개국 성인 남성의 연령별 근무시간	257
〈그림 3-3- 3〉 4개국 성인 여성의 연령별 근무시간	258
〈그림 3-3- 4〉 성인 가사노동시간의 연령별 국제비교	259
〈그림 3-3- 5〉 한국 여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261
〈그림 3-3- 6〉 미국 여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262
〈그림 3-3- 7〉 성인의 연령별 수면시간	263
〈그림 3-3- 8〉 성인 남성의 연령별 수면시간	264
〈그림 3-3- 9〉 성인 여성의 연령별 수면시간	264
〈그림 3-3-10〉 성인 남성의 연령별 이동시간	267
〈그림 3-3-11〉 성인 여성의 연령별 이동시간	268
〈그림 3-4- 1〉 취업여부별 개인유지시간의 국제비교	272
〈그림 3-4- 2〉 취업여부별 수면시간의 국제비교	273
〈그림 3-4- 3〉 취업여부별 식사시간의 국제비교	273
〈그림 3-4- 4〉 취업여부별 수입노동시간의 국제비교	274
〈그림 3-4- 5〉 취업여부별 가사노동시간의 국제비교	275
〈그림 3-4- 6〉 취업여부별 가족원돌보기시간의 국제비교	276
〈그림 3-4- 7〉 취업여부별 총노동시간의 국제비교	277
〈그림 3-4- 8〉 취업여부별 자유시간의 국제비교	278
〈그림 3-4- 9〉 취업여부별 사회활동시간의 국제비교	278
〈그림 3-4-10〉 취업여부별 레저활동시간의 국제비교	279
〈그림 3-4-11〉 취업여부별 대중매체시간의 국제비교	279
〈그림 3-4-12〉 취업여부별 이동시간의 국제비교	280
〈그림 3-5- 1〉 성인남성의 요일별 생활시간구조	282
〈그림 3-5- 2〉 성인여성의 요일별 생활시간구조	283
〈그림 3-5- 3〉 성인남성 수면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85
〈그림 3-5- 4〉 성인여성 수면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85
〈그림 3-5- 5〉 성인남성 식사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87

〈그림 3-5- 6〉 성인여성 식사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87
〈그림 3-5- 7〉 성인남성 수입노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89
〈그림 3-5- 8〉 성인여성 수입노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89
〈그림 3-5- 9〉 성인남성 가사노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91
〈그림 3-5-10〉 성인여성 가사노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91
〈그림 3-5-11〉 성인남성 사회활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93
〈그림 3-5-12〉 성인여성 사회활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93
〈그림 3-5-13〉 성인남성 레저활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95
〈그림 3-5-14〉 성인여성 레저활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95
〈그림 3-5-15〉 성인남성 대중매체 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97
〈그림 3-5-16〉 성인여성 대중매체 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297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자원으로서 시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물질 자원이 풍요해짐에 따라 시간자원의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자원으로서의 시간의 가치는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은 그 배분방식이 생활양식을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직업노동이나 가사노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 여가 또는 이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양식 내지 생활문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시간 및 시간의 배분이 갖는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증적인 연구는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일지법에 의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1981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에 의해 5년 간격으로 실시되어 온 국민생활시간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표집의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나 방송시간편성이라는 조사 목적의 한계로 인해 생활의 다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다는 점, 조사의 목적이 국민 생활시간과 생활양식의 파악에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생활시간배분 방법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규범, 습성, 가치 등이 반영되며, 따라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나라 국민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나라 국민들의 생활시간의 배분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국가간의 국민생활을 비교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시간사용을 조사하는 것은 각 국가의 언어, 생활습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측정에 훨씬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개별국가에서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해도 이들 자료를 가지고 국가간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 표집방법, 생활시간의 분류방

법 및 코딩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조사방법의 통일과 더불어 각국의 생활문화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생활행동의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활시간의 국제비교는 유럽의 12개국 시간을 비교분석한 Szalai(1972)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Szalai 조사에 비견하는 연구가 행해졌으나 표집이나 분류 및 코딩체계의 차이로 비교연구로서의 유용성은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국가간의 협의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서 생활·노동조건에 관한 유럽재단(The European Foundation on Living and Working Condition)의 후원으로 국제생활시간아카이브(MLTBA-Multinational Time Budget Archives)가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자료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생활시간 자료를 공통의 분류체계로 재코드화하는 방법이 개발됨으로써 직접적인 협의 없이 국가간의 생활시간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통계연합(EUROSTAT)에서는 1995~1996년에 유럽지역의 생활시간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생활행동의 분류를 통일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의 선진국들은 생활시간연구를 위한 표준적인 수법, 예를 들면 자료의 수집, 코딩, 제시방법 등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현재 「국제생활시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me Use Research)가 EUROSTAT나 생활시간조사에 관심 있는 국제적인 단체와 제휴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에 대한 선진국들의 노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통계청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적인 규모의 생활시간조사를 계기로 하여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생활 습성이나 특성을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하고 세계속에서의 우리 사회의 위상이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생활시간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양식과 생활

문화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설정한다.

우선 성인전체, 성인남성, 성인여성의 요일평균 생활시간 배분의 국제비교를 통해 생활행동별 시간 배분의 국가별 특성을 분석한다. 한국이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국민의 장시간 노동의 실태는 어떠한지, 노동과 여가의 균형은 어느 정도인지 선진국과 비교·고찰한다.

둘째,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정도를 선진국과 비교하며, 그 밖의 생활행동 영역에 있어서의 성별차이의 특성을 국제비교를 통해 밝힌다.

셋째, 연령별 생활시간의 국제비교를 통해 연령에 따른 생활행동의 차이가 국가간에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우리 나라 국민의 연령별 생활배분의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넷째,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조사대상자를 남성취업자, 여성취업자 전업주부의 3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생활시간 배분의 차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한다.

다섯째,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의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배분의 국가간 차이를 비교한다.

이상과 같이 선진국과의 다면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국민의 생활양식이나 습성의 특성 내지 차이를 밝히고, 보다 높은 생활의 질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노력해야 할 점이나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한계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취업여부, 요일 등이 시간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 변수에 따른 생활시간배분의 국가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비교국으로는 일본, 미국, 핀란드의 3개국을 선정하였다.

첫째,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이들의 생활행동별 생활시간배분의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생활시간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를 한 후 생활시간을 생활행동영역에 따라 개인유지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유시간, 이동시간으로 나누어 영역별 생활시간배분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였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시간배분 차이에 주목하여 생활행동별 성별차이에 대해 국제 비교를 하였다. 우선 생활행동영역별 남녀간 시간배분의 차이를 지표화하여 불평등정도를 비교한 후 개인유지 항목, 수입노동과 가사노동 참여 정도, 남성의 가사노동 협력 정도, 여가활동 참여, 이동시간의 성별 차이에 대해 국제비교를 하였다.

셋째,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배분의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연령별 생활시간구조에 대해 국제비교를 한 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이동시간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배분의 차이를 국제 비교하였다.

넷째, 남녀의 취업여부에 따라 전업주부, 여성취업자, 남성취업자로 나누어 생활시간배분의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남녀의 취업여부에 따른 3집단별 생활시간구조를 국제비교한 후, 개인유지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총노동시간, 자유시간, 이동시간으로 나누어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배분의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섯째, 요일에 따라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의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요일별 생활시간구조를 국제 비교한 후, 수면시간, 식사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활동시간, 레저활동시간, 대중매체 접촉시간에 대한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을 국제 비교하였다.

나.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비교국으로 선정한 3개국의 시간자료에서 오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3개국의 자료가 이차자료인데서 오는 비교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자의 분류에 있어서 주어진 자료의 분류에 의존해야 했으므로 조사대상자를 정확하게 대응하여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결혼 여부에 관한 정보가 없어 미취업여성을 전업주부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비교국으로 선정된 국가의 시간자료가 각각 상이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핀란드를 각각 아시아, 북미,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로 보아 선정하였는데, 각국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오는 비교 또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간 분류가 20영역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어 세분화된 항목별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미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통계가 없으므로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걸쳐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조사라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타당성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교국 중 핀란드는 2000년에 조사한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1987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비교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조사방법이나 비교할 수 있는 정보에서 핀란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아 비교국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국가별로 활동분류 및 각 분류에 포함된 활동들에 차이가 있으므로 생활행동영역 및 내역에 따라서는 연구자들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여기서 오는 해석상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연구방법 중 결과해석시의 유의점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비교국으로 선정된 나라들의 시간자료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주요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이며, 각 나라의 자료가 일지법에 의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비교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자료의 선정 및 분석체계

가. 분석 자료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핀란드 3개국을 선정하여 한국과 비교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아시아권에 속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장시간노동국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로는 시간일지법에 의한 국가적인 규모의 시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미국과 핀란드를 선정하였다.

(1) 한국

우리 나라의 자료는 통계청에 의하여 1999년에 최초로 실시된 「199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자료의 조사기간은 1999. 9. 2 ~ 9. 14(13일간)이었으며, 한국 전역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가구관련 사항 및 개인관련 사항에 관한 질문지 및 시간 일지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시간사용은 시간일지를 조사대상가구에 배포하여 대상가구원이 2일(48시간)동안 행동과 시간을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되었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응답자수는 42,973명이며, 시간일지수는 85,906일이다.

(2) 일본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간 사용 조사는 일본 총무청 통계국에 의한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와 NHK에 의한 「국민생활시간조사」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자료는 통계청에 의한 조사로 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소규모 표본에 의한 NHK자료보다 지역별,

개인속성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는 경제적인 통계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의 실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76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그후 매 5년마다 실시되어 1996년에 제5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일본 통계청에 의한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의 조사도구는 크게 '시간사용'과 '여가활동'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시간사용은 15분 단위로 나뉘어진 24시간 시간일지로 측정되었으며, 미리 선정된 20개의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여가활동'은 미리 선정된 각각의 여가활동-스포츠(42개), 학습(13개), 교제(7개), 취미·오락(50개), 여행 및 소풍(3개)-에 한 해 동안 응답자들이 참여한 빈도와 함께 한 사람을 조사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1996년 5차 조사는 9월 28(토)부터 10월 6(일)까지의 9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는 연속한 이들의 시간 사용을 기록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표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5년 인구센서스를 위해 구획된 전국 900,000개의 조사구에서 6,600개의 조사구를 표집한 다음 각 조사구에서 15개의 가구를 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전국 99,000가구의 10세 이상 구성원 270,000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111,405개이다.

(3) 미국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EPA National Time Use Survey 1992-1994」를 미국의 시간사용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선정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주체는 Maryland 대학의 사회조사센터(Survey Research Center)로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1992년 9월에서 1994년 10월까지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미대륙 전역에 걸쳐서 전국적인 전화인터뷰가 실시되었으며, 각 가구 당 한 명의 응답자가 전일에 수행한 활동과 활동이 행해진 장소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최초의 표본 설계는 분기별로 1,250개의 표본을 표집하여 10,000개의 시간일지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4,908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실시한 결과, 7,514명의 성인과 1,872명의 아동(18세미만)을 포함한 9,386명의 시간일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아동의 경우 6세미만 아동의 시간일지는 가구 내의 성인이 작성하였으며, 6-9세 아동은 성인의 도움 하에 시간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 2000년에 시간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보고서가 2001년 말에 발간될 예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핀란드 국민생활시간조사 (Finnish Time Use Study) 1987/1988」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본 시간조사는 핀란드 통계청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앞서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시간일지법을 이용하여 1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표본수는 5224개이며 응답율은 74%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각국 자료의 개요

	조사기간	유효 표본수	조사대상 연령	유효율	조사방법	조사기관
한국	1999. 9.2-9.14	42,973	만 10세 이상	93.4%	일지법	통계청
일본	1996.9.28-10.6	111,405	만 10세 이상	41.3%	일지법	통계국
미국	1992.9-1994.10	9,386	전 연령	63%	일지법	Maryland대 사회조사센터
핀란드	1987년 1년간	5,224	만 10세 이상	74%	일지법	통계청

나. 표본 및 분석설계

앞의 <표 2-1-1> 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국가별로 조사대상의 연령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국의 20세 이상 인구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성과 취업여부, 연령이 성인의 시간사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남성과 여성, 남녀취업자 및 전업주부, 연령별로 나누어 생활시간을 집계하였다. 비교국가의 표본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 2-1-2> 와 같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여성이 50% 이상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미국은 전업주부 집단이 많이 표집되었으며, 반면 핀란드는 전업주부가 6.2%만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2> 표본의 특성¹⁾ (요일 평균)

	성인	성인	성인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남성	여성	전업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취업자	취업자	주부
미국	7264	3241	4023	672	756	631	476	655	866	747	587	2394	2333	1671
	100.0	44.6	55.4	9.3	10.4	8.7	6.6	9.0	11.9	10.3	8.1	33.0	32.1	23.0
일본	95890	46388	49502	9608	7894	9795	8036	9365	7768	9787	8321	38471	27711	17640
	100.0	48.4	51.6	10.0	8.2	10.2	8.4	9.8	8.1	10.2	8.7	40.1	28.9	18.4
핀란드	10277	5039	5238	1341	1496	1265	937	1467	1462	1354	955	4277	4115	639
	100.0	49.0	51.0	13.0	14.6	12.3	9.1	14.3	14.2	13.2	9.3	41.6	40.0	6.2

2. 생활행동분류 체계의 조정

가. 생활행동의 분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행동의 분류체계는 표 2-2-1) 과 같다. 아래의 생활행동의 분류는 우리 나라 통계청의 분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였으나, 비교대상 3개국의 자료와 공통되게 분류하였다. 활동분류를 조정할 때 문제가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식사준비 및 설거지', '청소·세탁', '기타 가사일' 이 합하여 가사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가사시간 내의 소분류에 따른 시간량을 구할 수 없었던 점이다. 또한 사회적 활동과 레저활동에

1) 미국의 경우는 원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여성 미취업자를 전업주부로 대용하여 사용하였다.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있어서도 각국 분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회적 활동의 경우 일본은 종교활동이라는 항목이 없었으며, 핀란드는 사회참여 시간 속에 종교활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과 핀란드는 학생의 학습시간-수입노동에 포함됨-과 성인의 학습 시간-레저활동에 포함됨-이 구분되지 않아 해석시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관람 및 행사라는 활동분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비교대상 각국의 행동분류는 <부표 1>, <부표 2>, <부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2-1> 생활행동의 분류

			통계청	일본	핀란드	미국
개인유지	수면	11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식사	12	식사 및 간식	식사	식사	식사
	신변에 관한 일	13 14 199	개인관리 건강관리(의료적) 기타 개인유지	개인관리 의료	신변에 관한 일	개인관리 의료 기타 개인유지
수입노동	근무	21 220 230 240 250 260 299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제외)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	일	일	주업 구직 군무 중 이동 부업 근무 중 휴식
	학업	31 32 330	학생의 학교학습 학생의 학교외 학습 학습관련 물품구입	학교	학업	성비 수업 외 강습 숙제 도서관 이용 기타 학습시간
가사노동	가사 식사 준비 및 설거지	41	음식준비 및 정리	가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42 43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청소, 세탁	의복관리 옥내외 청소
	기타 가사일	44 46 499	집관리 가정경영 기타가사일		기타가사일	가정잡일 관공서, 재정 서비스 기타가사일
	구매	45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구매	구매	구매
	가족원 돌보기	51 52 530 540 550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외 가족 보살피기	가족원의 신처적돌보기 자녀돌보기	자녀와 대화	자녀돌보기
	사회적 활동 참여	610 620 630 64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참여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 (교회 포함)	사회참여

			통계청	일본	핀란드	미국
사회활동	사회적 활동 종교 활동	74	종교 활동	-	-	종교활동
	교제	71	교제	교제	교제	교제
레저활동	학습	73	일반인의 학습	학습	-	-
	관람 및 행사	76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	관람, 영화	관람, 영화
	스포츠	75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스포츠	행락산책 스포츠	스포츠 및 옥외활동
	취미와 기타여가	771	독서	취미, 오락	취미 승부 독서	취미 독서
		772	컴퓨터게임			
773		놀이				
774		그 외 취미활동				
775		유흥				
780	교제 및 여가관련 물품구입					
799	기타여가관련활동					
대중매체		72	대중매체 이용	신문잡적TV등	TV,비디오 라디오 신문잡지 레코드, CD	대중매체이용
휴식		776 777	담배피우기 아무 것도 안하고 쉬	휴식	휴식	휴식
이동	통근 통학	821 822 831	출퇴근 그외 일관련이동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통근, 통학	통근, 통학	통근, 통학
	그외 이동	800 811 841 851 861 871 872 891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개인유지관련이동 가정관리관련이동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관련이동 교제관련 이동 그외 여가활동관련 이동 기타이동	그 밖의 이동	그 밖의 이동	그 밖의 이동
기타		919 999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기입 그외 기타	20 기타		

나. 결과해석시의 유의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 제시된 시간량은 각국의 서로 다른 생활행동분류를 조합하여 재집계 한 것이므로 반올림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서, 하루 행동의 합이 24시간(1440분)과 정

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표본 선택의 문제로 미국 자료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에 관한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연령과 취업지위 변수를 이용하여 20세 이상 미취업 여성을 전업주부 집단으로 대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미국 전업주부의 자료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각국의 서로 다른 활동 분류에 의한 오차이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동분류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성인의 학습과 학생의 학교 학습이 구분되어 집계된 반면, 미국은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레저활동의 일부인 학습 시간이 집계되지 않았으며, 성인의 학습도 학업으로 포함되어 수입노동 시간으로 집계되었다. 그 결과 조사국가 중 미국 성인의 학업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여가로서의 학습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둘째, 한·미·일 3국의 휴식시간은 각기 다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9개로 분류된 미국 자료의 활동분류를 재정리하면서 '대화', '생각·휴식'을 휴식에 포함시켰다. 또한 일본 통계국에서는 가족 및 동료와의 대화를 휴식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우리 나라의 분류에서는 가족간의 대화는 교제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고, 휴식이라는 중분류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분류를 재조정하면서 '취미 및 여가활동'의 일부로 되어 있는 '담배피우기'와 '아무 것도 안 하고 쉬'를 한국 자료의 휴식으로 재정의하였다. 생활시간량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교제시간이 길고, 일본은 휴식시간이 월등히 긴데, 이는 활동분류에서 오는 문제로 보인다. 또한 휴식은 수동적 여가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앞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도 분류에 휴식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의 분류체계에서 독서는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의 일부로 집계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류를 따라 독서를 취미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부표 2>, <부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책을 대중매체 중 하나로 보고 대중매체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분석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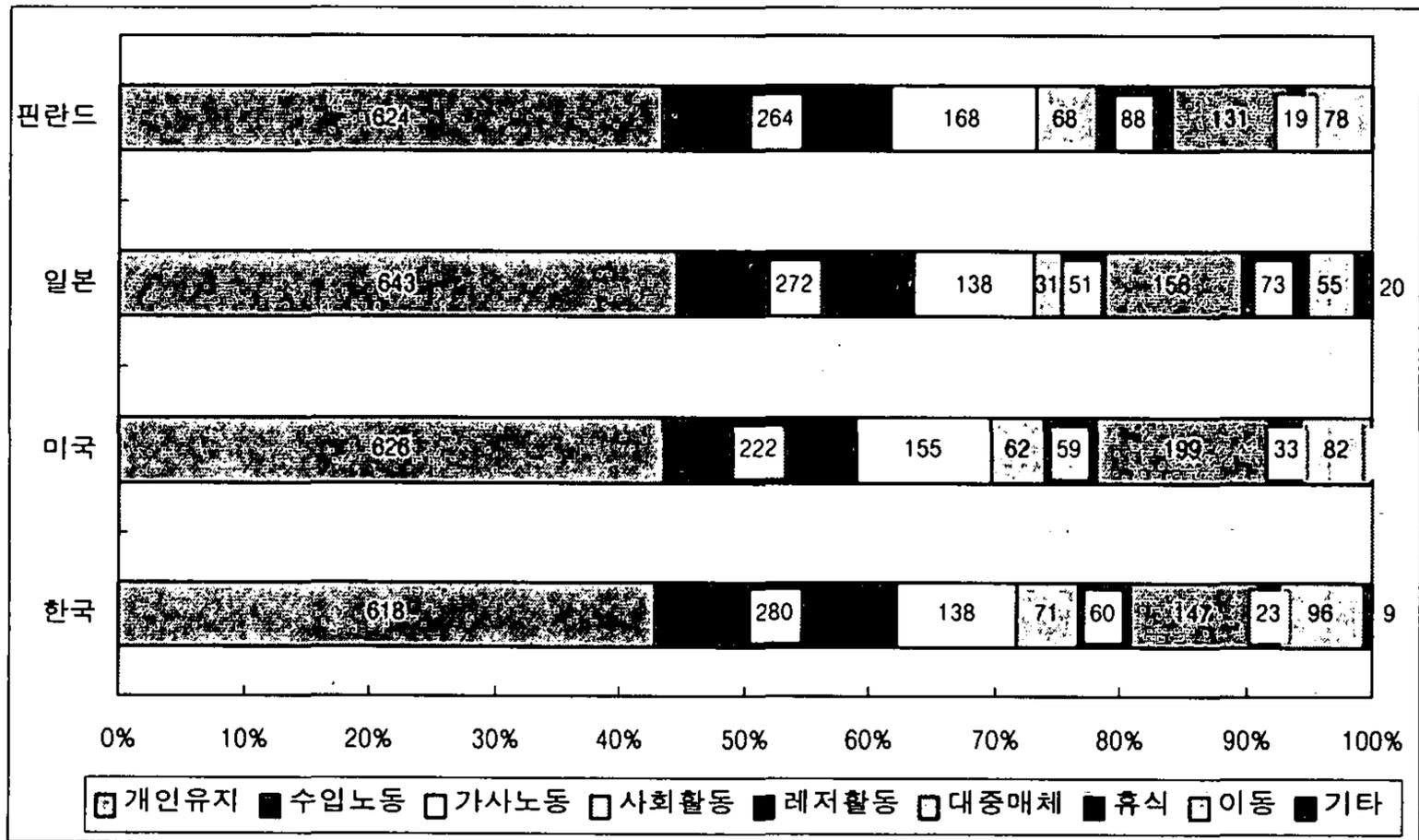
1. 생활행동별 국제비교

가. 생활시간 구조

각 생활행동영역별 시간 사용의 국제비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국의 20세 이상 성인 및 성인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생활행동에 배분하는 시간과 이것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그림 3-1-1>, <그림 3-1-2>, <그림 3-1-3>).

<그림 3-1-1> 4개국 전체 성인의 생활시간 구조(요일 평균)

(단위 : 분, %)



먼저 <그림 3-1-1> 을 통해 전체 성인의 24시간의 생활구조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유지로 하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자유시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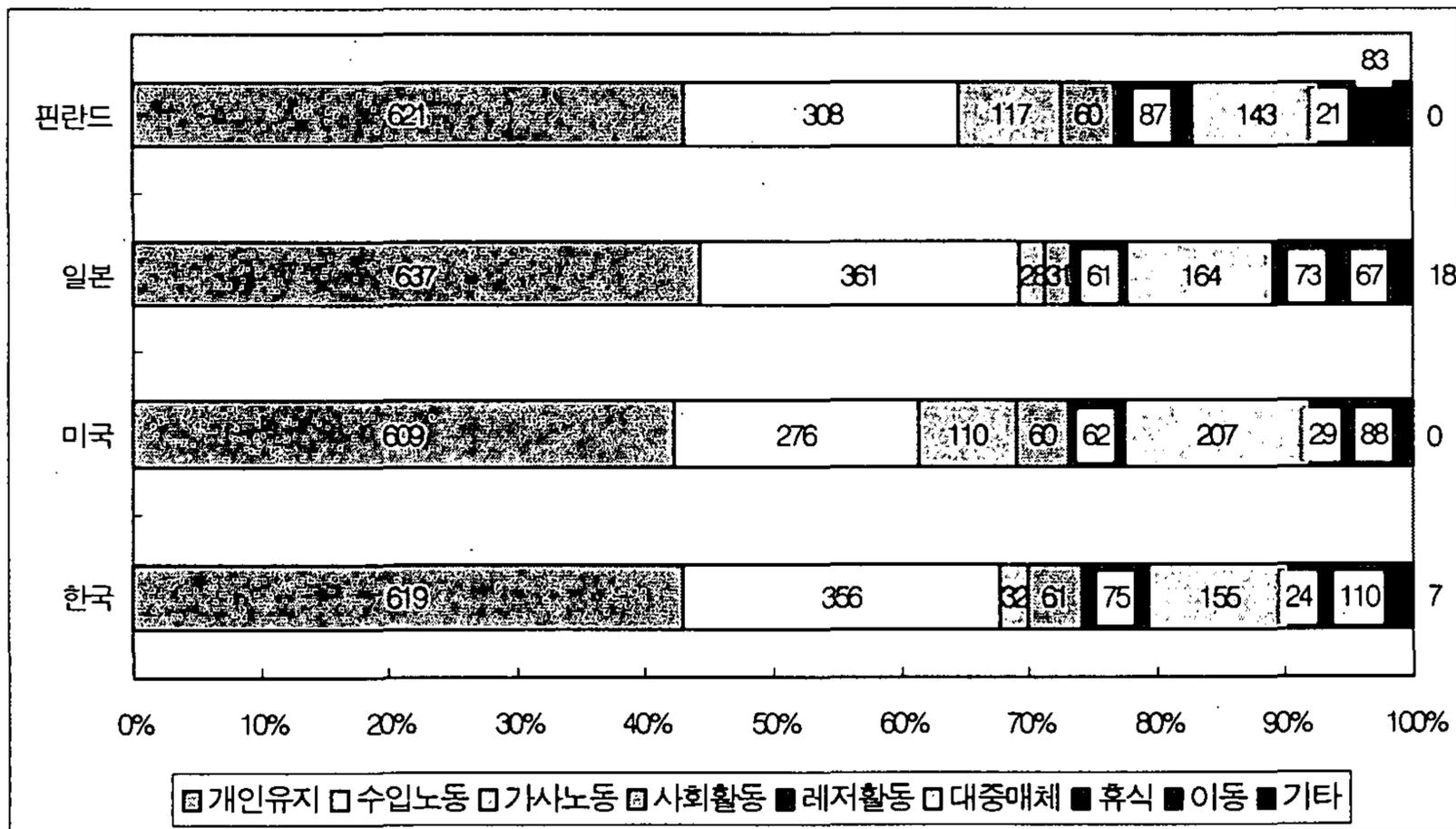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데 특히 미국의 경우는 하루의 24.5%로 가장 많고, 한국 성인은 20.9%로 가장 적다. 핀란드와 일본의 자유시간은 각각 하루의 21.3%, 21.6%로, 미국을 제외한 3국간에는 큰 차이는 없다. 각국의 성인들이 세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수입노동과 관련된 시간이다. 미국인들은 하루의 15.4%만을 일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국가로 이름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성인은 각각 하루의 19.4%, 18.9%를 수입노동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인들이 네 번째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가사노동 시간으로 하루의 약 10% 내외를 사용하고 있다.

생활시간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성인의 시간사용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유지 시간이 618분(42.2%)으로 조사국가 중 가장 작고 자유시간도 301분으로 가장 작다. 반면 수입노동시간은 280분으로 조사국가 중 가장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일본과는 같고 핀란드나 미국보다는 적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시간이 서구보다 적은 것은 다음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남성의 가사참여가 낮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이동시간이 96분(6.6%)로 4개국 중 가장 긴 것이다.

<그림 3-1-2> 4개국 남성의 생활시간 구조(요일 평균)

(단위 : 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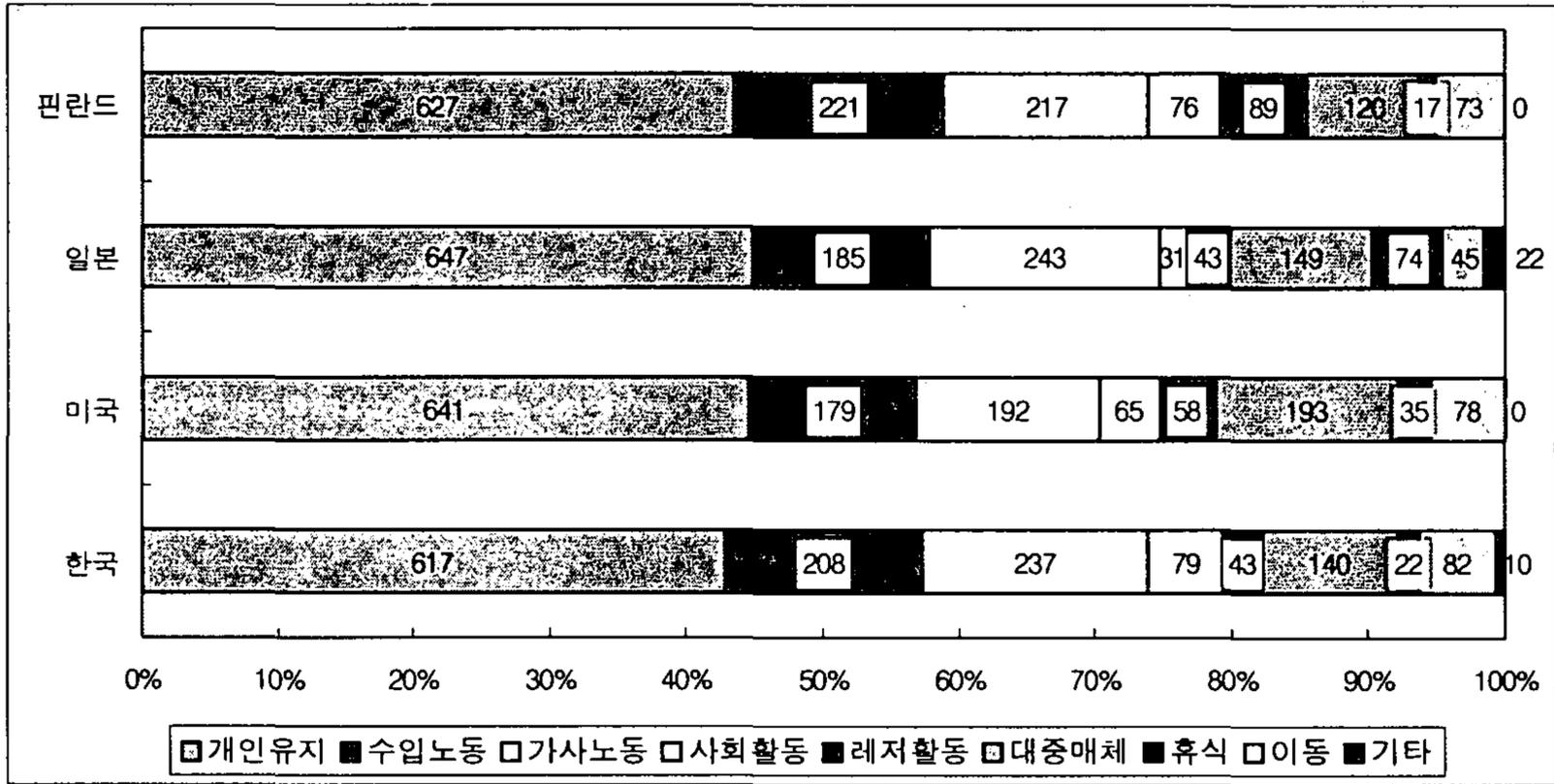
〈그림 3-1-2〉에서는 성인 남성만의 생활시간 구조를 살펴보았다. 성인 남성의 시간사용을 앞서 논의한 전체 성인과 비교할 때, 개인유지 시간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일본에서 더 강해서, 이 두 나라의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은 자유시간의 비중보다 크다. 미국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특히 적는데,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4시간 36분(19.2%), 한국 성인 남성의 노동시간은 5시간 56분(24.7%)으로 하루에 1시간 20분, 일주간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9시간 27분을 한국 남성이 미국 남성보다 더 일하는 것이다.

전체성인과 비교할 때 성인 남성의 생활에서 줄어드는 시간은 가사노동 시간이다. 특히 가사노동시간은 수입노동시간이 대폭 늘어난 한국과 일본 남성의 경우 줄어드는 폭이 커서 이들이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하루 평균 32분(2.2%), 28분(1.9%)에 불과하다. 자유시간은 전체 성인보다 다소 증가해서 하루의 18.0%(한국)에서 24.8%(미국)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시간은 하루의 4.7%(일본) ~ 6.3%(한국)로 전체 성인의 경우보다 성인 남성이 약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음에서는 4개국 성인 여성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려고 한다(〈그림 3-1-3〉 참조). 성인 여성의 생활시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사노동 시간이 대폭 늘어나서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수입노동시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의 8.1%(핀란드)에서 1.9%(일본)만을 차지한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일본과 한국이 각각 하루의 16.9%와 16.5%를 차지하며, 가장 짧은 미국은 13.3%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은 적은데, 하루의 12.4%(미국)에서 15.3%(핀란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성역할 고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미국과 핀란드는 비교적 성 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이 많고,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많은 것은 조사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성인 여성의 자유시간은 성인 전체의 시간에 비해 줄어드는데, 특히 한국 여성의 자유시간 감소가 눈에 띈다.

<그림 3-1-3> 4개국 여성의 생활시간 구조(요일 평균)

(단위 : 분, %)



한국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구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체 성인의 생활시간 구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유지시간과 자유시간이 비교적 적으며,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긴 것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경우 수입노동시간(208분, 14.5%)이 남녀 평등에 있어 가장 앞선 핀란드에 이어 2위, 가사노동시간(237분, 16.5%)은 한국과 더불어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본에 이어 2위를 함으로써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3-1-1>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의 노동과 여가 비율의 국제비교

(단위 : %)

	성인남성				성인여성			
	수입노동	가사노동	총노동시간	자유시간	수입노동	가사노동	총노동시간	자유시간
핀란드	21.4	8.1	29.5	21.6	15.3	15.1	30.4	21.0
일본	25.1	1.9	27.0	22.8	12.9	16.9	29.8	20.6
미국	19.2	7.6	26.8	24.8	12.4	13.3	25.7	24.4
한국	24.7	2.2	26.9	21.9	14.4	16.5	30.9	19.7

생활시간구조에 있어서 노동과 여가의 균형은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활의 여유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표 3-1-1> 에서와 같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하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였다. 성인 남성의 수입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비율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수입노동시간이 자유시간보다 많은 반면 핀란드는 거의 동일한 비율이고 미국은 자유시간의 비율이 수입노동시간보다 5.7%나 많다. 가사노동이란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노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을 수입노동시간과 합쳐 총노동시간으로 하면 노동과 여가의 비율이 역전되어 모든 나라에서 총노동시간이 여가보다 많아진다. 총노동시간과 여가의 비율을 보면 핀란드의 경우 노동의 비중이 여가보다 많이 커지고, 한국과 일본은 총노동시간이 다소 증가하여 여가와 격차가 더욱 커지며, 미국은 총노동시간은 많이 증가하지만 수입노동시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자유시간과의 차이는 가장 적다. 따라서 성인 남성의 경우 핀란드의 노동부담이 가장 크며, 미국이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인여성을 보면 수입노동시간이 남성보다 적으므로 수입노동시간보다는 자유시간의 비율이 더 크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을 합친 총노동시간과 여가의 관계를 보면 한국, 일본, 핀란드 3개국에서 노동의 비중이 여가보다 상당 수준(9%정도) 커지며, 특히 한국의 격차가 가장 크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노동과 여가의 차이가 1.3%에 불과해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성인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핀란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노동의 비중이 크며 한국과 일본은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의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핀란드는 노동과 여가가 불균형하기는 해도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성 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시간은 짧고 여가는 길어 성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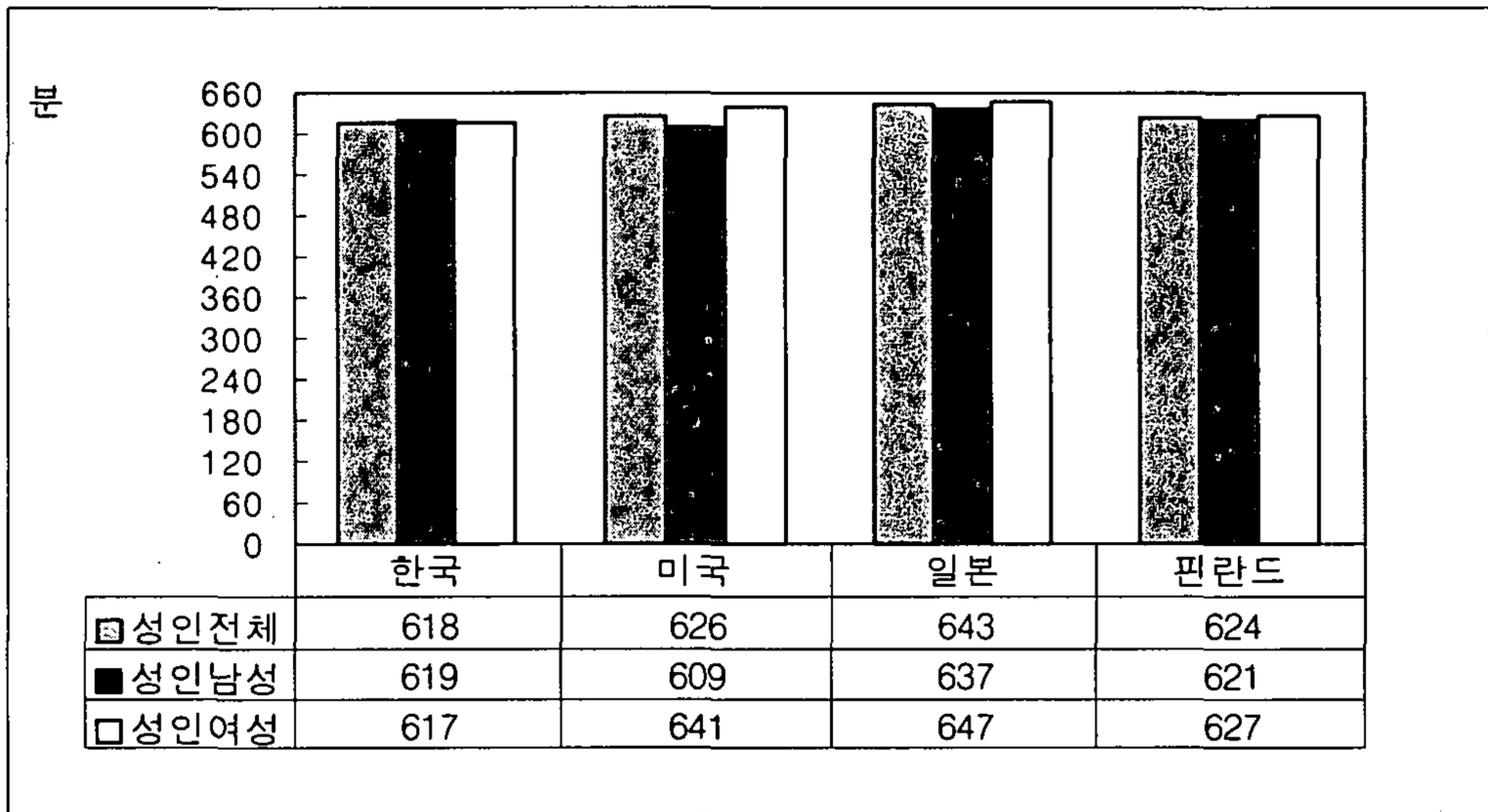
나. 개인유지시간

개인유지시간은 활동의 특성상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평균 10시간 18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유지 시간이 약간 적은 편이다(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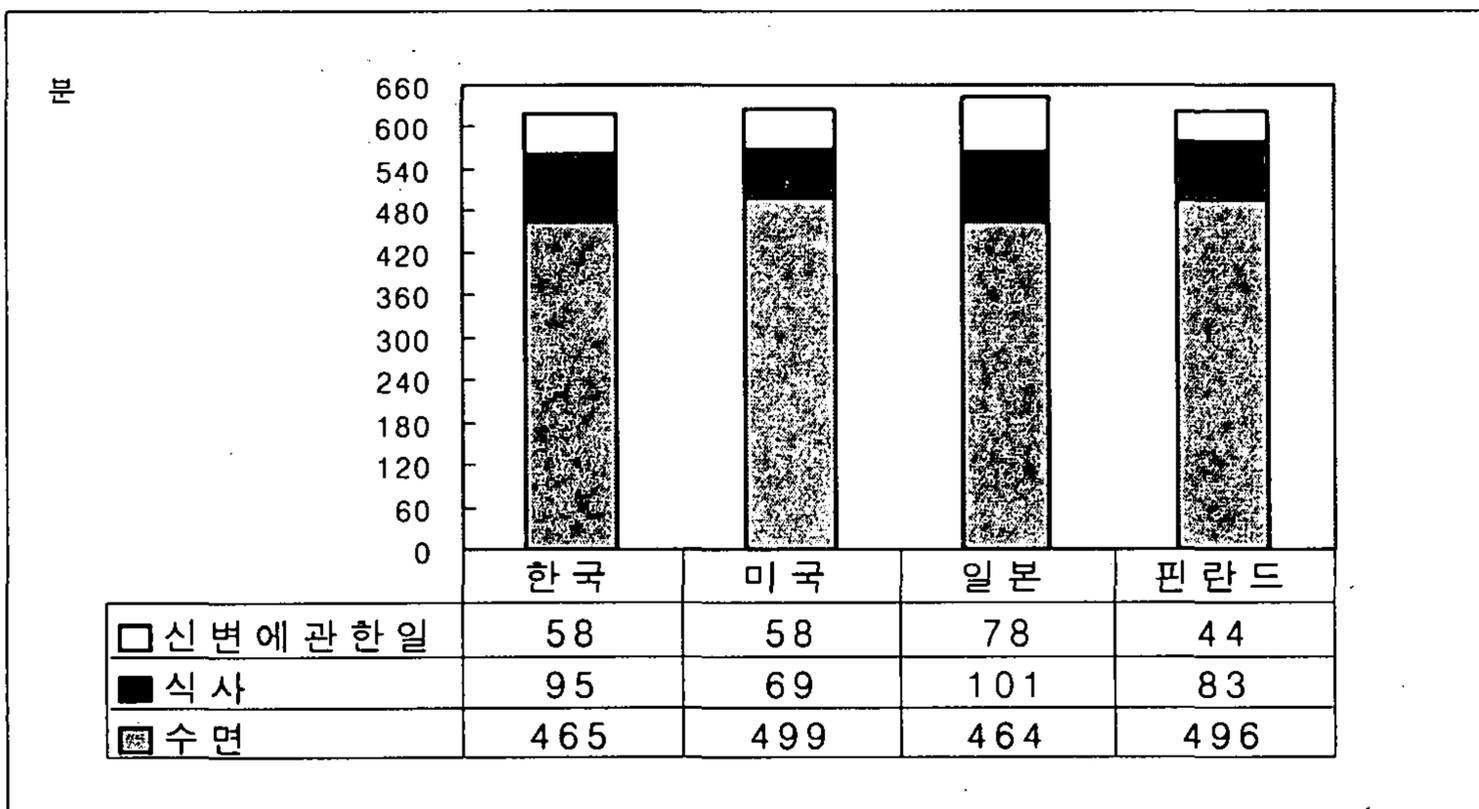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3-1-4). 또한 다른 3국은 모두 여성의 개인유지 시간이 남성보다 더 긴 반면 한국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남성의 개인유지시간(619분)이 여성(617분)보다 약간 긴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3-1-4> 개인유지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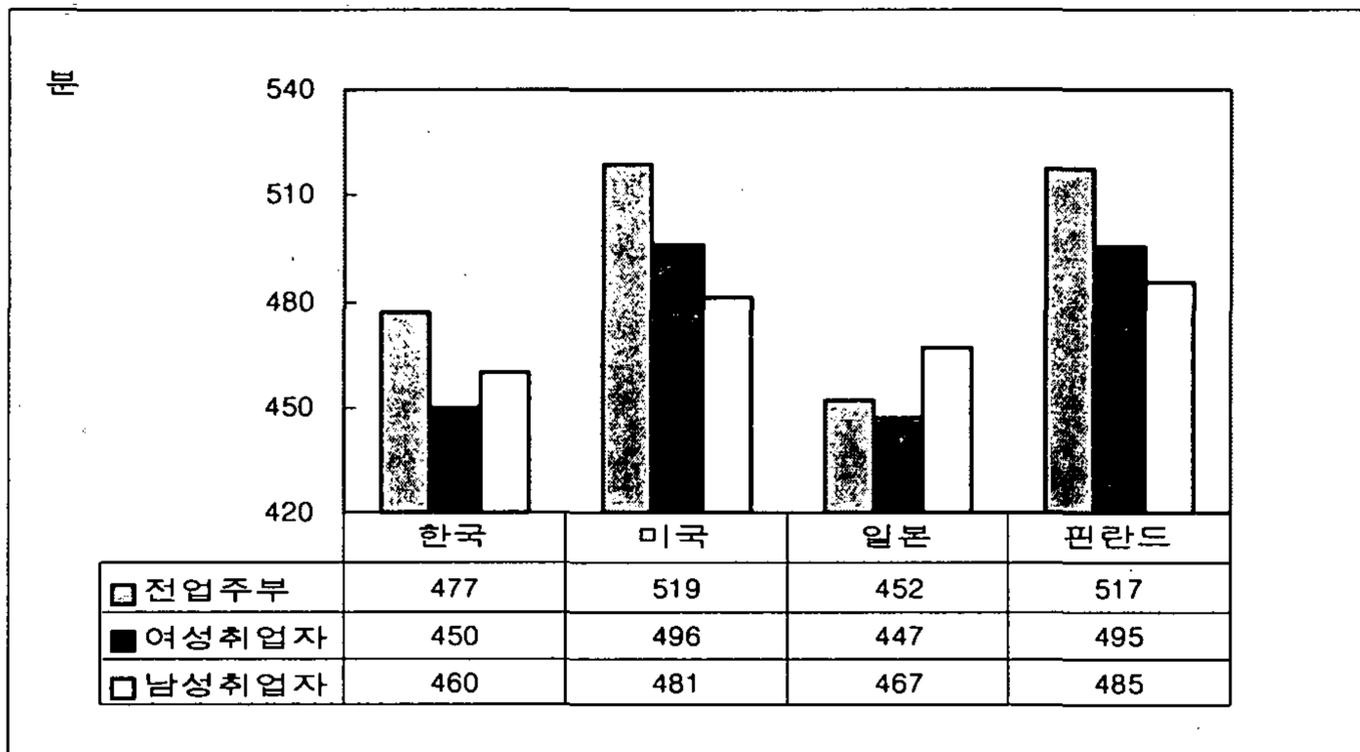


<그림 3-1-5> 개인유지시간의 내역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개인유지 시간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수면과 식사에 있어서 일본과는 유사하고, 미국, 핀란드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그림 3-1-5>). 즉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나 핀란드보다 수면시간은 짧고 식사시간은 길다.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5분으로 미국(8시간 19분)과 핀란드(8시간 16분)보다 약 30분 짧고 일본과 거의 같다. 식사시간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95분과 101분으로 미국(69분)과 핀란드(83분)에 비해서 길다. 특히 미국 성인의 식사시간이 짧은 것이 눈에 띈다. 신변에 관한 일에 보내는 시간은 일본이 가장 길며(78분), 한국(58분)은 중간 수준이다.

<그림 3-6> 수면시간의 취업여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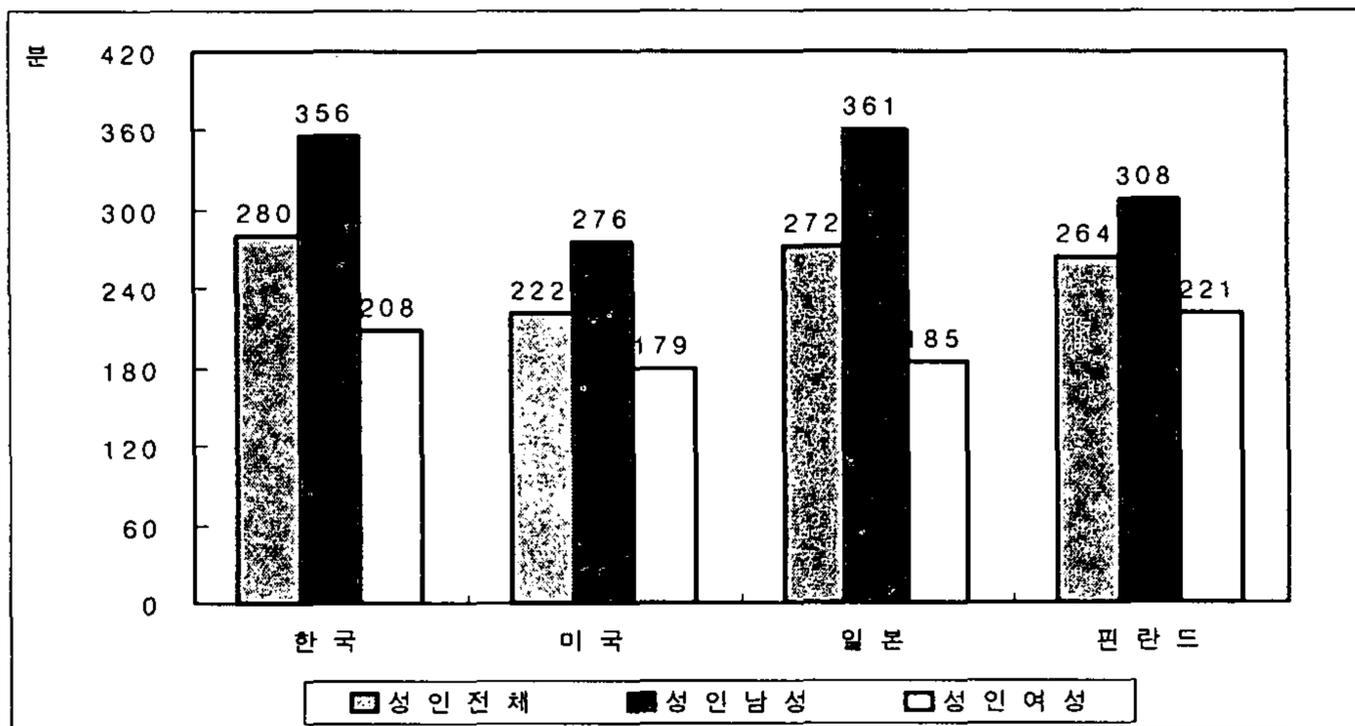
다음은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 각국의 수면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3-1-6>). 취업여부에 따른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이나 핀란드보다 수면시간이 짧다. 집단에 따른 수면시간의 길이는 국가에 따라 다른데 먼저 한국은 전체 집단 중에서 전업주부의 수면시간이 7시간 57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남성취업자(7시간 40분), 여성취업자(7시간 30분)의 순으로 짧아진다. 반면 일본은 남성취업자의 수면시간이 7시간 47분으로 가장 길고, 전업주부(7시간 32분), 여성취업자(7시간 27분)의 순으로 짧아진다. 미국과 핀란드는 전업주부, 여성취업자, 남성취업자의 순으로 수면시

간이 줄어든다. 미국과 핀란드는 남성취업자의 수면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짧은 데 반해 일본에서는 남성취업자의 수면시간이 가장 길고 한국은 전업주부의 수면시간이 가장 긴 것이 특징적이다.

다. 수입노동시간

<그림 3-1-7> 에서 보듯이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수입노동시간은 280분(4시간40분)으로 비교 대상 4개국 중에서 가장 길다. 이를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 성인의 하루 평균 수입노동시간은 272분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4개국 중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짧다.

<그림 3-1-7> 수입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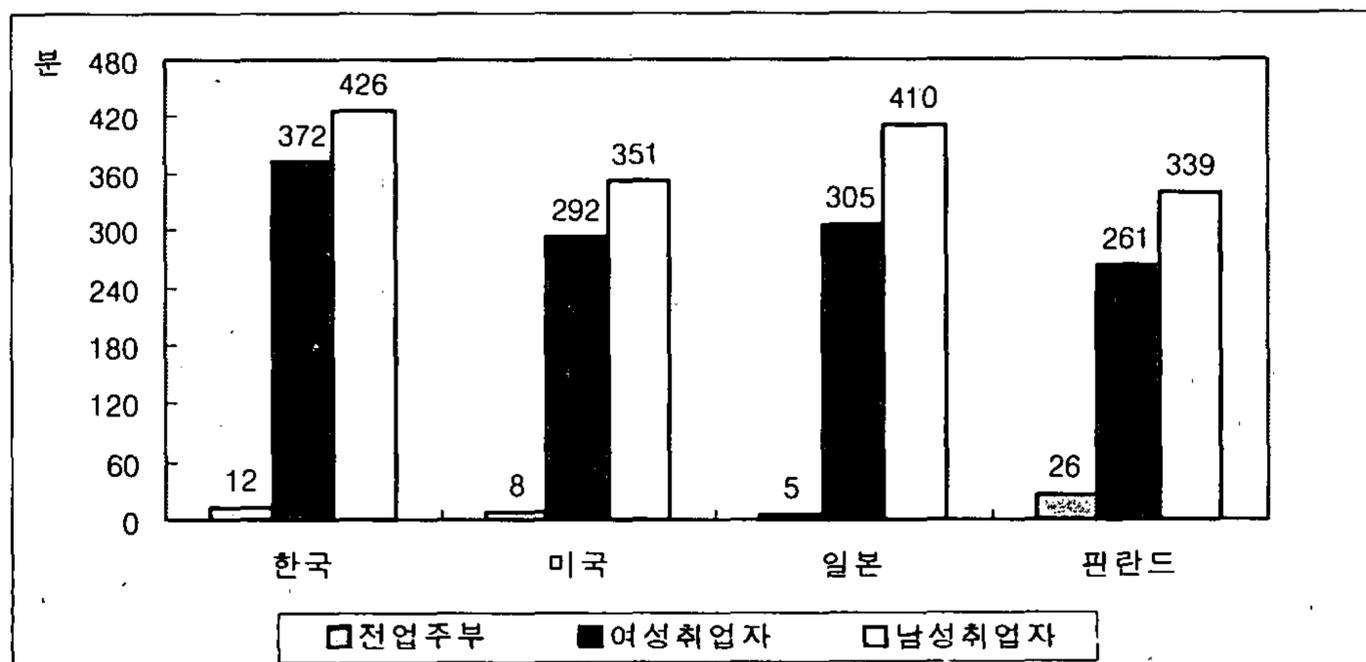
다음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수입노동시간은 356분(5시간56분)으로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미국보다는 80분, 핀란드보다는 48분 더 많으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긴 일본 남성에 비해서는 5분이 적다. 한국 성인여성의 하루 평균 수입노동시간은 208분(3시간 28분)으로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긴 핀란드 여성보다는 13분 적지만 일본 여성보다는

23분, 미국 여성보다는 23분이 더 길다. 한국과 일본의 수입노동시간을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는 한국이 일본보다 적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긴 것이 특징적이다.

남녀간에 수입노동시간에 있어서 가장 동등한 분담을 보이는 것은 핀란드로 하루 평균 남성과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의 차이는 87분(1시간 27분)이다. 한국 남성은 여성보다 하루 평균 2시간 32분 정도 수입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남녀간에 차이가 가장 큰 일본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하루 평균 2시간 56분 정도를 더 수입노동시간으로 사용한다.

남성과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취업여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남성취업자, 여성취업자, 전업주부로 나누어 수입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성인 남성,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다른 정보를 보여준다(<그림 3-1-8>).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한국의 수입노동 시간이 가장 길다. 성인 통계치와의 이러한 차이는 한국 성인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남성은 하루 약 7시간, 여성은 하루 6시간 정도를 수입노동에 보내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남성취업자가 여성취업자보다 수입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핀란드는 그 차이가 약 1시간 정도였으며, 수입노동시간의 남녀 차가 가장 큰 일본의 경우는 차이가 1시간 40분이상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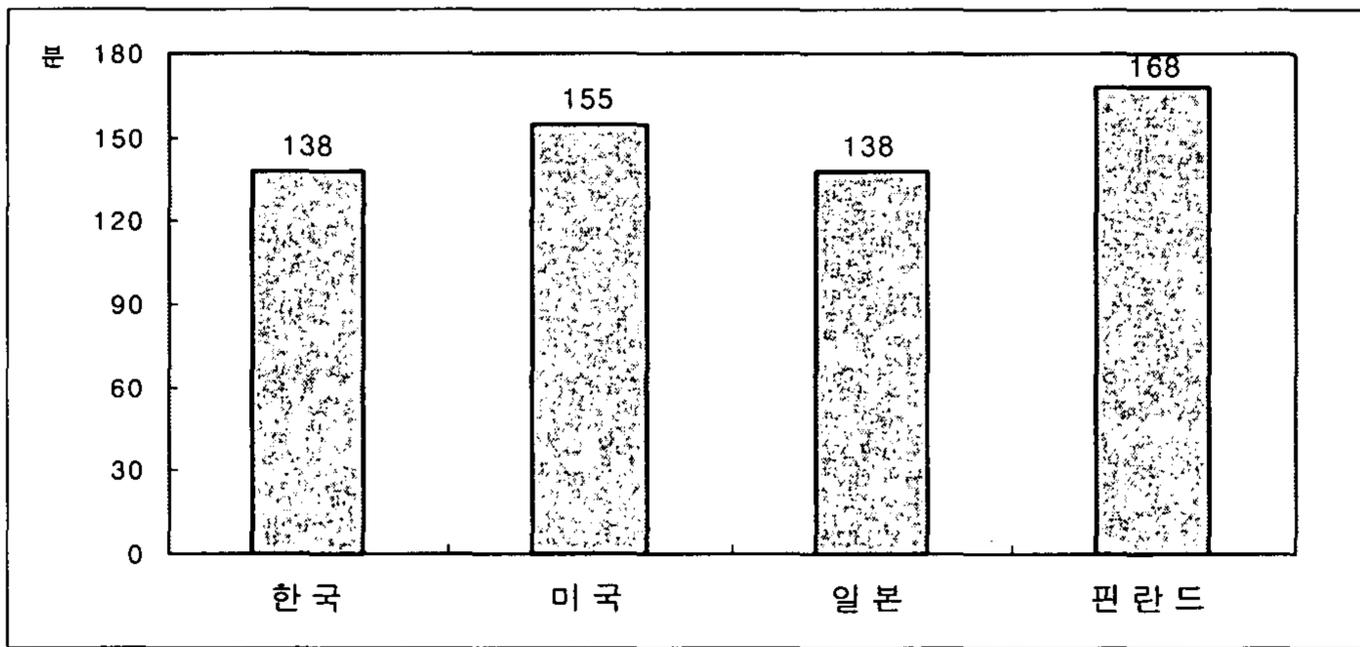
<그림 3-1-8> 수입노동시간의 취업여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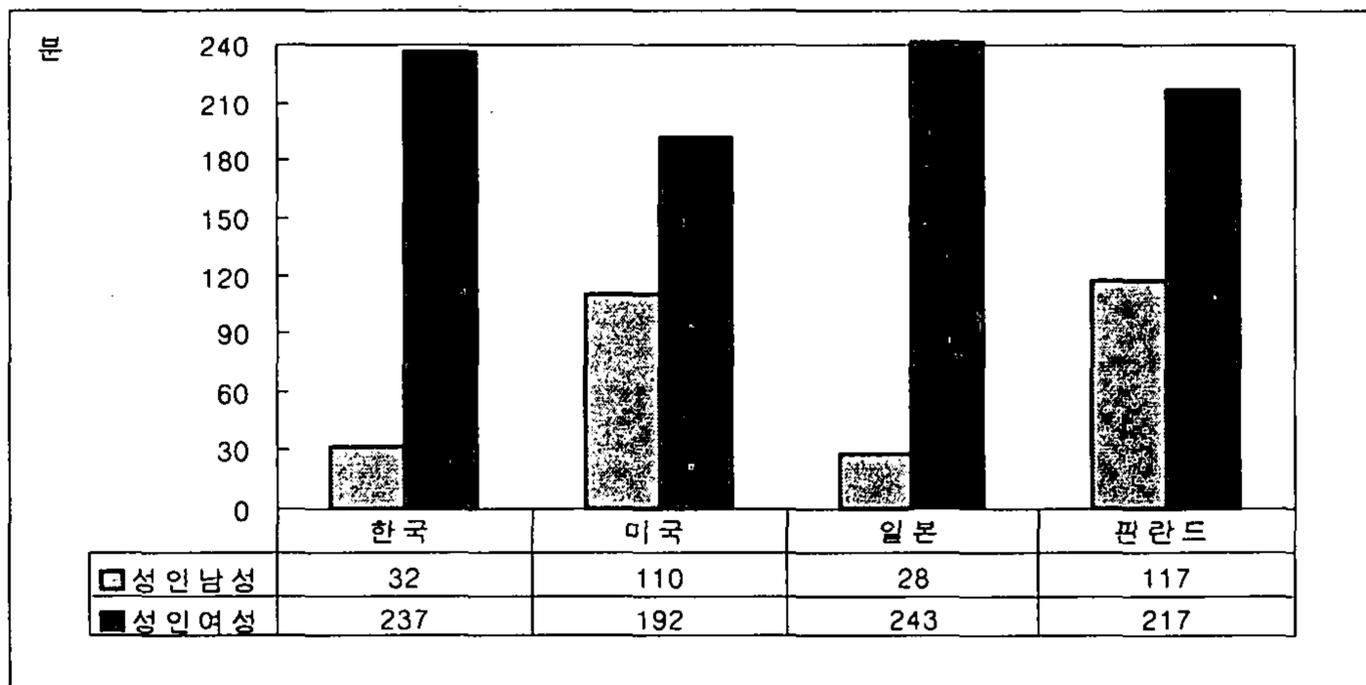
라. 가사노동시간

최근 가사노동에 대한 통계학자 및 경제학자, 정책입안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가사노동을 경제적 의미의 생산으로 보고 국가의 경제적 생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된 것이다.

<그림 3-1-9> 성인 가사노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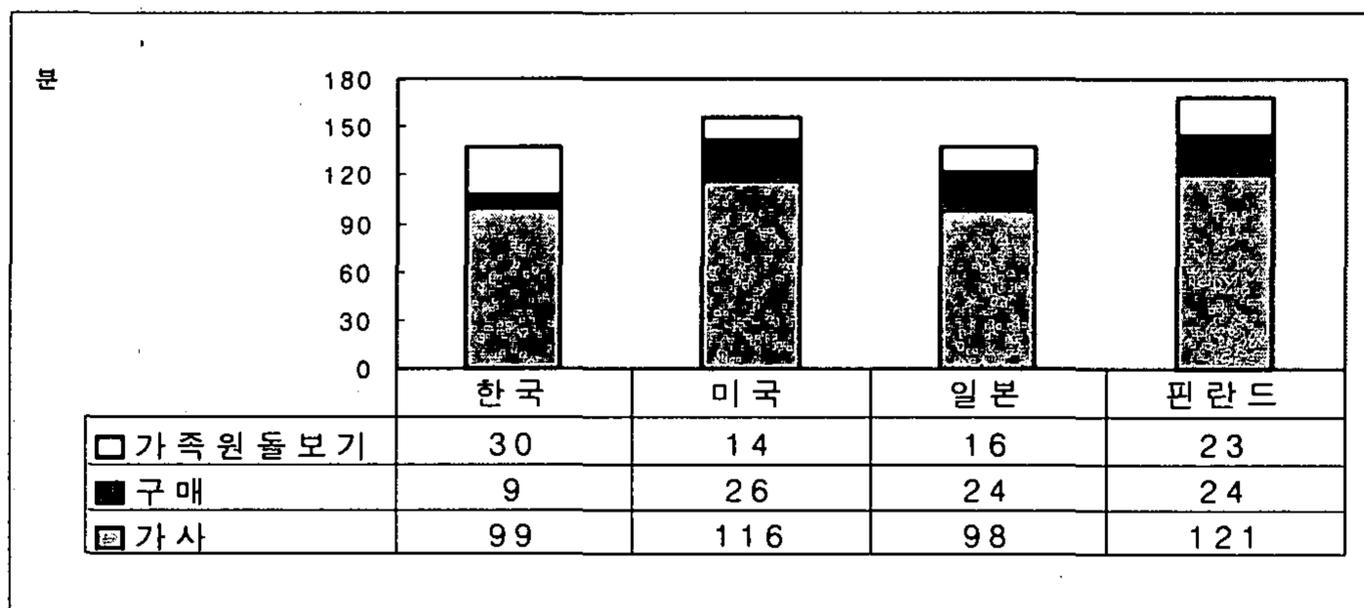
<그림 3-1-10> 가사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먼저 각국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하루 3시간 미만이다(<그림 3-1-9>). 조사 대상국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사노동시간이 138분으로 작은

편이며, 핀란드가 168분으로 가장 길고 미국도 155분으로 긴 편이다. 한국과 일본의 가사노동시간이 적은 것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데, 이는 <그림 3-1-10>의 성별 가사노동 시간의 국제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성별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동양과 서양간에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과 일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0분 내외로 2시간 가까운 미국과 핀란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4시간정도로 미국이나 핀란드 여성보다 20~50분 정도 길다. 한국과 일본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비교적 성평등한 모습을 보여 동서양간의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그림 3-1-11> 성인 가사노동시간의 내역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한편 가사노동시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림 3-1-11>에서와 같이 국가간에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가사시간²⁾이 99분으로 일본과는 비슷하나, 미국이나 핀란드에 비해서는 짧다. 또한 한국 성인의 구매시간은 9분에 불과하여 4개국 중 가장 짧다. 반면에 가족원돌보기 시간은 한국이 30분으로 가장 길며, 다음이 핀란드(23분), 일본(16분), 미국(14분)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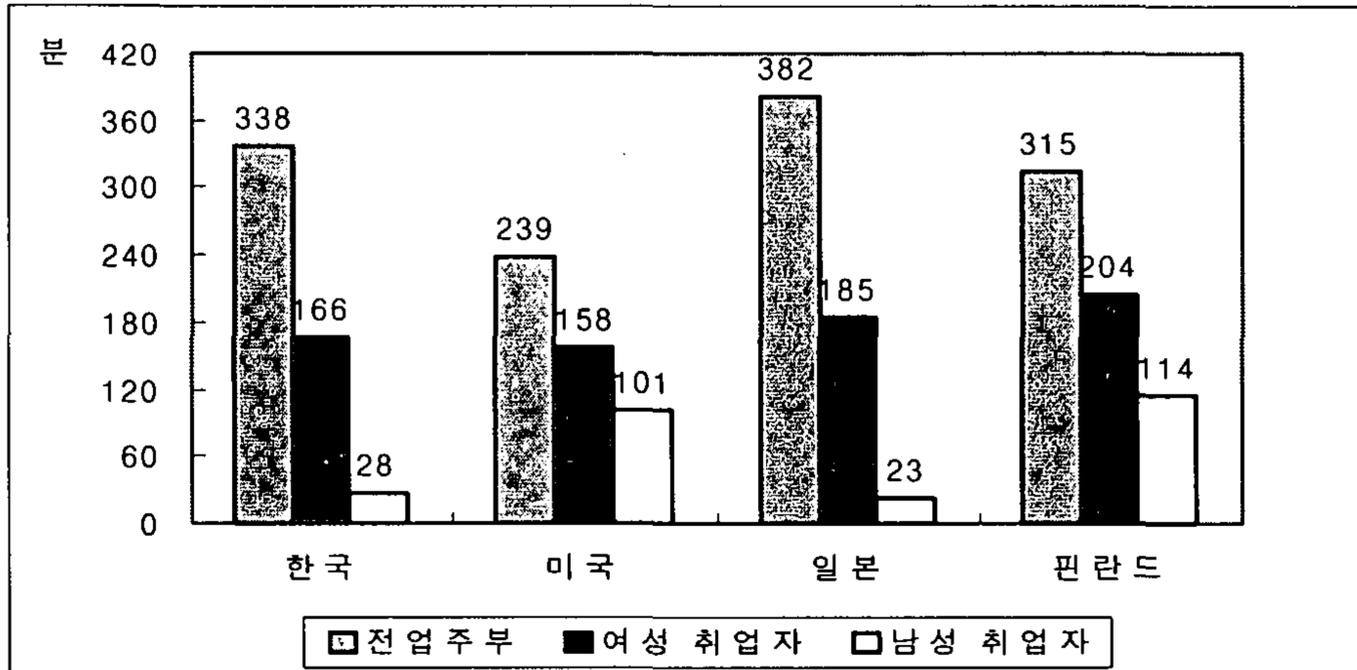
가사노동시간을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 남성취업자, 여성취업자 전업주부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3-1-12>에서 보듯이 각국의 남성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성인 남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

2) 가사시간은 식사준비 및 설거지시간, 청소, 세탁시간, 주택관리,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에 소비한 시간을 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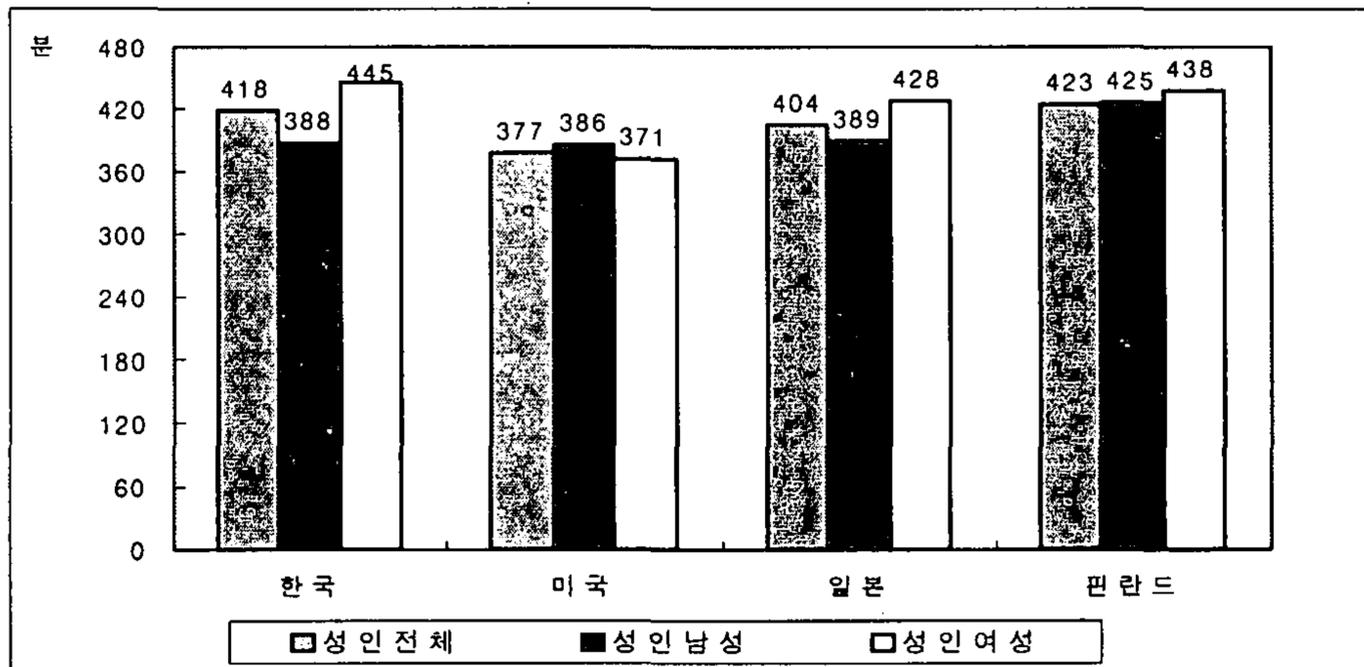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성의 경우는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모든 나라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보다 훨씬 많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일본이 6시간 22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 핀란드이며, 미국은 가장 작아 3시간 59분이다. 여성취업자의 경우에는 핀란드가 가장 많아 3시간 24분이며, 그 다음이 일본, 한국, 미국의 순이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국가에 따라 다른데 한국과 일본의 동양권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취업주부보다 2배 이상 많은데 반해 미국과 핀란드의 서양권은 1.5배 정도이다.

<그림 3-1-12>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그림 3-1-13> 총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다음에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3-1-13).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성인은 하루 6시간 58분을 노동에 소비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7시간 3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핀란드는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적었으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어 총노동시간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미국은 수입노동시간이 4개국 중 가장 작았던 만큼 총노동시간도 하루 평균 6시간 정도로 가장 적었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남성의 경우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 28분으로 총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미국(6시간 26분) 다음으로 적으나, 한미일 3국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의 총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핀란드(7시간 5분)인데, 수입노동시간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적은 시간을 나타내었던 핀란드 남성의 노동시간이 이처럼 가장 길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인 여성의 총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한국이 하루 평균 7시간 25분으로 가장 길며, 일본과 핀란드는 각각 7시간 8분과 7시간 18분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 11분으로 전체 집단 가운데서 가장 적었다.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항상 남성근로자의 장시간노동이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노동력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노동의 한 형태로 인식된다면 총노동시간의 관점에서 볼 경우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 여성의 전체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한편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핀란드와 미국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의 차이가 약 10분 내외로 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의 차이가 각각 57분, 39분으로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긴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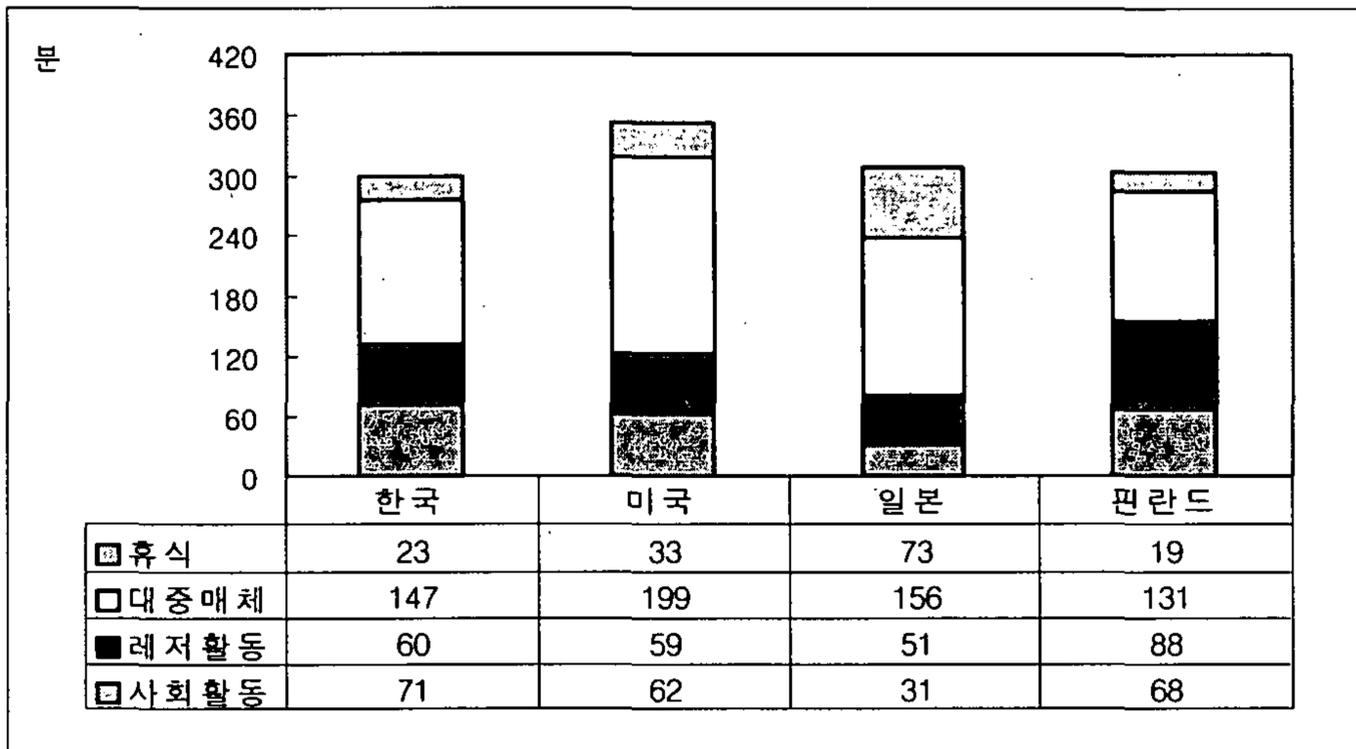
마. 자유시간

앞에서 살펴본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및 개인유지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요소에 의하여 규정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반해 자유시간은 앞서의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생활행동의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활동 분류를 참고하여 자유시간을 사회활동, 레저활동, 대중매체, 휴식으로 분류하였다.

조사국가 가운데에서 한국 성인의 자유시간은 하루 301분으로 가장 짧으며, 자유시간이 가장 긴 미국과는 하루 52분이나 차이가 난다(<그림3-1-14> 참조). 자유시간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은 대중매체 시간으로 미국의 자유시간이 가장 긴 것은 월등하게 긴 대중매체시간 때문이다. 그 다음은 레저활동과 사회활동 시간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휴식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활동이 71분으로 조사국가 중 가장 길며 레저활동은 60분으로 중간 정도이다. 일본은 휴식이 73분으로 매우 긴 특징을 보이는데, 가족단위의 시간이 휴식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대중 매체 시간과 휴식시간은 각각 147분과 23분으로 조사국가 중 3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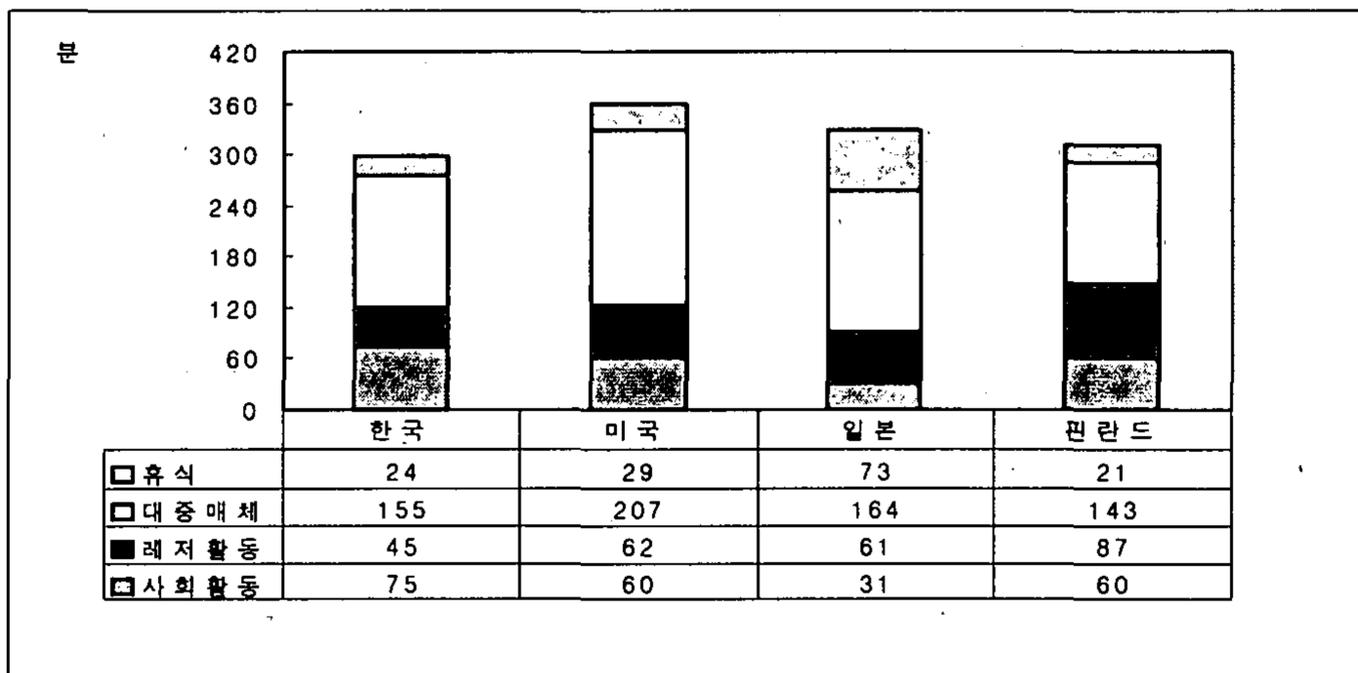
<그림 3-1-14> 자유시간의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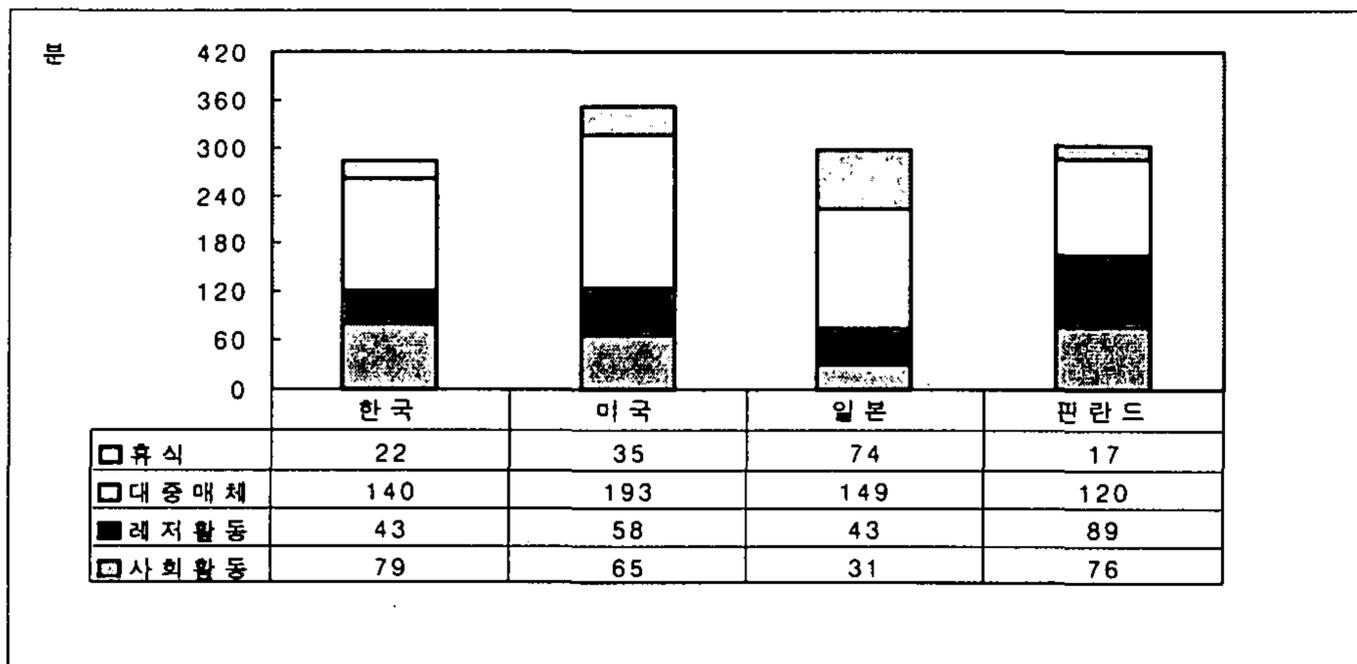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자유시간의 사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중매체 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남성이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반면 사회활동 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길다. 특히 한국 여성의 사회활동시간이 가장 길데, 이는 한국여성의 종교활동 시간이 하

루 16분으로 가장 긴 것이 반영된 때문이다. 레저활동 시간은 핀란드가 남성, 여성 모두에서 가장 길다. 핀란드와 미국에서는 남녀간 레저활동의 시간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반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남성의 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마지막으로 휴식은 국가에 따라 남성이 길기도 하고 여성이 길기도 한데, 남녀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다만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남성과 여성 모두 휴식시간이 비교국에 비해 긴 것이 눈에 띈다(<그림 3-1-15>, <그림 3-1-16> 참조).

<그림 3-1-15> 남성 자유시간의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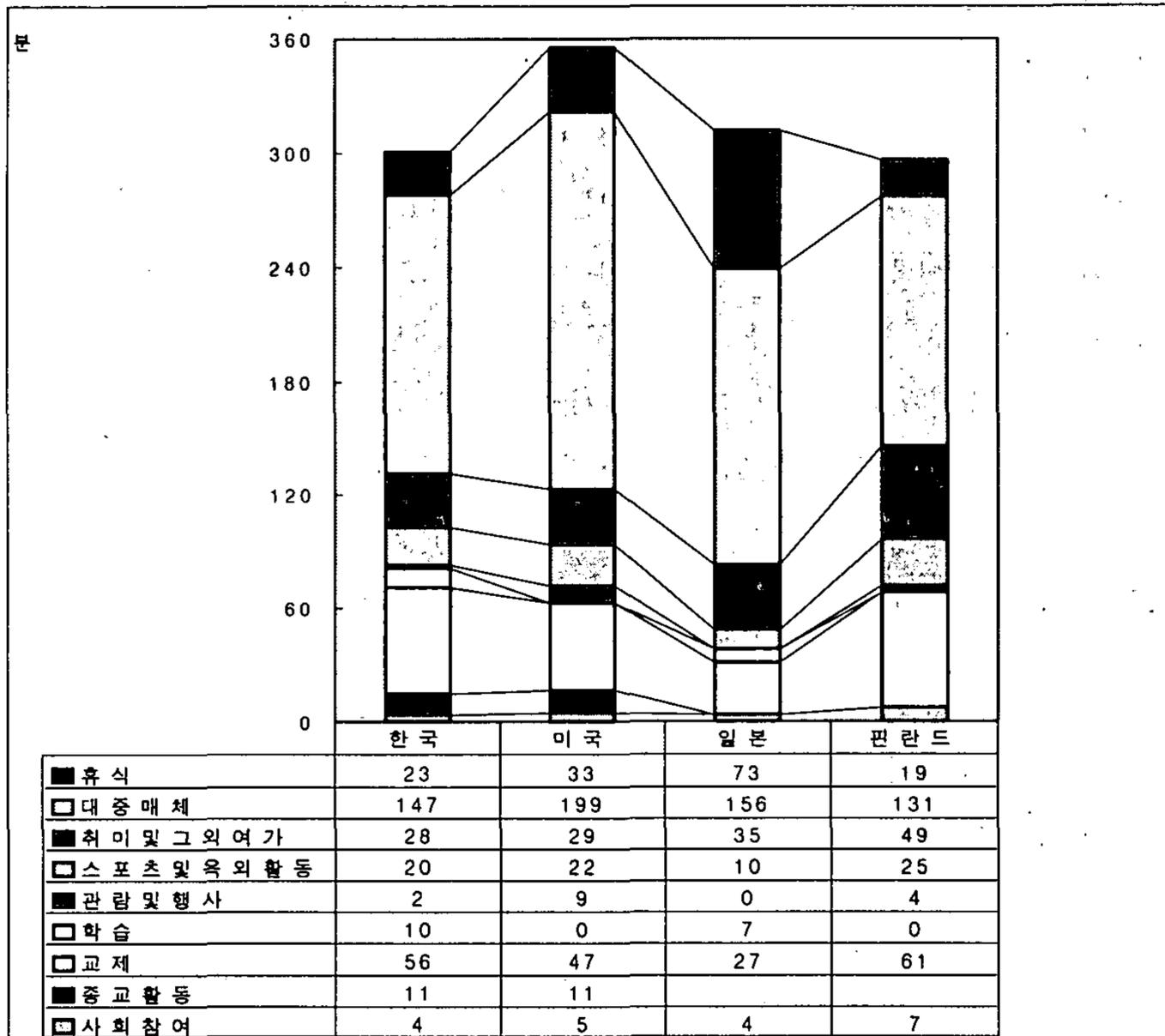
<그림 3-1-16> 여성 자유시간의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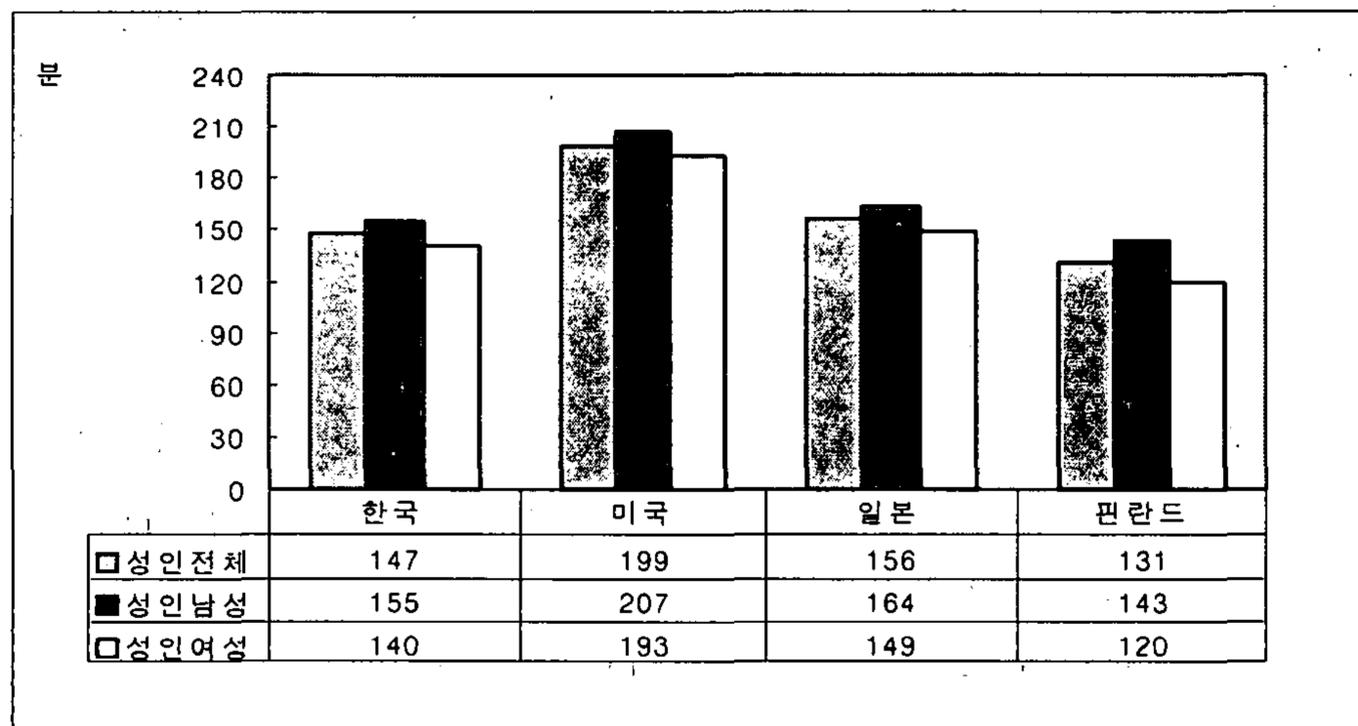
다음은 각국 성인의 자유시간 사용 내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을 비롯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성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간으로 이는 모든 나라에 공통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43분~67분이나 길게 나타나 미국인들의 텔레비전시청시간 등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특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이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한국, 미국, 핀란드의 경우 교제로 특히 한국(56분)과 핀란드 성인(61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다. 한국의 경우는 가족 및 친지와 대화 시간이 교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휴식시간이 73분으로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활동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의 휴식 시간은 가족 및 친지·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일본의 교제 시간이 작은 것은 활동분류 상 이러한 시간이 휴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각국의 자유시간 사용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 종교(각각 11분)가 중요 활동 중 하나로 나타난 것과, 핀란드 성인의 취미 시간(49분)과 스포츠 시간(35분)이 다른 나라보다 길게 나타난 것 등을 들 수 있다(<그림 3-1-17>).

이처럼 한국인은 자유시간의 사용이 대중매체와 교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핀란드의 경우에 자유시간의 절대량은 적으나 교제, 스포츠, 취미,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활동에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자유시간의 양은 가장 많으나 대중매체에만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17> 성인 자유시간의 항목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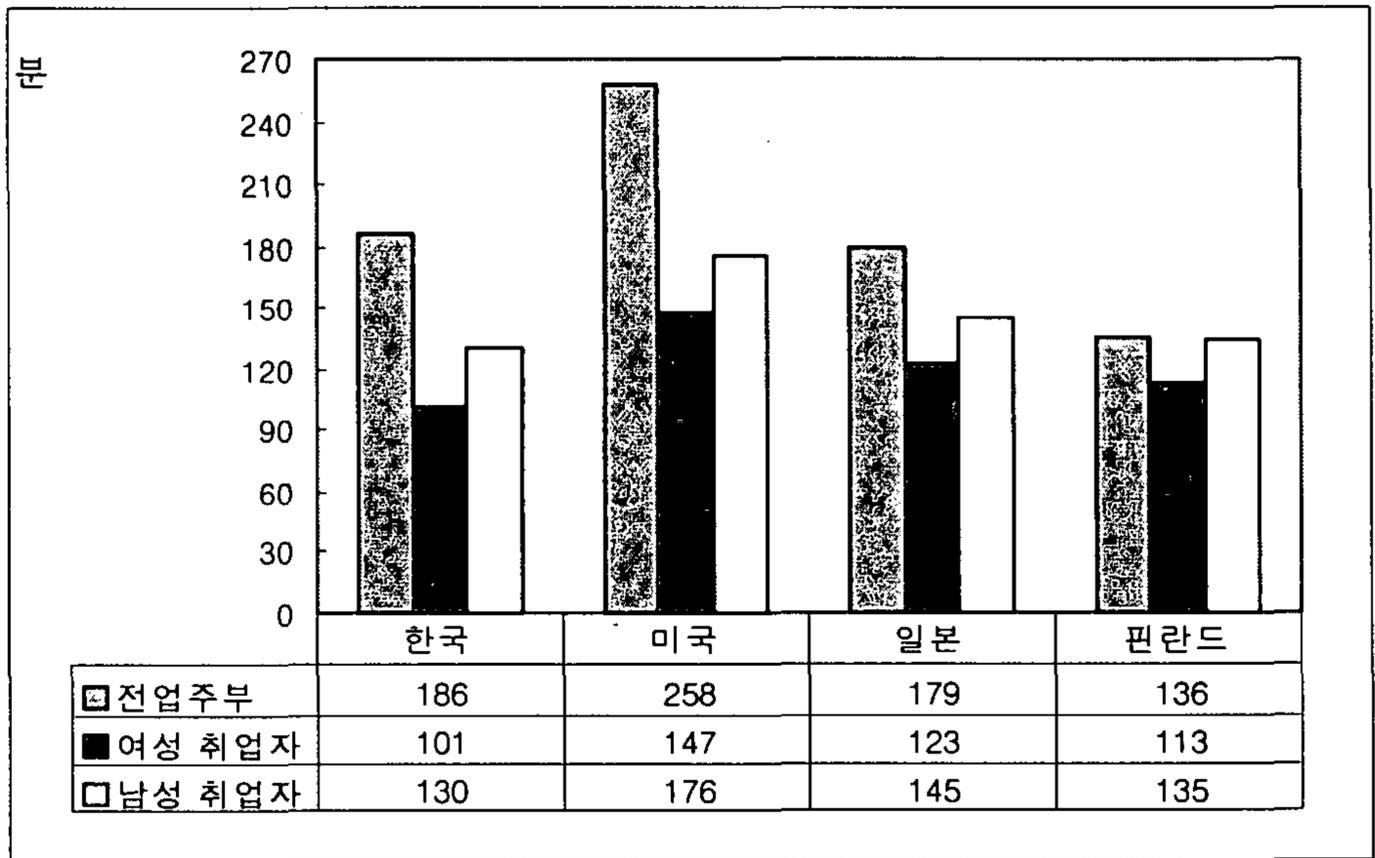
<그림 3-1-18> 대중매체 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한국인의 여가생활을 말할 때 흔히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TV시청, 휴식 등 수동적인 여가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취미나 학습 등의 적극적인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대중매체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4개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한국 성인의 대중매체 시간(147분)은 미국(199분), 일본(156분)에 이어 세 번째로, 예상과는 달리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남녀로 나누어 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성인 남성이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성인 여성의 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8>).

<그림 3-1-19> 대중매체 시간의 취업여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별 대중매체 시간을 살펴보면 4개국 모두 전업주부의 대중매체 시간이 가장 길고, 여성취업자의 대중매체시간이 가장 적다(<그림 3-1-19> 참조). 여성 취업자와 남성 취업자의 대중매체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취업자가 여성취업자보다 대중매체 시간이 길며 두 집단간 차이는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2~29분 정도이다. 이처럼 남성 취업자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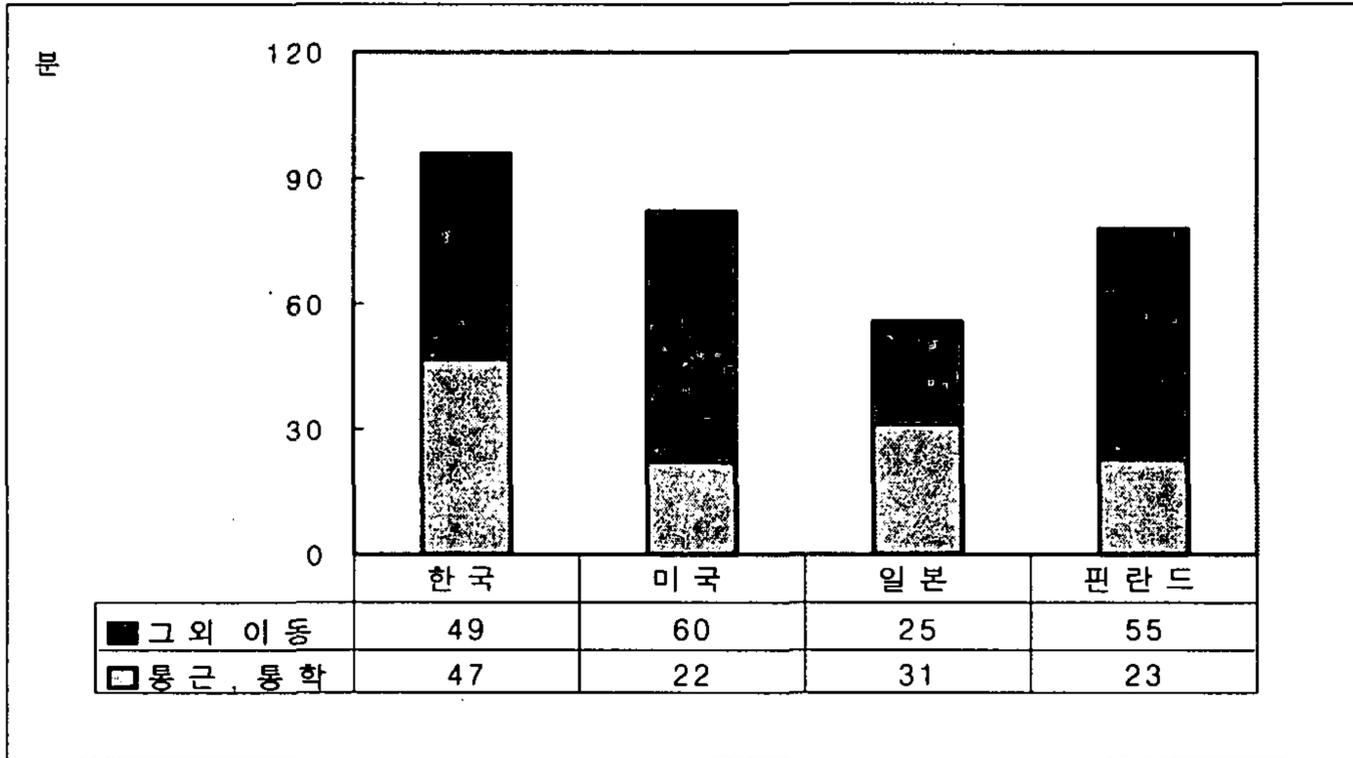
취업자간의 대중매체 시간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 여성 중 전업주부와 취업자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차이가 큰데 미국 전업주부의 대중매체 시간은 258분으로 여성취업자(147분)보다 111분 더 크며 한국의 경우는 75분이 크다. 일본은 56분의 차이를 보이며 핀란드는 23분의 차이에 불과하다. 한편 4개국의 집단 중에서는 미국 전업주부의 대중매체시간이 가장 길어 4시간 18분이며, 가장 짧은 집단은 한국 여성 취업자로 대중매체시간이 1시간 51분이다.

이상에서 볼 때 대중매체 시간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유시간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만 특히 전업주부, 그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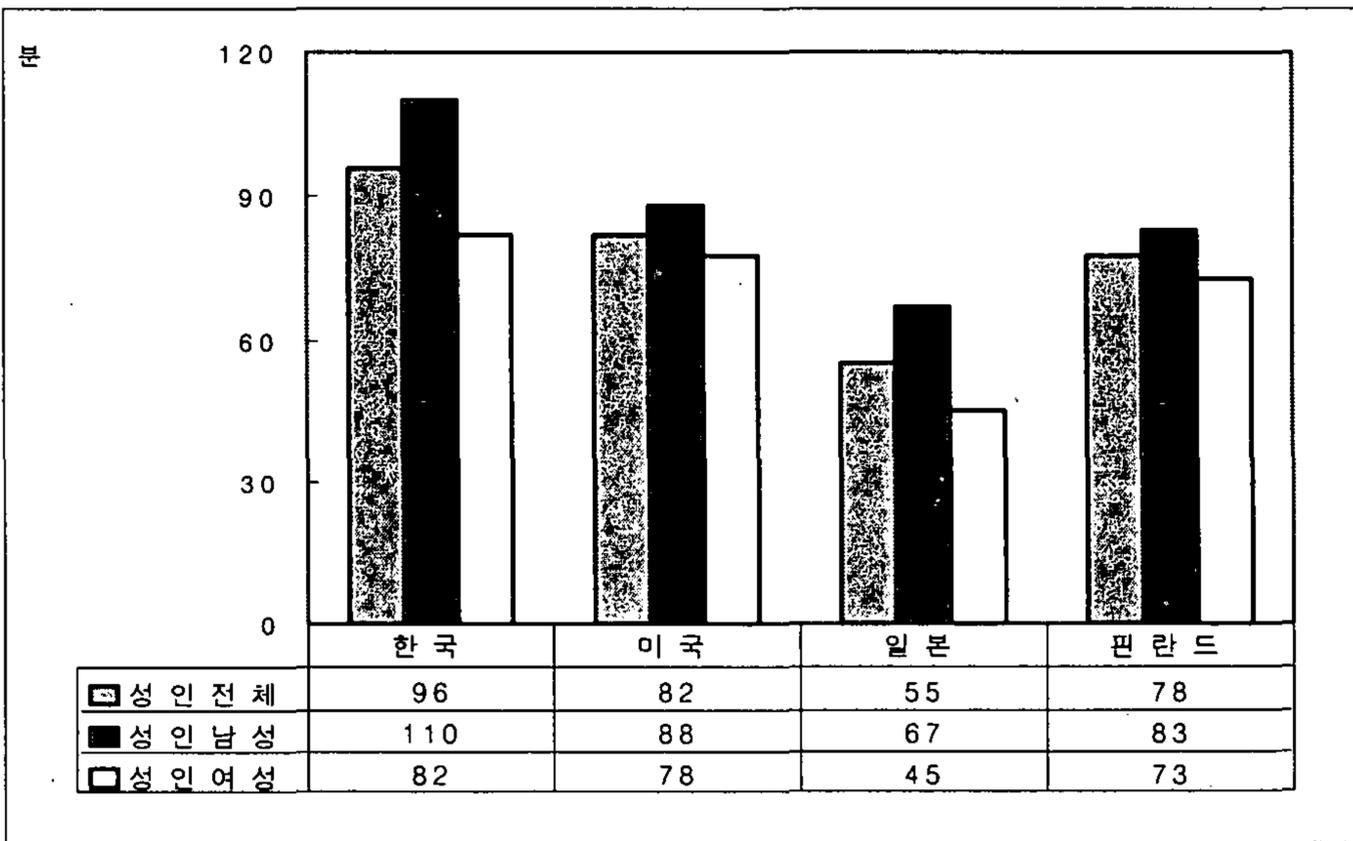
바. 이동시간

한국 성인이 이동을 위하여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은 1시간 36분으로 비교국가 중 가장 길다. 반면 일본은 55분으로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짧다(<그림 3-1-20>). 특히 한국의 경우 통근을 위한 이동시간이 길어서 전체 이동시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직장이 주거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통사정이 복잡한 것과 선진국과 달리 주6일 근무제인 것도 긴 이동시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통근을 위한 이동시간보다는 그외 목적을 위한 이동시간이 길다. 이동을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이나 구매에 서양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또는 구매장소나 여가활동의 장과 같은 생활근린시설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한국인의 이동시간, 특히 통근을 위한 이동시간이 긴 것은 전국민이 길에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국민의 생활시간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인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20> 이동 시간의 내역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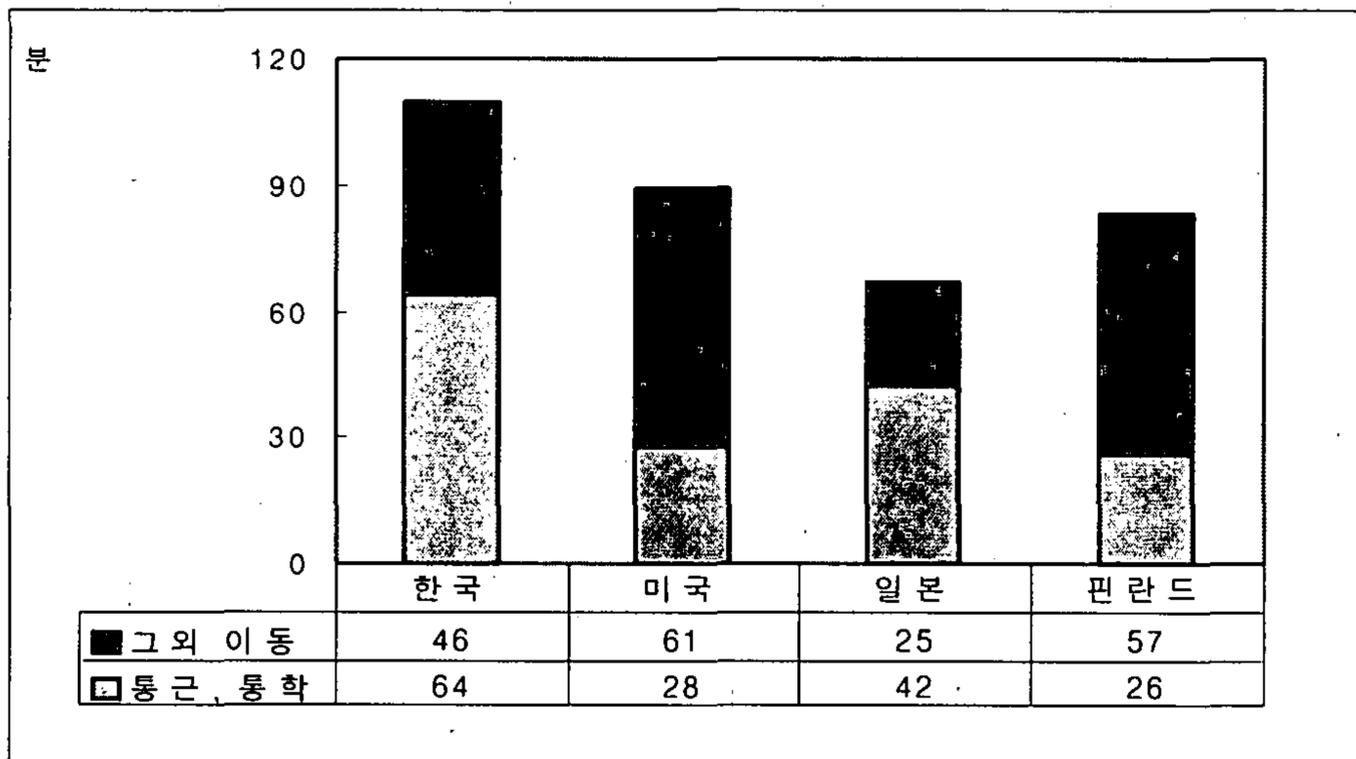
<그림 3-1-21> 이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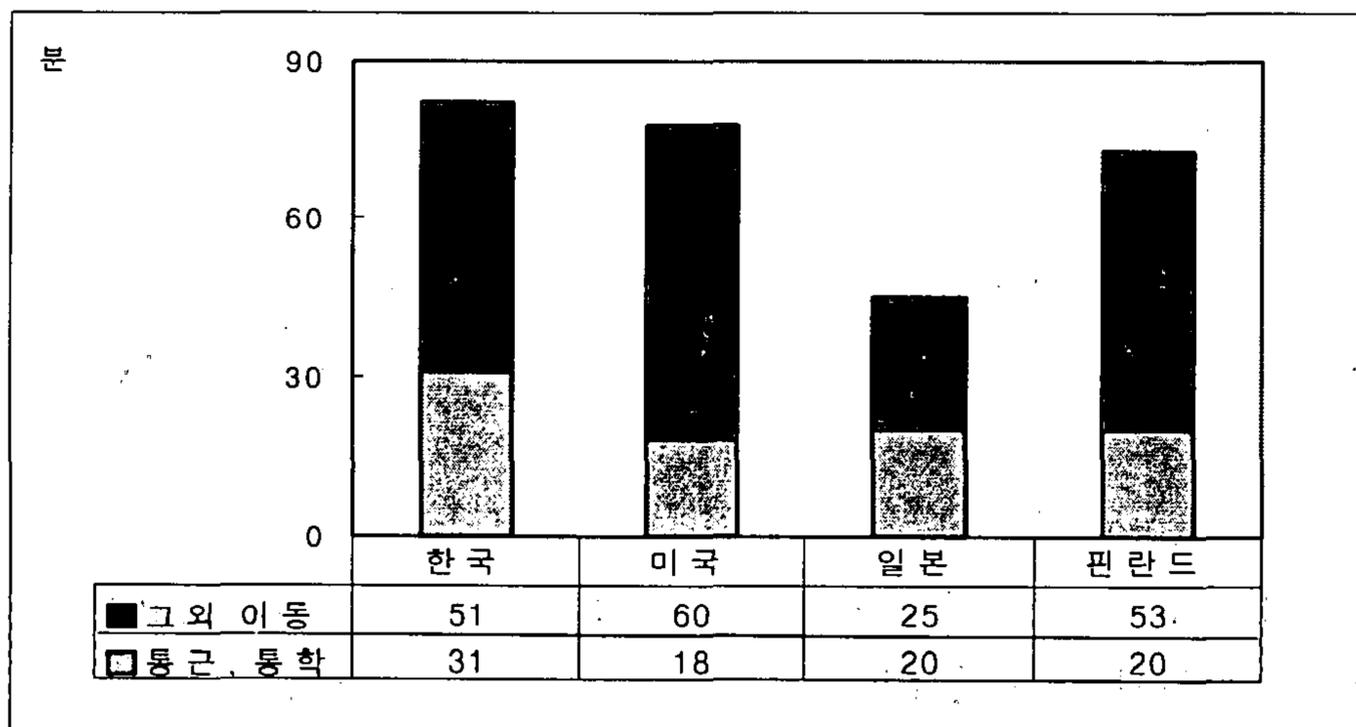
이동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남성의 이동시간이 여성의 이동시간보다 더 긴데(그림 3-1-21), 국가별로는 남성(1시간 50분)과 여성(1시간 22분) 모두 한국 성인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며, 특히 한국 남성의 이동시간은

비교국과 20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 성인의 이동시간이 긴 원인은, 이동시간의 내역을 살펴볼 때(<그림 3-1-22>, <그림 3-1-23> 참조), 한국 남성(64분)과 여성(31분)의 통근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통근시간도 적지만 특히 그외 이동시간이 남녀 모두 적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3-1-22> 남성 이동시간 내역의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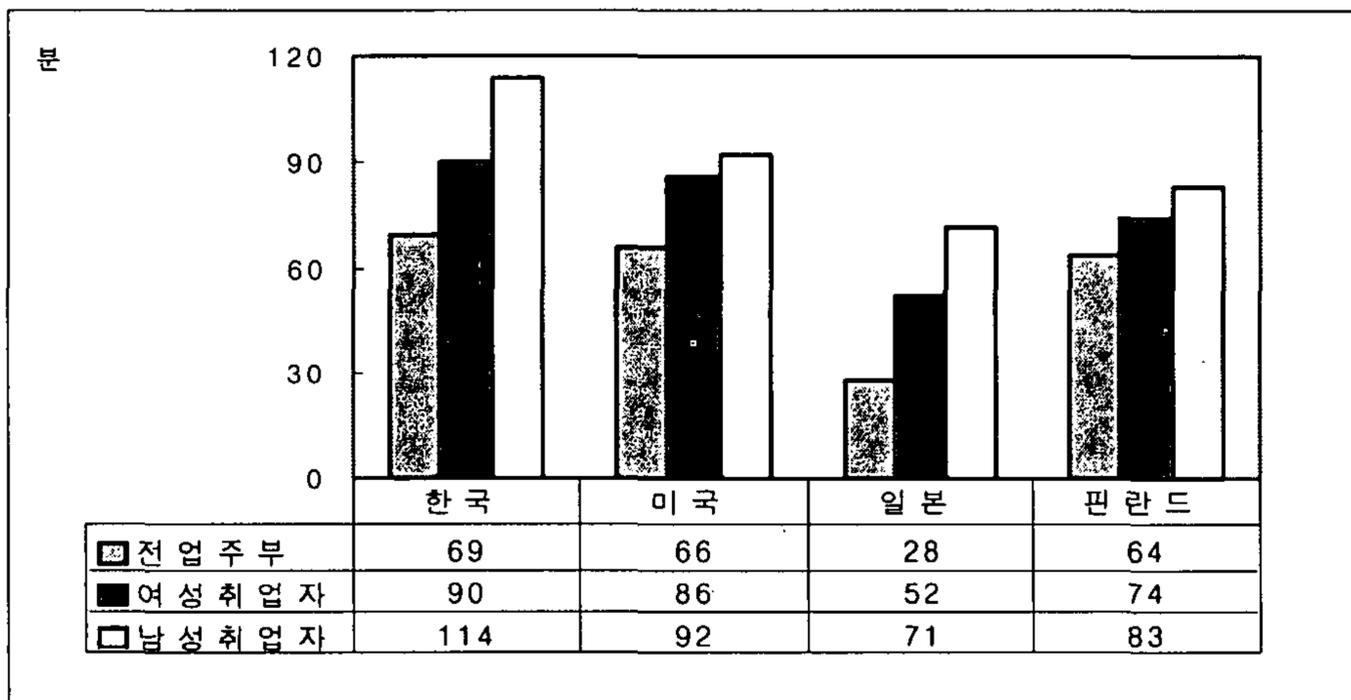


<그림 3-1-23> 여성 이동시간 내역의 국제비교 (요일 평균)



이동시간, 특히 통근시간은 직장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업여부별로 이동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24>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전업주부의 이동시간이 가장 짧고 남성 취업자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이동시간이 짧은 것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전업주부의 이동시간이 눈에 띄게 짧다. 이는 일본에 있어서 생활근린시설의 근접성, 이동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이나 구매에의 소극적 참여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 모든 집단에서 이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모든 집단이 가장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3-1-24> 이동시간의 취업여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사. 소결

본 장에서는 각국의 20세 이상 성인 및 성인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생활행동에 배분하는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았다. 본 장에서 나타난 각국 성인의 시간사용의 주요한 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 성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성인의 생활시간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성인의 시간사용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개인유지시간

이 618분으로 조사국가 중 가장 작고 자유시간도 301분으로 가장 작다. 반면 수입노동시간은 280분으로 조사국가 중 가장 길었다. 가사노동시간은 일본과 같고 핀란드나 미국보다는 적었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시간이 서구보다 적은 것은 성인남성의 가사참여가 낮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이동시간이 96분으로 4개국 중 가장 긴 것이다.

각국 성인 남성의 생활시간을 전체 성인과 비교하면 수입노동시간은 증가하고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변화의 폭은 동양의 두 국가 즉, 한국과 일본에서 더 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수입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가사노동시간이 대폭 증가한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구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체 성인의 생활시간 구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유지 시간과 자유시간이 비교적 적으며,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긴 것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경우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음에서는 개인유지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유지시간은 활동의 특성상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평균 10시간 18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유지시간이 약간 적은 편이다. 또한 다른 3국은 모두 여성의 개인유지시간이 남성보다 더 긴 반면 한국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남성의 개인유지시간(619분)이 여성(617분)보다 약간 긴 것이 특징적이다. 4개국 성인의 개인유지시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수면과 식사에 있어서 일본과는 유사하고, 미국, 핀란드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나 핀란드보다 수면시간은 짧고 식사시간은 길다.

세 번째로, 수입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앞에서 보았듯이 전체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수입노동시간이 비교 대상 4개국 중에서 가장 길었다. 한국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의 수입노동은 각각 일본과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특히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한국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최장이었다.

다음으로 각국 성인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극히 낮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핀란드에 비하여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 이는 성별 가사노동 시간의 국제 비교를 통해 분명해지는데, 한국과 일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0분 내외로 2시간 가까운

미국과 핀란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4시간정도로 미국이나 핀란드 여성보다 20~50분 정도 길다. 한국과 일본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비교적 성평등한 모습을 보여 동서양간의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한편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의 총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핀란드(7시간 5분)로,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주로 핀란드 남성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 여성이 하루 평균 7시간 25분으로 가장 길다. 한편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핀란드와 미국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의 차이가 약 10분 내외로 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의 차이가 각각 57분, 39분으로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다.

다음으로 자유시간을 살펴보면, 한국 성인의 자유시간은 조사국 중 가장 짧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자유시간은 가장 짧은 일본보다는 조금 길었으나 여성은 조사국 중 가장 짧았다. 성별에 따른 자유시간 내역별 사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중매체 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남성이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여성보다 길었다. 반면 사회활동 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긴데, 이는 주로 여성의 종교활동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길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사회활동시간이 가장 긴데, 이는 한국 여성의 종교활동 시간이 하루 16분으로 가장 긴 것이 반영된 때문이다. 레저활동 시간은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길며 핀란드인의 레저활동시간이 남성, 여성 모두 가장 길다. 마지막으로 휴식은 국가에 따라 남성이 길기도 하고 여성이 길기도 한데, 남녀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다만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남성과 여성 모두 휴식시간이 비교국에 비해 긴 것이 눈에 띈다.

한국인의 여가생활을 말할 때 흔히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TV시청, 휴식 등 수동적인 여가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취미나 학습 등의 적극적인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대중매체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4개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한국 성

인의 대중매체 시간(147분)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예상과는 달리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성인의 여가시간이 가장 적은 것은 문제로 지적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한국 성인이 이동을 위하여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은 1시간 36분으로 비교국가 중 가장 길었으며, 이는 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일본 성인의 이동시간은 55분으로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짧다. 특히 한국의 경우 통근을 위한 이동시간이 긴데, 이는 직장 과 주거지와의 장거리, 복잡한 교통사정, 주6일제 근무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이 이동시간, 특히 통근을 위한 이동시간에 다른 나라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간배분상의 낭비를 의미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성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이 장에서는 성별 생활시간이 국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보도록 한다. 앞장에서 성인남녀별 생활시간을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는 각국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비교하고자 했다.

사용한 자료는 평일*5+토요일+일요일로 구한 1주간의 시간량 자료로 168시간의 사용방식이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했다. 요일평균시간보다도 주전체시간의 남녀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생활행동의 대분류에 의한 분석과 생활행동영역별 내역의 소분류 분석 순으로 국가간 비교를 하고자 한다.

가. 생활행동별 국가간 성별차이

생활행동별로 남성과 여성의 참여시간에 차이가 크다면 그것이 남성우위이든 여성우위이든 관계없이 남녀간 생활행동의 불평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생활영역 대분류에 따른 남녀차를 지표화해서 이 지표로 각국의 특징을 보고자 하였다. 지표는 남성의 주평균시간에서 여성의 주평균시간을 뺀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수치를 분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부호가 +로 되어 있는 것은 남성의 시간이 여성보다 많은 경우이고, -부호는 여성의 시간이 긴 경우이다.

생활행동별로 보면 수입노동, 대중매체, 이동에 있어서는 4개국 모두 남성의 시간이 긴 반면, 가사노동과 사회활동은 여성의 편이 길다. 나머지 영역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유지는 한국을 제외하면 여성의 시간이 길고 레저활동은 핀란드를 제외하면 남성이 길다. 휴식은 한국과 핀란드는 남성이, 미국과 일본은 여성이 길게 나타났다.

한편 생활시간배분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평등 정도를 보기 위해 절대치를 합해서 불평등지표로 하였다. 결국 불평등지표 = $\sum | \text{행동별 남성시간} - \text{행동별 여성시간} |$ 이 된다. 이 지표가 영에 가까우면 남녀차가 없는 것이며, 역으로 수치가 크면 클수록 남녀에 의해 시간 사용방식에 차이가 큰 것으로 된다.

<표 3-2-1> 1주간의 남녀차

(단위 : 분, 주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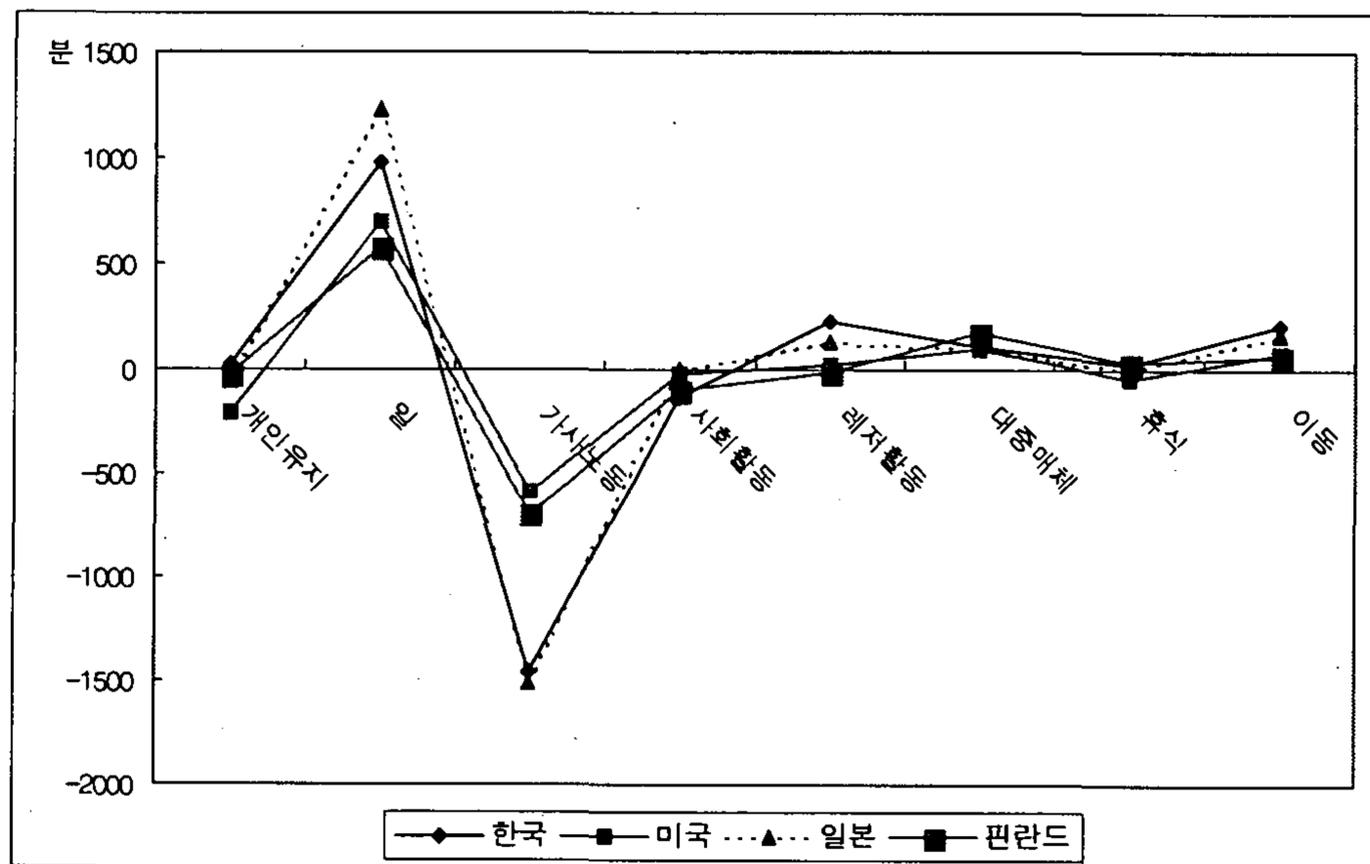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분	%	분	%	분	%	분	%
개인유지	12	0.4	-210	12.1	-62	1.9	-29	1.7
수입노동	980	31.2	688	39.6	1230	38.6	575	34.3
가사노동	-1450	46.1	-586	33.7	-1507	47.3	-694	41.4
사회활동	-133	4.2	-28	1.6	0	0.0	-103	6.1
레저활동	226	7.9	19	1.1	124	3.9	-13	0.8
대중매체	100	3.2	89	5.1	95	3.0	169	10.1
휴식	22	0.7	-45	2.6	-9	0.3	29	1.7
이동	200	6.4	73	4.2	157	4.9	66	3.9
불평등지표(%)	3123	100.0	1738	100.0	3184	100.0	1678	100

<표 3-2-1>에서 불평등지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각각 3123분(52시간 3분), 3184분(53시간 4분)으로 수치가 크고 미국과 핀란드가 1738분, 1678분으로 수치가 작다. 핀란드의 불평등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나 남녀문제에 있어서 평등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시간자료가 1990년대의 것인데 반해 핀란드의 자료가 1987년도에 조사한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

지만 아직도 서구에 비하면 남녀간 불평등이 크다고 하겠다. 이는 유교적 전통에 의한 가부장적 사고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개국의 남녀차를 부호를 포함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불평등 정도의 차이가 명백해진다(<그림 3-2-1> 참조). 즉, 불평등은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역할분담에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근무시간은 남성이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길므로, 이 두 영역의 남녀시간차가 전체의 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남녀차 3123분 중 980분이 수입노동, 1450분이 가사노동에 기인한 차이로 이 두 가지가 남녀차의 77.8%를 설명한다. 일본은 남녀차 3184분 중 1230분이 수입노동, 1507분이 가사노동의 차이로 이 두가지를 합하면 전체 남녀차의 85.9%나 점하게 된다. 미국은 경우는 73.3%, 핀란드는 75.7%가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영향이다.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영향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1> 한국·일본·미국·핀란드의 생활영역별 참여의 성별차이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을 지킨다고 하는 규범은 아직도 통용되고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에 비하면 서구의 평등화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가사노동 참여의 성별차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국과 핀란드의 가사노동 남녀차

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작아 미국이 주당 586분, 하루 평균 84분 정도이며 핀란드는 주당 694분, 하루 평균 99분이다. 가사노동 참여의 성별차는 미국이 핀란드보다 적는데 미국과 핀란드의 조사시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이 가사참여에 있어 보다 평등하다고 간단히 결론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1985년 조사에서 미국의 가사참여의 남녀차가 938분이었는데(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 1995), 10년간 그 차이가 586분으로 줄어든 것은 남녀간 평등도에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국의 가사참여 남녀차는 주당 1450분, 하루 207분(3시간 27분)이며 일본은 가장 커서 주당 1507분, 하루 215분(3시간 35분)이 된다.

불평등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수입노동시간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남녀간 차이가 미국과 핀란드의 남녀간 차이보다 크다. 수입노동시간의 성별 차이 역시 일본이 가장 커서 주당 1230분, 하루 평균 176분(2시간 56분)이며 한국은 주당 980분, 하루 평균 140분(2시간), 미국은 주당 688분, 하루 98분(1시간 38분), 핀란드는 주당 575분, 하루 82분(1시간 22분)이다. 한국, 일본, 핀란드의 3국은 가사노동의 남녀차가 수입노동시간보다 큰데 반해 미국은 근무시간의 남녀차가 가사노동의 남녀차보다 크다. 따라서 불평등지표가 낮은 미국과 핀란드만을 비교하면 가사노동에서는 미국이, 수입노동시간에서는 핀란드가 보다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평등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양국만의 비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수입노동시간의 남녀 차이가 적은 것은 일본 남성의 근무시간(42시간 7분)이 한국 남성의 수입노동시간(41시간 31분)보다 길기 때문이지만, 그와 동시에 여성의 근무시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긴데 기인한다.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은 한국이 24시간 11분, 일본이 21시간 37분으로 한국쪽이 더 긴데, 이는 일본 여성의 시간제근무가 한국보다 보편화되어 있는 것, 즉 양국간 여성의 취업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과 한국은 주당 40시간대로 주당 30시간대인 미국과 핀란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길다. 따라서 남성의 긴 근무시간이 여성의 가사시간 부담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이 일로 바쁘기 때문에 가사를 도와줄 시간이 없는 것인지, 혹은 전통적 규범이 뿌리 강하기 때문에 가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인지,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어쨌든 일본과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서구에 비해 월등하게 적

은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미국과 핀란드 남성은 12시간부터 13시간 가까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 한국 남성은 3시간 반 정도의 협력에 불과하다.

생활행동 중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차이에 비하면 다른 행동의 성차는 상당히 적은데, 항목별 소분류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몇가지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나. 개인유지 항목별 성별차이

「수면」 「식사」 「신변에 관한 일」을 포함한 「개인유지」 시간에 관한 성차는 수치에 있어서는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앞의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호에 차이를 보여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부호가 -로 여성쪽이 남성보다도 시간이 긴데 반해 우리 나라만은 부호가 +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부호의 역전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기 위해 항목별 비교가 필요하다.

소분류에 의한 항목별 남녀 성차를 보면 <표 3-2-2>에서 보듯이 다양하다. 「수면」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남성이 길고 미국과 핀란드는 여성이 길다. 특히 일본은 수면시간의 성차가 가장 큰데 일본 여성의 수면시간이 주당 3182분, 하루 455분(7시간 35분)으로 4개국 중 가장 짧다. 「남편보다 일찍 자면 안되고 남편보다 늦게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하는 가장중심적 규범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 야노(矢野 眞和)의 설명(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 1995)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여성의 수면시간(주당 3237분, 하루 462분)은 일본보다는 길지만 다른 서양의 두 나라보다는 짧아 이러한 설명이 한국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식사」의 경우는 다른 항목에 비해 성차가 적은데 일본을 제외한 한국, 미국, 핀란드에서는 남성의 식사시간이 길며, 특히 핀란드에 있어서 성차가 크다. 반면에 「신변에 관한 일」에서는 모든 나라의 부호가 -로 여성쪽이 길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남녀차가 가장 큰데, 「신변에 관한 일」에 소비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일본의 여성은 618분으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전체 개인유지에 있어 미국의 성차가 가장 크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은 소분류 중 「수면」과 「신변에 관한 일」에서 여성의 우위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수면」에서 남성의 우위정도가 가장 큰 데도 불구하고 전체 개인유지에서 여성 우위로 나타난 것은 「식사」와 「신변에 관한 일」에서 여성의 우위가 크기 때문인데 「식사」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성의 시간이 길었으며, 「신변에 관한 일」에서는 여성의 우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 나라는 수치는 미약하지만 유일하게 남성이 우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면」과 「식사」 두 항목에서 남성이 적은 정도나마 여성에 비해 우위를 유지한 반면 여성이 우위로 나타난 「신변에 관한 일」에서 우위 정도가 적었기 때문이다.

<표 3-2-2> 수면/식사/신변에 관한 일의 남녀차 국제비교

단위 : 분(주합계)

	한국 남녀차	미국 남녀차	일본 남녀차	핀란드 남녀차
수면	36	-106	133	-70
식사	24	22	-41	92
신변에 관한 일	-50	-127	-151	-52

다. 남성과 여성의 수입노동/가사노동 참여 정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성차가 크게 나타나 이 두 나라의 남녀의 역할분담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국과 일본의 남성은 근무시간은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짧으며 반대로 여성은 가사에 전념해서 가사시간은 가장 길고, 일하는 시간은 가장 짧을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절대량을 살펴보았다.

<표 3-2-3>에서 보면 일본 남성의 근무시간이 42시간 7분으로 가장 길고, 한국 남성은 그보다 36분 정도만 짧을 정도로 비슷하게 길다. 핀란드와 미국

남성의 근무시간은 이보다 훨씬 적어 각각 35시간 29분, 33시간 23분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근무시간이 비슷한데 반해 근무시간의 남녀차이가 250분이나 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여성의 근무시간이 일본 여성 보다 긴 것을 의미한다. 일본여성의 근무시간은 21시간 37분으로 4개국 중 가장 짧다. 그러나 한국의 근무시간은 25시간 11분으로 평등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의 25시간54분보다 약간 짧을 뿐이지 21시간 55분인 미국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남녀차가 크다는 것이 결코 여성이 조금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남녀 모두 과도하게 일하는 결과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2-3> 근무시간과 가사시간의 국가별 비교

단위 : 시간:분(주합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근무	41:31	24:11	33:23	21:55	42:07	21:37	35:29	25:54
가사노동	3:40	27:50	12:43	22:29	3:15	28:22	13:46	25:20

한편 여성의 가사시간을 보면 일본이 28시간 22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한국의 27시간 50분, 핀란드의 25시간 20분, 미국의 22시간 20분이다. 즉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일본 여성보다 일주일에 32분, 하루에 5분 정도만 차이가 나서 일주일에 214분, 하루에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근무시간에 비하면 적은 차이이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을 볼 경우 한국 여성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한국 여성이 52시간 1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핀란드(51시간 14분), 일본(49시간 59분), 미국(44시간 24분)의 순이다. 남성의 경우 일본과 한국의 근무시간이 긴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대에 불과하므로 총노동시간은 한국, 일본, 미국이 전부 45시간대로 비슷하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합쳐 볼 때 한국 여성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여성은 성의 불평등에 구속되면서 가사와 일의 역할 「분담」을 한다기보다는 역할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고 하겠다.

라. 남성의 가사노동 협력정도의 국가간 비교

한국과 일본 남성의 가사 협력도가 적은 것은 앞의 표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났는데, 가사노동 항목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실태를 통해 보다 자세히 보고자 하였다. <표 3-2-4>에서는 남녀의 가사노동시간과 남성의 협력도를 보이고 있다. 협력도는 여성의 시간을 100으로 한 경우의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를 상대량(%)으로 지표화했다. 일본의 경우 가사노동 항목별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제외하고 한국, 미국, 핀란드 3개국만을 비교하였다.

우선 「식사준비 및 설거지」의 협력정도는 우리 나라가 겨우 5%인데 반해 핀란드는 27%, 미국은 33%이다. 「청소·세탁」은 우리 나라의 경우 「식사준비 및 설거지」보다 협력도가 높아 12%정도인데 반해 미국은 「식사준비 및 설거지」보다 협력도가 떨어져 21%정도이고 핀란드는 27%로 비슷한 수준이다.

남성의 가사시간이 많은 것은 「기타 가사일」이다.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에는 여성의 시간량의 1.5배~2배이상을 넘고 있어, 결국 이 시간이 서구에 있어서 남녀의 가사노동 불평등을 완화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집수리, 정원돌보기나 차량관리 등 남성 중심형 과제(송혜림, 1988)로 일의 성격상 남성의 참여가 많다고 해서 가사노동의 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항목에서는 가정일에 비협조적인 한국 남성의 협력도도 96%인데 절대적인 시간량은 서구 남성 시간량의 11~13% 정도에 불과하다.

「구매」는 비교적 평등한 항목으로 핀란드 남성의 협력도는 77%이고 미국의 경우는 59%이다. 한국은 이 두나라보다 훨씬 낮아 18%에 불과하다. 끝으로 「가족원돌보기」 협력도는 미국과 핀란드가 34%정도로 「구매」보다 낮은 반면 한국의 협력도는 18%로 구매와 거의 유사한 정도이다. 시간량으로 보면 미국보다 많아 다른 항목에 비해 「가족돌보기」에 한국인은 많은 시간을 소비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비교하면 서구 남성의 가사협력도는 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분담이 평등화되고 있다고 해도, 정원이나 주택 돌보기와 같은 「기타 가사일」과 「구매」 정도에서만 분담이 이루어진

정도이며, 시간량이 많은 「식사준비 및 설거지」나 「청소·세탁」과 같은 가사노동의 주담당자는 여전히 여성이라고 할 것이다.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가사노동에서 남성 중심형 과제인 「기타 가사일」을 제외할 경우 남성이 수행한 부분이 미국은 25.3%, 핀란드가 26.2%인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표3-2-4>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협력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

(단위 : 시간:분, %)

	한국			미국			핀란드		
	남성	여성	협력도(%)	남성	여성	협력도(%)	남성	여성	협력도(%)
	시간:분	시간:분		시간:분	시간:분		시간:분	시간:분	
식사준비및설거지	0:37	11:52	5.20	1:53	5:38	33.43	2:26	8:54	27.34
청소, 세탁	0:56	7:41	12.15	1:26	6:54	20.77	1:47	6:34	27.16
기타가사일	0:44	0:46	95.65	6:28	4:02	160.33	5:46	2:41	214.91
구매	0:20	1:48	18.51	2:10	3:42	58.56	2:26	3:10	76.84
가족원돌보기	1:03	5:43	18.37	0:47	2:19	33.81	1:21	3:55	34.47

마. 여가활동 참여의 성별차이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시간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어 불평등지표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평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가 항목별로 볼 경우 국가간에 성별 여가활동 참여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2-5>에 여가 항목별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여가활동 중, 4개국 모두에서 남녀차가 35분(하루에 5분)이하인 여가는 「사회참여」 「학습」 「관람」의 3항목이다. 이들 여가는 남녀가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남녀 모두 참여 정도가 낮은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비교적 남녀차가 큰 활동영역은 「종교활동」 「교제」 「스포츠」 「취미」 「대중매체」의 5항목이다. 이 중 「종교활동」과 「교제」는 부호가 -로 여성우위의 여가인데 국가간 차이를 보여 「종교활동」은 특히 한국에서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며, 「교제」는 핀란드에서 주당 2시간 정도, 한국에서는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주당 1시간 정도 여성이 많이 참여한다. 반면에 「스포츠」와 「대중매체」는 남성우위의 여가로 4개국 모두 남성의 참여가 우세하다. 「스포츠」에서는 특히 한국과 미국 남성의 우위가 두드러지며 「대중매체」에서는 핀란드의 남성우위가 가장 두드러져서 주당 2시간 39분의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3개국에서도 1시간 30분 이상의 남성우위를 보이고 있다. 「취미」를 보면 한국과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남성우위이며 미국과 핀란드에서는 여성우위이다.

「휴식」은 남녀차가 크지 않지만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여 한국과 핀란드에서는 남성우위인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우위이다. 한편 일본은 휴식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 내역에서 남성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표 3-2-5> 여가활동의 남녀차의 국가간 비교

단위 : 분(주합계)

	한국 남녀차	미국 남녀차	일본 남녀차	핀란드 남녀차
사회참여	5	2	3	3
종교활동	-88	-27	-	-
교제	-56	-1	1	-116
학습	34	-	5	-
관람및행사	-1	15	-	3
스포츠및옥외활동	81	84	34	56
취미및그외여가	111	-79	84	-72
대중매체	100	89	95	169

바. 이동의 성별차이

이동시간은 4개국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길데 그 차이를 보면 한국이 200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일본(157분), 미국(73분), 핀란드(66분)의 순이다. 이동은 근무, 구매, 여가활동 중 일부에 수반되어 소비되는 시간임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의 남녀차가 큰 것은 주로 근무시간의 남녀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소결

생활행동의 대분류와 행동영역별 소분류의 시간배분의 남녀차이를 국제비교해 본 결과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인 동아시아국가가 미국과 핀란드로 대표되는 서구에 비해 시간배분에 있어서 남녀간 불평등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등은 주로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에 기인하므로 수입노동에 있어서 남성의 우위와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우위가 동양권에서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이 불평등을 규정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일본이 남녀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평등국으로 볼 수 있는 서구 두 나라를 비교하면 미국은 가사노동에 있어서, 핀란드는 수입노동시간에 있어서 더 평등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불평등 규정 요인 중 가사노동보다 수입노동시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며, 이는 특히 여성의 근무시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일본 여성의 근무시간이 한국보다 적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의 남녀간 차이가 일본을 가장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로 만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불평등을 규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가사노동의 성별차이가 수입노동시간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가용성의 차이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규범의 차이가 큰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유지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 여성이 우위인 방향으로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면」과 「신변에 관한 일」에서 여성의 우위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다른 3개국에 비해 「수면」에서는 남성의 우위가, 「신변에 관한 일」에서는 여성의 우위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은 개인유지의 소분류별 성별 격차 정도가 크지 않는데, 「신변에 관한 일」에서의 여성 우위정도가 적은 반면에 「수면」과 「식사」에서 다소간의 남성 우위를 보여 개인유지 에서 유일하게 남성우위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근무시간의 남녀 격차가 크지만 여성의 근무시간이 서구와 비교해 결코 짧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의 절대량은 한국 여성이 가장 길게 나타나서 한국 여성은 어느 나라보다도 역할의 이중부담을 많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의 가사노동 평등도가 높은 것은 가사노동의 불평등지표 뿐 아니라 가사노동 내역별 남성의 협력정도를 통해서도 분명해진다. 그러나 여성 중심형 과제로 볼 수 있는 가사노동만 보면 남성참여정도가 1/4정도에 불과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전히 여성이라고 하겠다.

여가활동은 남녀가 비교적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소분류로 나누어 볼 경우 항목에 따라 국가간에 차이를 보였다. 「종교활동」의 경우 한국 여성의 우위가, 「교제」에서는 핀란드여성의 우위가, 「스포츠」에서는 특히 한국과 미국 남성의 우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에서는 4개국 모두 남성의 우위정도가 큰 편인데 특히 핀란드에서 남녀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취미」에서는 동서양간에 큰 차이를 보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남성우위가, 미국과 핀란드에서는 여성우위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일본은 휴식을 제외한 모든 자유시간 내역에서 남성우위를 보여주었다. 결국 문화권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여가활동양식에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령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본 장에서는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령만의 영향에 의한 것보다는 성별을 구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을 분류하여 각각의 생활시간이 연령에 의해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1) 남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남성의 연령별 국가별 생활시간 구조가 <표 3-3-1>에 나타나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하여 30대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국가별 연령별로 볼 때, 일본의 30대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한국의 3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

에서 수입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층은 50대 남성이다. 가사 노동 시간의 경우는 모든 국가에서 50대 남성이 가장 긴 시간을, 20대 남성이 가장 짧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핀란드의 50대 남성은 수입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반면 가사노동 시간과 자유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수입노동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남은 시간을 가사노동이나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유지 시간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50대 남성이 가장 긴데 반하여 미국과 핀란드는 20대 남성이 가장 길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30대 연령층의 남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개인 유지시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유지시간은 국가별로 연령에 따라 어떤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자유시간의 경우는 수입노동시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국가에서 30대 남성의 자유시간 길이가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나 50대 남성의 자유시간이 가장 길고, 20대 남성이 두 번째로 길다. 그런데 일본 남성의 경우는 20대 남성이 자유시간의 길이가 가장 길고 50대 남성의 자유시간이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동시간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은 30대 남성이, 일본과 핀란드는 20대 남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길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이동시간은 4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40대부터 수입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하다.

<표 3-3-1> 4개국 성인 남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단위 : 분, %)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개인 유지	608	610	611	618	611	600	587	599	607	602	609	627	636	610	613	626
수입 노동	42.2	42.4	42.5	42.9	42.5	41.7	40.8	41.6	42.2	41.8	42.3	43.5	44.2	42.4	42.6	43.4
가사 노동	355	414	402	346	338	335	325	281	402	447	441	409	307	333	320	253
자유 시간	24.7	28.8	27.9	24.2	23.5	23.3	22.6	19.5	27.9	31.0	30.6	28.4	21.3	23.1	22.2	17.6
이동	24	32	26	33	72	102	110	125	20	28	20	21	94	123	125	132
기타	1.7	2.2	1.8	2.3	5.0	7.1	7.6	8.7	1.4	1.9	1.4	1.5	6.5	8.5	8.7	9.2
이동	326	260	279	329	331	310	326	345	314	270	278	292	307	289	308	360
기타	22.6	18.1	19.4	22.8	23.0	21.5	22.7	23.9	21.8	18.8	19.3	20.3	21.3	20.1	21.4	25.0
이동	121	118	114	105	87	95	91	90	83	80	76	74	97	85	75	70
기타	8.4	8.2	7.9	7.3	6.0	6.6	6.3	6.2	5.8	5.6	5.3	5.1	6.7	5.9	5.2	4.9
이동	6	6	6	8	0	0	0	0	14	13	15	17	0	0	0	0
기타	0.4	0.4	0.4	0.6	0.0	0.0	0.0	0.0	1.0	0.9	1.0	1.2	0.0	0.0	0.0	0.0

(2)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표 3-3-2>를 보면 수입노동 시간의 연령에 따른 경향이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수입노동 시간이 긴 연령층은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20대와 40대 여성이다. 핀란드의 경우는 20대 여성보다 30대 여성의 수입노동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30대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짧는데 비하여 미국과 핀란드는 50대 여성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 남성 30대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여성의 경우는 30대에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취업 단절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국가 여성의 연령에 따른 수입노동시간 유형은 M자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두 국가의 30대 여성 가사노동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가사노동 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짧은 집단은 미국의 20대 여성이다. 개인유지 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20대 여성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시간은 국가별로 연령별 경향이 일치하지 않는데, 한국, 미국, 핀란드는 50대 여성이, 일본은 20대 여성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유시간은 젊은 집단과 나이든 집단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30대 여성은 자유시간과 수입노동 시간이 모두 짧는데, 이는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수입노동시간에 적게 할애된 시간을 자유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길고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30대 여성이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도 30대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이 짧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20대 여성은 모든 국가별 연령 집단에서 이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50대 여성은 이동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으로서 한국 20대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다.

<표 3-3-2> 4개국 성인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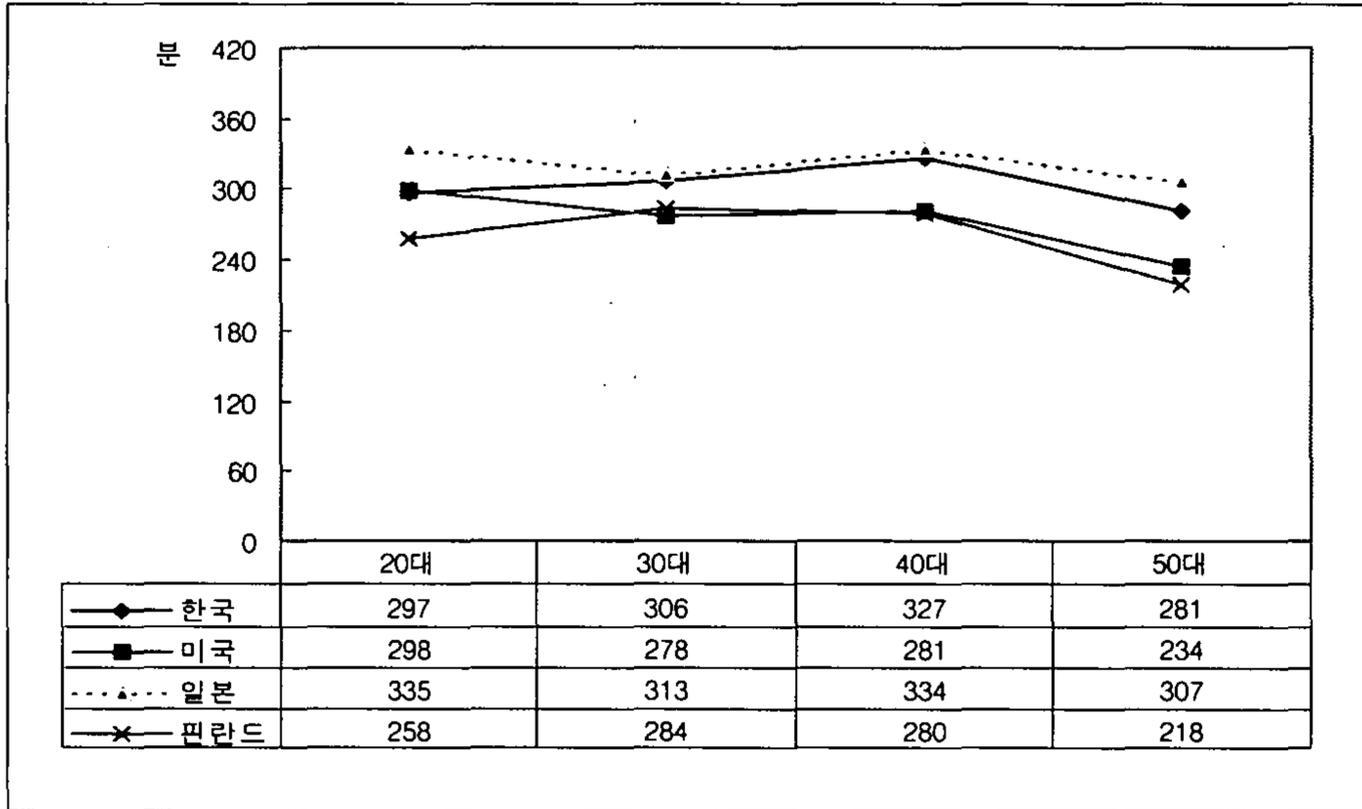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															
개인	627	604	592	606	647	633	628	620	643	618	604	627	648	616	617	624
유지	43.5	42.0	41.1	42.1	45.0	44.0	43.6	43.0	44.7	42.9	41.9	43.5	45.0	42.8	42.9	43.3
수입	248	191	247	214	257	229	244	196	268	178	227	209	212	229	244	183
노동	17.2	13.3	17.2	14.9	17.9	15.9	17.0	13.6	18.6	12.4	15.8	14.5	14.7	15.9	17.0	12.7
가사	175	308	247	249	141	202	197	210	150	323	282	261	185	246	216	225
노동	12.2	21.4	17.2	17.3	9.8	14.0	13.7	14.6	10.4	22.4	19.6	18.1	12.9	17.1	15.0	15.6
자유	281	247	260	278	305	294	287	333	287	250	259	279	311	272	296	345
시간	19.5	17.2	18.1	19.3	21.2	20.4	19.9	23.1	19.9	17.3	18.0	19.4	21.6	18.9	20.6	23.9
이동	102	78	84	83	91	81	84	81	72	50	45	41	86	72	68	63
	7.1	5.4	5.8	5.8	6.3	5.6	5.8	5.6	5.0	3.5	3.1	2.8	6.0	5.0	4.7	4.4
기타	8	10	10	11	0	0	0	0	19	23	23	23	0	0	0	0
	0.6	0.7	0.7	0.8	0.0	0.0	0.0	0.0	1.3	1.6	1.6	1.6	0.0	0.0	0.0	0.0

나. 연령별 수입노동 시간

20세에서 59세까지 한국 성인의 수입노동 시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연령별 수입노동시간의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3-3-1). 이를 선진3개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루 평균 5시간 이하의 적은 노동시간을, 일본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5시간 이상의 긴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미국, 핀란드는 20대와 50대의 수입노동 시간이 비교적 작고, 30대와 40대의 수입노동 시간이 긴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1> 수입노동시간의 연령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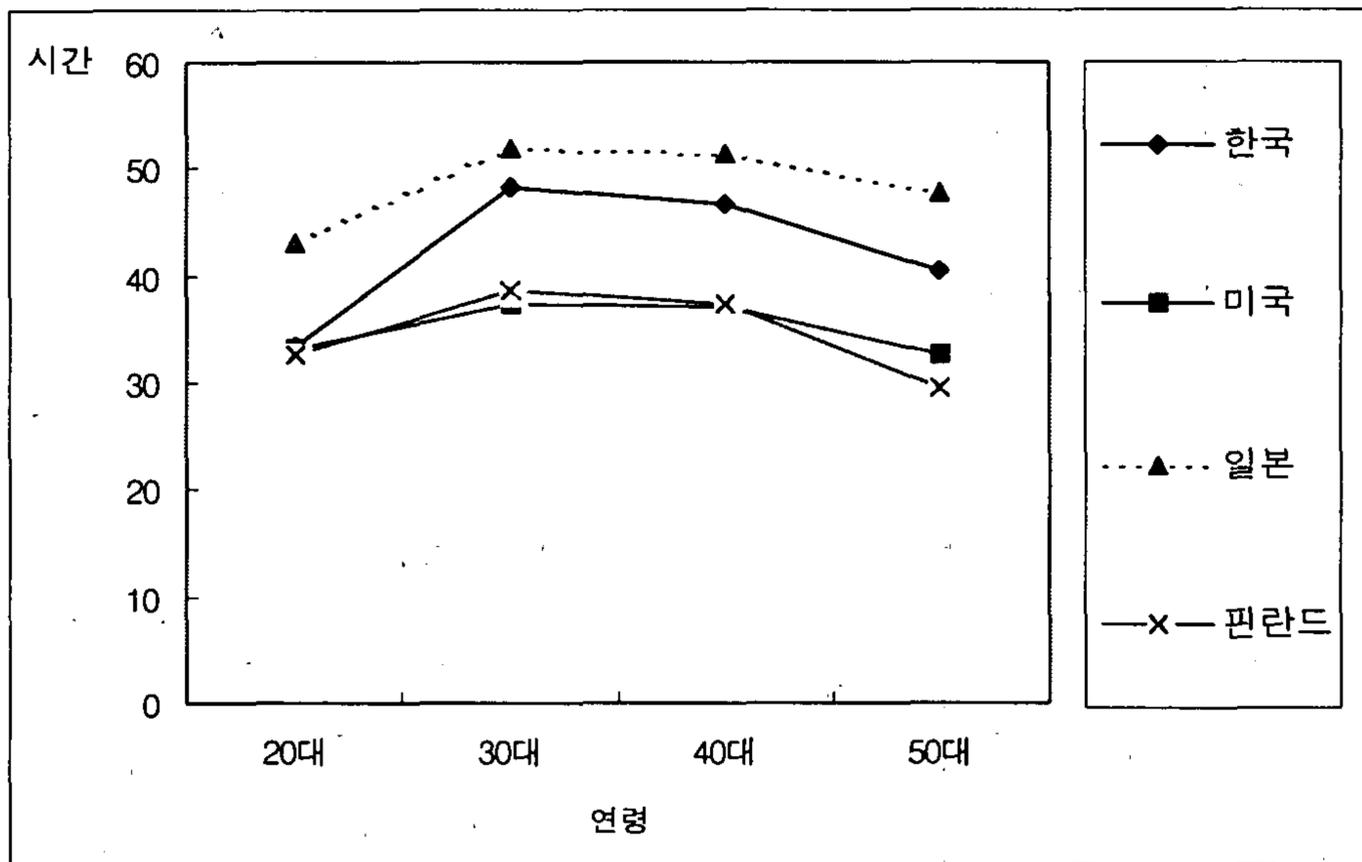
수입노동 중 연령별 근무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한국 성인 남성의 근무시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그림 3-3-2). 즉, 한국은 일본과 함께 30, 40대에는 하루 평균 7시간 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남성의 요일평균 근무시간은 4시간 47분으로 일본 20대 남성의 6시간9분에 비해 1시간 22분이 적어서 연령계층별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한편 성인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성인이나 성인 남성과는 매우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그림 3-3-3). 핀란드 여성은 성인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대와 50대에 비교적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30대에 노동시간에 증가하며 40대에 정점을 이루지만, 한국과 일본 여성은 30대가 되면 20대보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특징적인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30대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에서 잠시 물러나는 전형적인 M자 형태를 보인다. 이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 단절이 생활 시간의 사용에 나타난 것이다.

연령에 의한 영향을 보면 남성의 경우 20대와 50대의 수입노동 노동시간이 짧으며, 30대와 40대가 길었다. 결국 전체적으로 역 U자 형의 수입노동시간 라이프사이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0대의 남성과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의

감소가 눈에 띄는 것은 핀란드로 주당 총 근무시간이 총30시간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특히 확실한 역 U자형의 근무시간 라이프사이클을 보이는데, 직장에서 퇴직했을 때, 국가의 노동문화 혹은 고용정책, 사회보장정책의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2> 4개국 성인 남성의 연령별 근무시간 (주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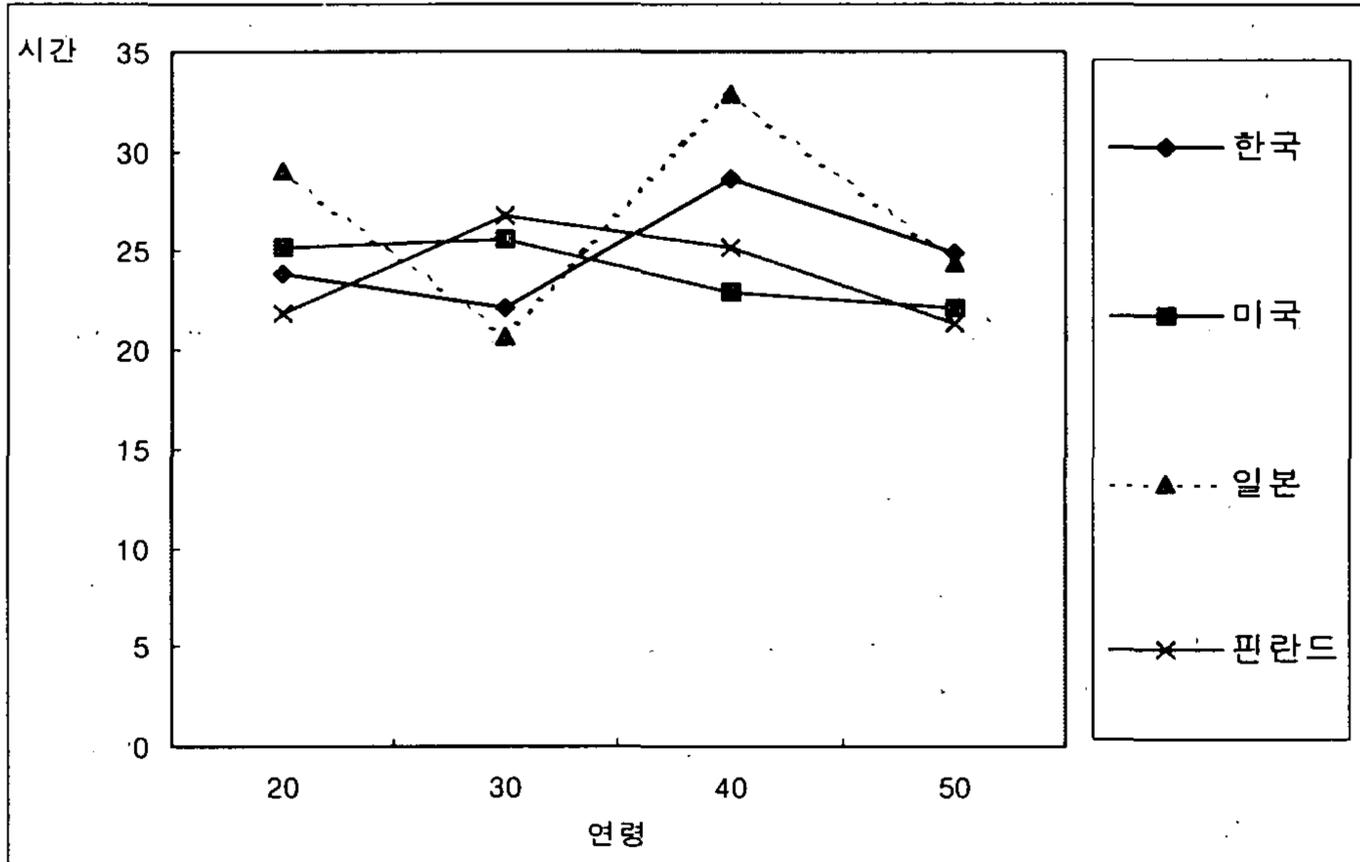


참고(그림 3-3-2 데이터 값)

단위:시간: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한국	33:29	48:11	46:47	40:22
미국	33:15	37:13	36:59	32:33
일본	43:03	52:02	51:27	47:43
핀란드	32:40	38:30	37:13	29:24

<그림 3-3-3> 4개국 성인 여성의 연령별 근무시간(주합계)



참고 (그림 3-3-3 데이터 값)

단위 :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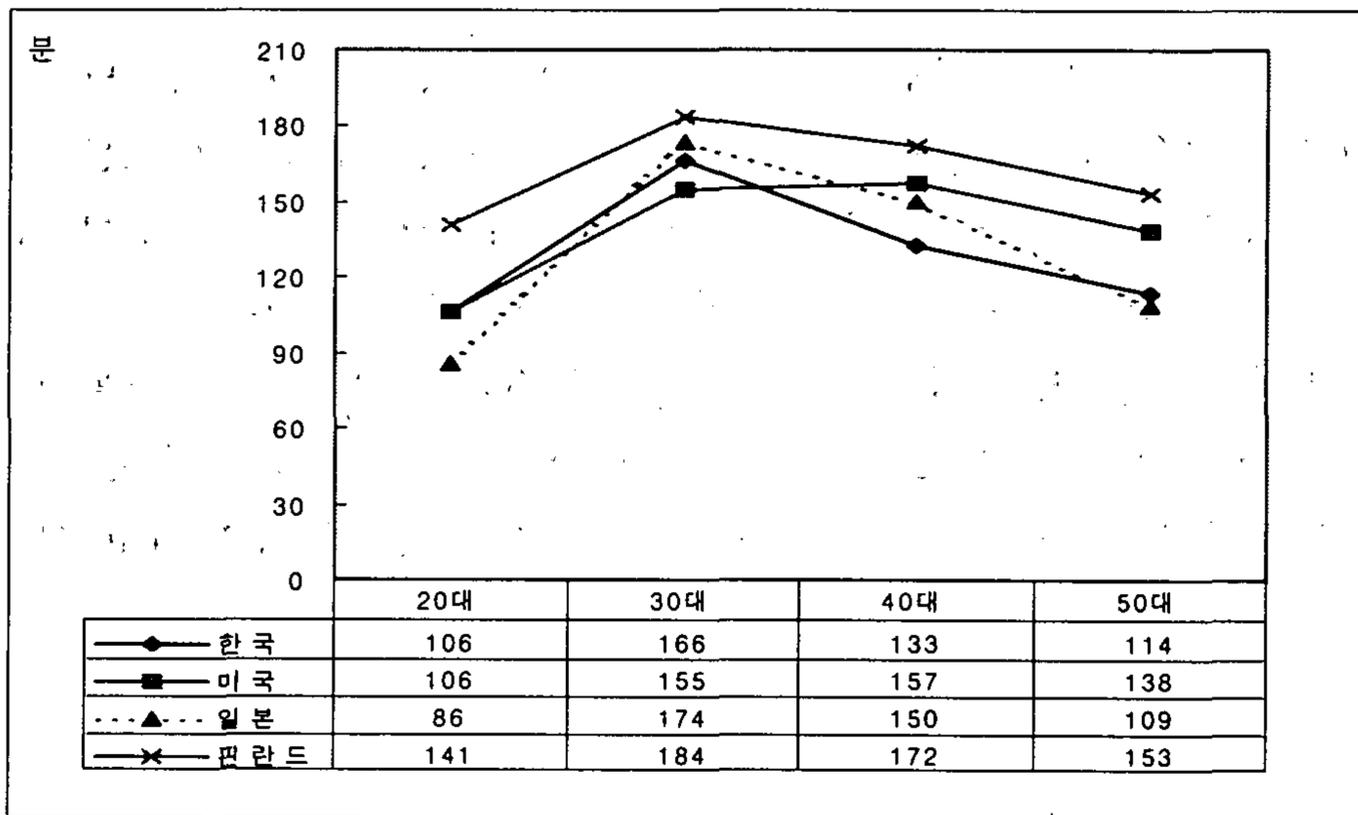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한국	23:55	22:10	28:42	24:58
미국	25:12	25:33	22:59	22:10
일본	29:03	20:39	32:54	24:23
핀란드	21:49	26:43	25:12	21:21

다. 연령별 가사노동 시간

각국 성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그림 3-3-4 참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은 20대에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 20대의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적으며(2시간 26분), 핀란드가 2시간 21분으로 가장 길고 한국과 미국(1시간 46분)은 중간 수준이다. 또한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로 이 또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이다. 30대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한국은 2시간 46분으로 가사노동 시간이 가장 적은 미국(2시간 35분)의 다음을 차지하며, 일본과 핀란드는 30대의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2시간 54분과 3시간 4분으로 긴 편이다. 연령별 가사노동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연령계층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최대 20분으로 가장 적으며, 일본은 그 차이가 1시간 28분으로 가장 많고 한국과 미국은 중간 정도이다.

<그림 3-3-4> 성인 가사노동시간의 연령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성별로 나누어서 연령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한국과 일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미국과 핀란드에 비하여 적다. 또한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 20대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이 적다가 30대가 되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연령과 상관없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연령별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20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짧으며 일본을 제외하고는 50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성인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30대에서 50대까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3-3-3> 성인 남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주합계)

(단위 : 시: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전체
한국	2:48	3:44	3:02	3:51	3:44
미국	8:24	11:54	12:50	14:35	12:50
일본	2:20	3:16	2:20	2:27	3:16
핀란드	10:18	14:21	14:35	15:24	1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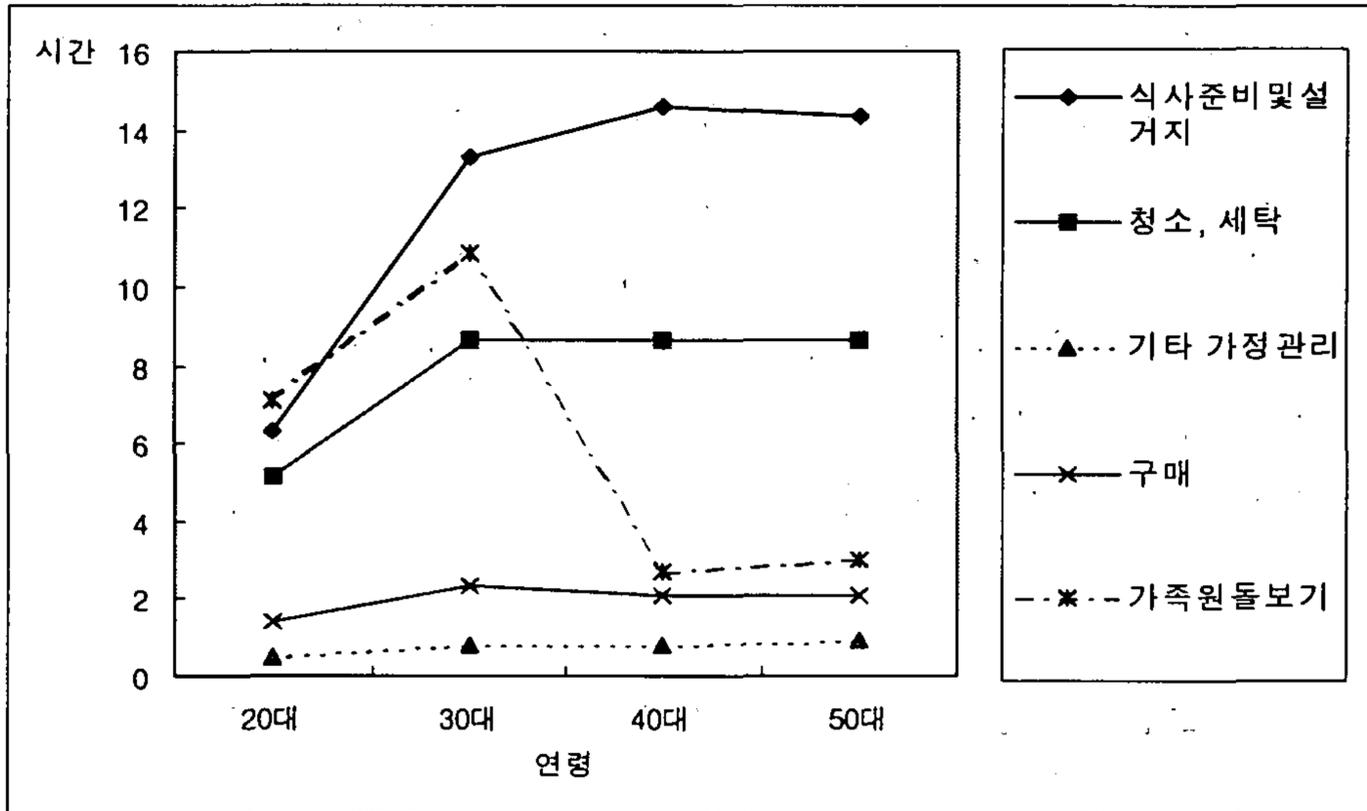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과 일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적은 것과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과 일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고 미국과 핀란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적다. 또한 미국과 핀란드 여성은 전 연령층에서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변화가 적은 반면 한국과 일본 여성은 30대가 되면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표 3-3-4).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결혼 후 여성이 가사노동과 양육활동을 전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3-4> 성인 여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주합계)

(단위 : 시: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한국	20:25	35:56	28:49	29:03	27:39
미국	16:27	23:34	22:59	24:30	22:24
일본	10:37	37:41	32:54	30:27	28:21
핀란드	21:35	28:42	25:12	26:15	25:19

<그림 3-3-5> 한국 여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주합계)



참고 (그림 3-3-5 데이터 값)

(단위 :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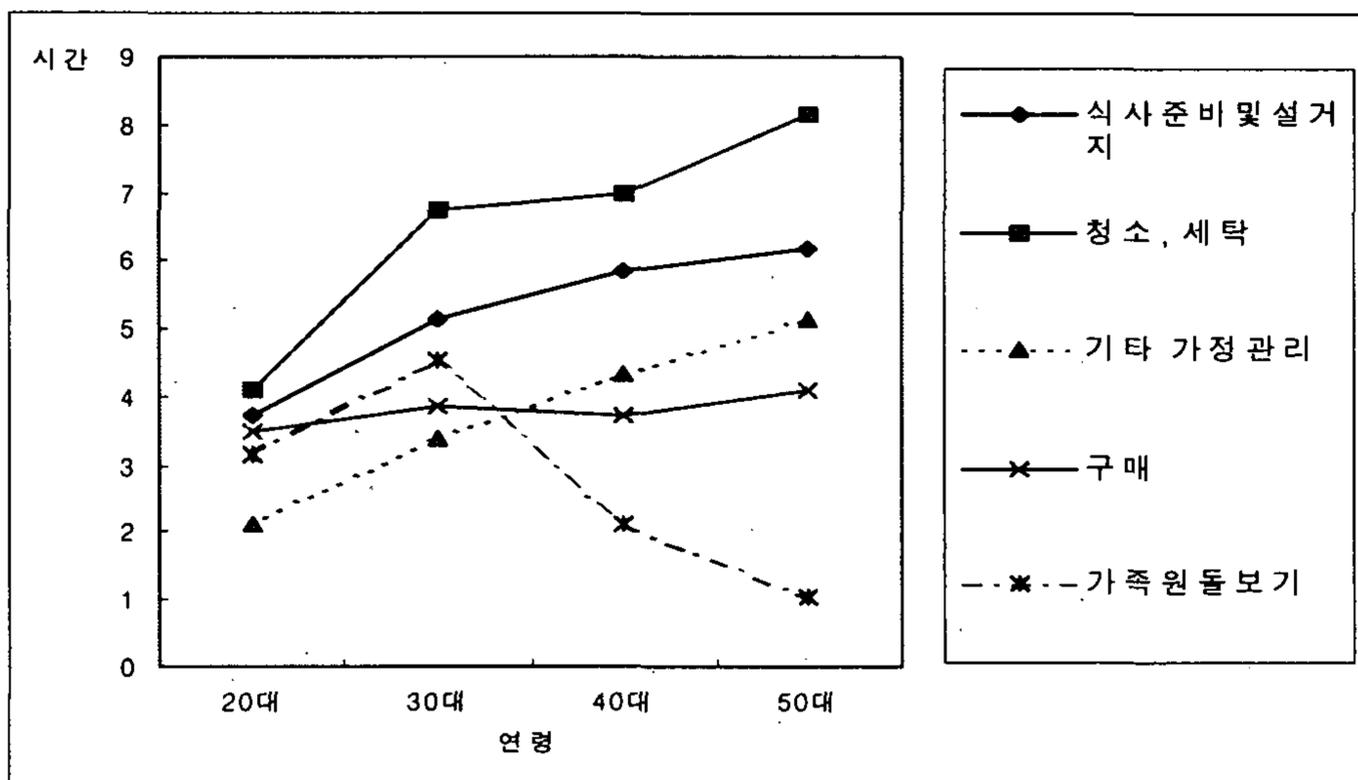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전체
한국	2:48	3:44	3:02	3:51	3:44
미국	8:24	11:54	12:50	14:35	12:50
일본	2:20	3:16	2:20	2:27	3:16
핀란드	10:18	14:21	14:35	15:24	13:39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작았으나, 가사노동을 항목별로 소분류 해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5> 는 한국 여성의 연령별 소분류 주당 가사노동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연령에 따른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족원돌보기 시간이다. 가족원돌보기 시간은 30대의 경우는 주당 10시간 51분 인 반면 20대의 경우 7시간 07분, 40대와 50대에는 각각 2시간 41분, 3시간 02분으로 나타나 30대 여성이 이에 보내는 시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원돌보기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사노동시간은 20대 여성만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현저하

계 작고, 30대 이상에서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구매와 기타가정관리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경향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약간 의문이 되는 점은 모든 국가에서 40대 이상 여성의 가족원돌보기시간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사노동시간은 한국을 제외하고, 그다지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는 가족원돌보기시간이 감소한 만큼 취사, 청소·세탁, 잡무시간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의 경우는 가족원 돌보기 이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 여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그림 3-3-6>참고)을 보면 이런 경향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3-3-6> 미국 여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주합계)



참고 (그림 3-3-6 데이터 값)

(단위 :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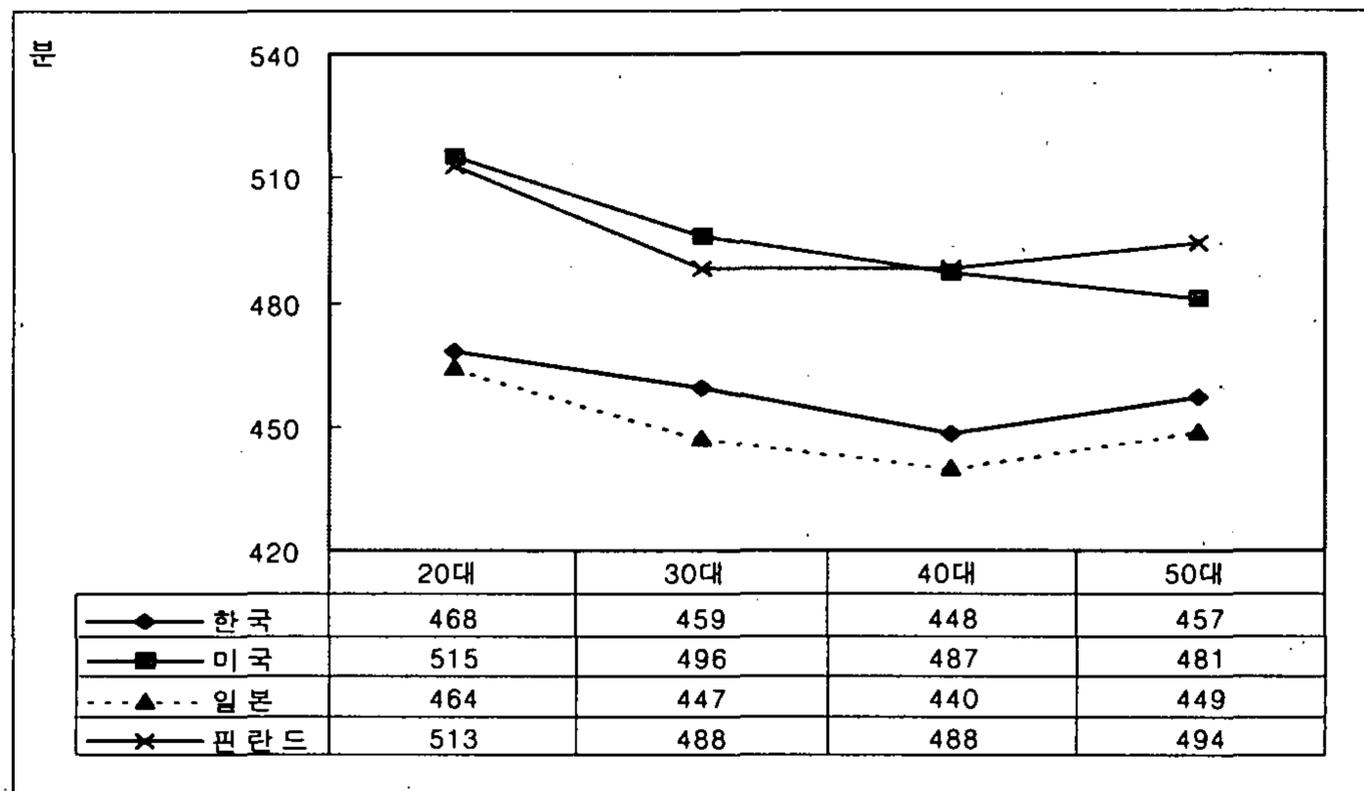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계	10:34	23:41	22:59	24:37
식사준비및설거지	3:44	5:08	5:50	6:11
청소, 세탁	4:05	6:46	7:00	8:10
기타 가정관리	2:06	3:23	4:19	5:08
구매	3:30	3:51	3:44	4:05
가족원돌보기	3:09	4:43	2:06	1:03

라. 연령별 개인 유지시간

개인 유지 시간의 전반적인 경향은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수면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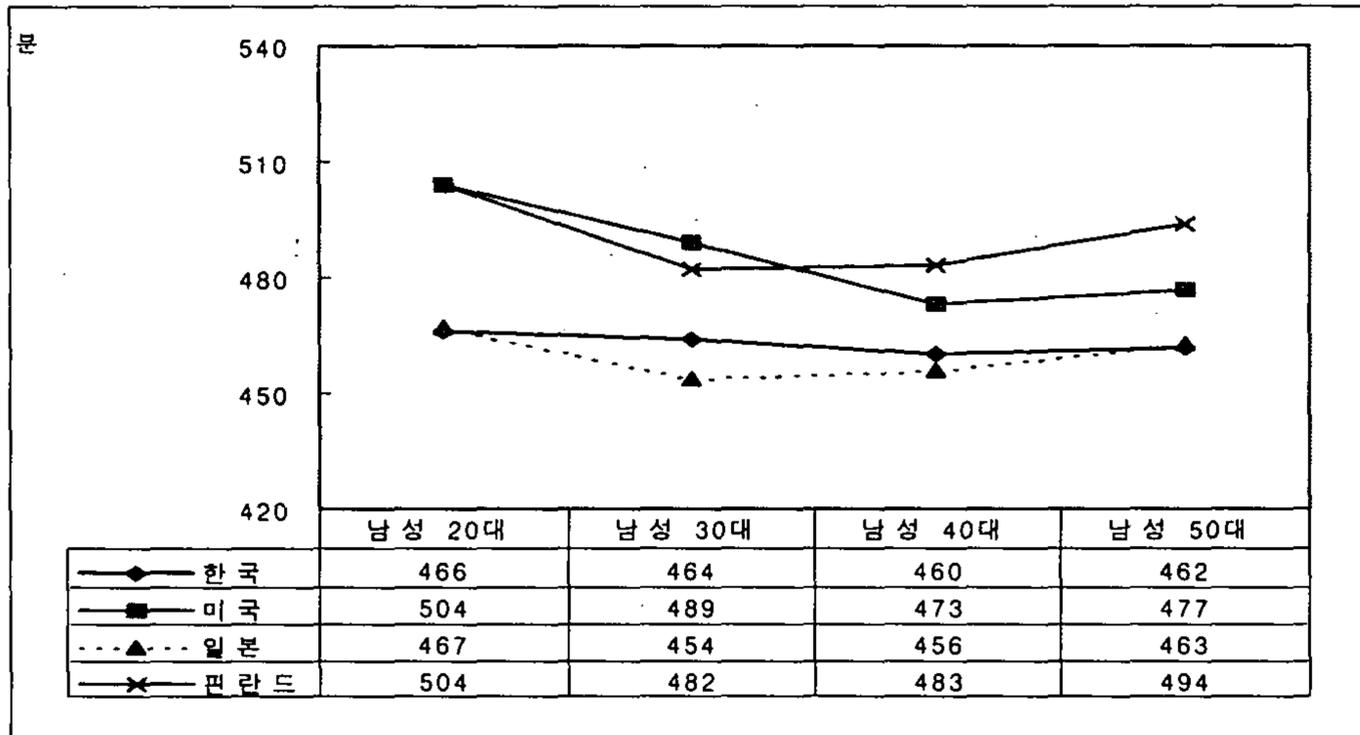
먼저 전체 성인의 연령별 수면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며, 미국과 핀란드가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과 일본은 전 연령계층에서 수면시간이 7시간 30분 내외로 비교적 적은 반면, 핀란드와 미국은 8시간 이상으로 길다. 또한 4개국 모두에서 20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였다.

<그림 3-3-7> 성인의 연령별 수면시간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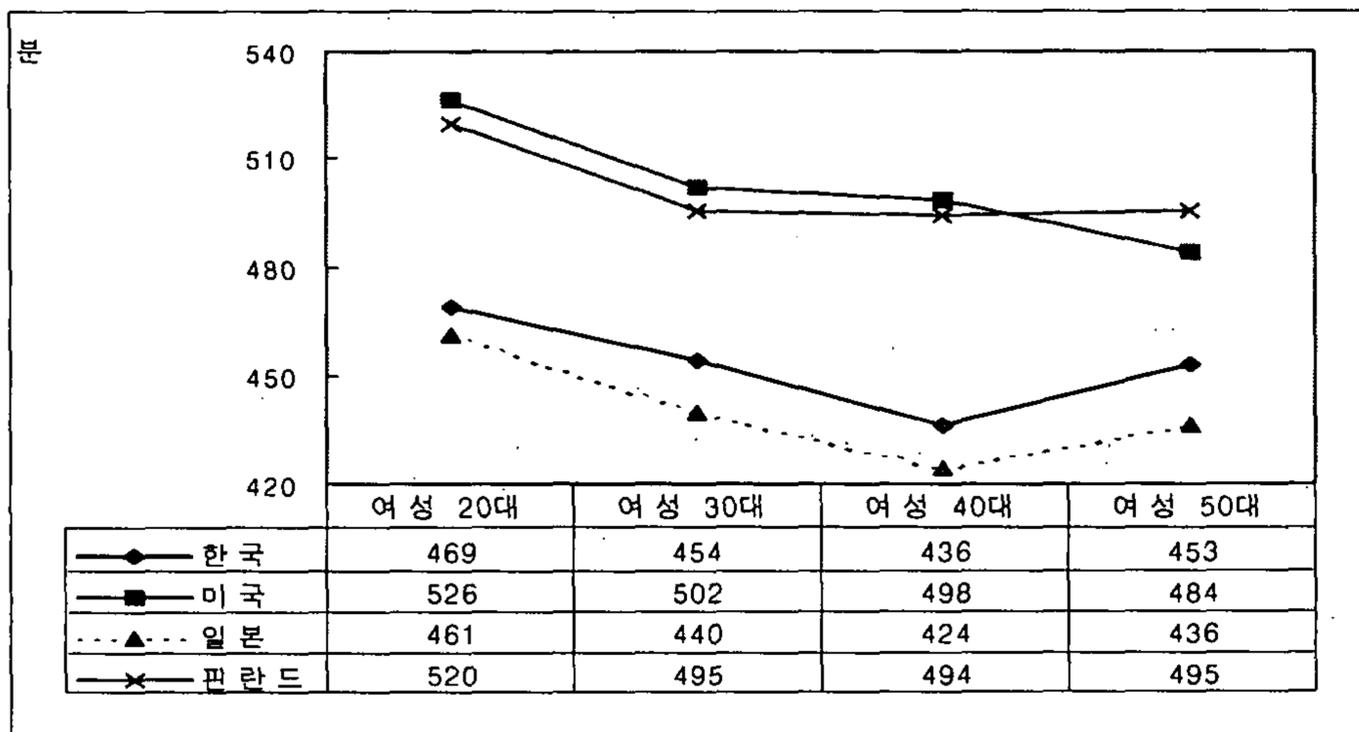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전체 수면시간의 차이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 남성은 수면시간은 가장 많은 20대가 7시간 46분, 가장 적은 40대가 7시간 40분으로 연령별 차이가 없는 반면-일본도 이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핀란드는 20대의 수면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 24분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길다.

<그림 3-3-8> 성인 남성의 연령별 수면시간 (요일 평균)



여성의 경우는 모든 나라에서 연령별 변화의 폭이 남성보다 더 크다. 즉 20대에 수면 시간이 가장 길다가 30대가 되면 대폭 줄어들며, 한국과 일본이 이런 경향이 특히 강하다. 또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성의 수면시간이 더 짧고,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여성의 수면시간이 더 긴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림 3-3-9> 성인 여성의 연령별 수면시간 (요일 평균)



마. 연령별 자유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해 성별과 연령의 차이를 국가별로 추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전체자료에서 나타난 자유시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3개의 여가 활동을 국가별, 성별, 연령별로 집계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국가별로 어느 여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나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의 20대》에 「사회참여」 활동 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한국으로서 1시간 10분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 <표 3-3-5> 이다.

이 표에서 한국 성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된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습」 : 한국의 20대 남성, 20대 여성
- ② 「종교활동」 : 한국의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

이 결과를 통해 한국 성인의 여가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의 남성과 여성은 「학습」에 모든 연령층의 여성은 「종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5> 성, 연령별로 본 최장 여가시간과 해당국 (주합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회참여	한 1:10	핀 0:49	핀 1:17	핀 1:03	핀 0:35	핀 0:42	핀 0:56	핀 0:56
종교활동	미 0:35	미 0:42	미 0:49	미 0:49	한, 미 0:49	한, 미 1:24	한 2:34	한 2:27
교제	미 7:28	핀 6:18	핀 5:43	한 6:18	핀 8:31	핀 8:03	핀 7:28	핀 8:10
학습	한 4:19	한 1:03	일 0:42	일 0:35	한 2:27	일 0:56	일 0:42	일 0:35
관람 및 행사	미 1:52	미 1:17	미 1:10	미 0:56	미 1:38	일 1:24	미 1:03	미, 핀 0:21
스포츠 및 옥외활동	핀 4:54	핀 4:19	핀 4:19	핀 4:47	미, 핀 2:27	핀 3:23	핀 3:30	핀 3:37
취미 및 그외 여가	한, 일 5:50	일, 핀 3:58	핀 3:51	핀 5:57	핀 6:25	핀 5:15	핀 6:25	핀 8:10
대중매체	미 19:57	미 19:57	미 22:59	미 23:55	미 18:40	미 18:12	미 18:12	미 20:18
휴식	일 7:28	일 7:21	일 7:14	일 7:14	일 7:56	일 7:35	일 7:28	일 7:07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핀란드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20대 남성에 한해서는 한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는 핀란드가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냈으나, 50대 남성의 경우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는 핀란드가 가장 높았으나 20대 남성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여가는 크게 「학습」과 「종교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가활동은 아니지만 속성분류에서 본 한국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가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사회참여」	: 한국의 20대 남성
② 「교제」	: 한국의 50대 남성
③ 「취미 및 여가」	: 한국의 20대 남성

각 여가활동 부문에서 높은 참여를 보인 국가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참여」	: 핀란드 40대 남성/ 4,50대 여성
② 「교제」	: 핀란드 40대 남성/ 50대 여성
③ 「관람 및 행사」	: 미국 20대 남성/ 20대 여성
④ 「스포츠 및 옥외활동」	: 핀란드 20대 남성/ 50대 여성
⑤ 「취미 및 여가」	: 핀란드 50대 남성/ 50대 여성
⑥ 「대중매체」	: 미국 50대 남성/ 50대 여성
「휴식」	: 일본 20대 남성/ 20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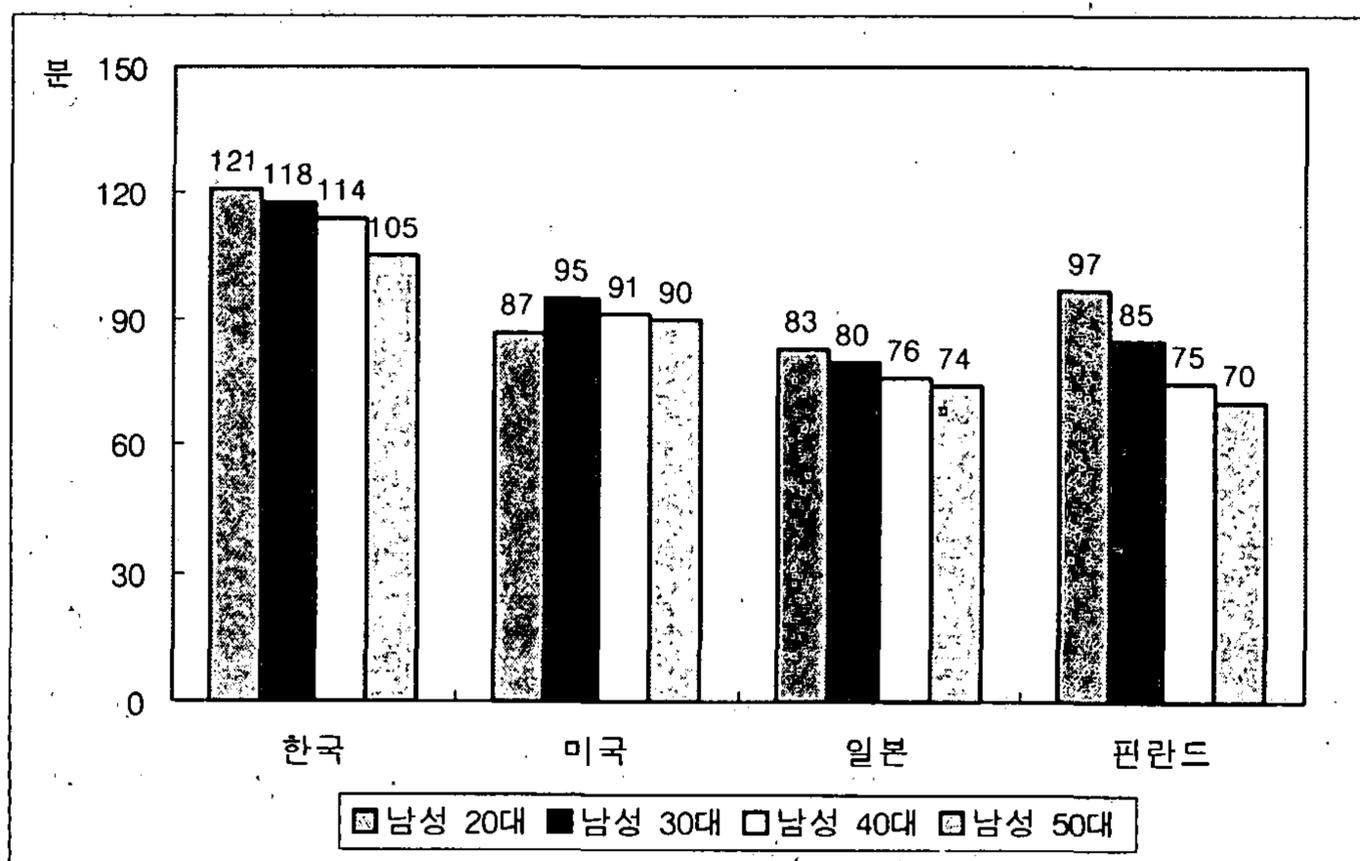
위와 같이 각 항목에서 최고치를 보이는 국가와 해당 항목을 함께 고려하면 국가에 따른 여가활동의 속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핀란드가 여가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TV시청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TV보급에 따라 다른 여가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한국의 경우도 TV시청시간이 길지만 주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TV시청은 미국보다 낮은 (미국이외의 국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바. 연령별 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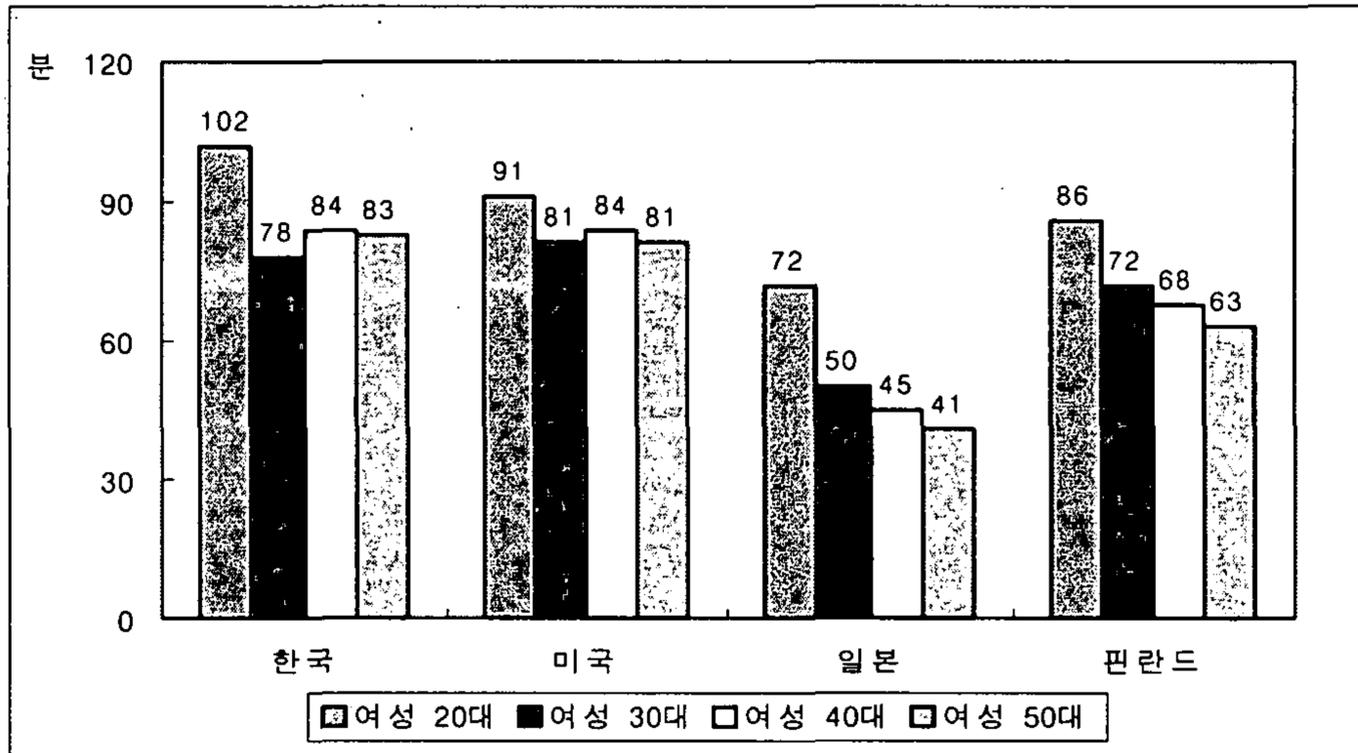
연령에 따른 변화의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20대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고, 30대, 40대, 50대로 나아가면서 줄어든다. 특히 한국의 20대 남성의 이동시간이 2시간 1분으로 모든 집단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20대 남성에 비하여 30대 남성의 하루 이동시간이 가장 길다. 가장 짧은 이동시간은 핀란드의 50대 남성으로서 1시간 10분으로 나타나 가장 긴 한국의 20대 남성에 비하여 50분 가까이 짧다(그림 3-3-10).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이동시간의 변화는 일본과 핀란드는 남성과 같은 양상을 보이거나, 한국과 미국은 20대에 이동시간이 길다가 30대가 되면 대폭 줄어들어서, 30대의 이동시간이 가장 적다. 가장 이동시간이 긴 집단은 한국의 20대 여성으로서 1시간 42분이었고, 가장 이동시간이 짧은 집단은 일본의 50대 여성으로서 41분으로 나타났다(그림 3-3-11). 따라서 한국의 20대 남성과 여성이 모든 국가에서 이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10> 성인 남성의 연령별 이동시간 (요일 평균)



<그림 3-3-11> 성인 여성의 연령별 이동시간 (요일 평균)



사. 소결

수입노동 시간의 변화를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남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수입노동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는 국가에 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의한 영향을 보면, 4개국 모두 20대와 50대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이 짧으며, 30대와 40대가 길어 전체적으로 역 U자 형의 수입노동시간 라이프사이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0대의 감소가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핀란드인데 주당 총 수입노동시간이 총 30시간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핀란드의 노동문화 혹은 고용정책, 사회보장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을 연령별·국가별로 살펴볼 때,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한국의 40대와 50대 여성, 일본의 20대와 40대 여성, 핀란드의 30대와 4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30대의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에서 잠시 물러나는 전형적인 M자 형태를 보인다. 30대 여성의 일하는 양상을 통해 각국의 가정생활의 모습과 여성의 생활환경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연령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20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유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50대에 이르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 미국, 핀란드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30대에서 50대까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성인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연령별로 보면 4개국 모두 20대 여성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모두 20대 여성의 가사노동이 가장 짧다가 30대에 이르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30대에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던 점을 연관 시켜 볼 때,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을 위해 직업 생활을 중단한 빈자리를 남성노동이 대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0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는 유형을 나타내는데 한국과 일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미국과 핀란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가사노동시간을 세부 영역별로 볼 때, 한국 30대 여성은 다른 국가의 30대 여성에 비하여 가족원돌보기 시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데 이런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 여성의 연령별 근무시간의 유형이 M자형을 나타내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30대 여성보다는 작지만 다른 국가의 30대 여성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가족원돌보기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가족원돌보기 시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사노동시간은 그다지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연령에 따른 수면시간의 변화를 보면 4개국 모두에서 성인 20대의 수면시간이 가장 길다.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전체 수면시간의 차이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모든 국가에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 즉 20대 여성이 수면 시간이 가장 길다가 여성이 30대가 되면 대폭 줄어드는데, 한국과 일본이 이런 경향이 특히 강하다. 연령에 따른 이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20대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다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이동시간의 변화는 일본과 핀란드는 남성과 같은 양상을 보이거나, 한국과 미국은 20대에 이동시간이 길다가 30대가 되면 대폭 줄어들어서,

30대의 이동시간이 가장 적다

국가별 연령에 따른 자유시간과 여가 활동의 특성을 보면 한국 성인의 경우, 20대의 남성과 여성은 학습에, 모든 연령층의 여성은 종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4개국 중 핀란드가 여가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대중매체와 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다른 여가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남녀의 취업여부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취업여부별 생활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업주부, 취업여성, 취업남성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전업주부집단의 경우 미국 자료에는 결혼 여부에 관한 정보가 없어 미혼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3국과 다른 제한점이 있다. 취업자의 경우 남녀 모두 미혼자가 포함되어 있다.

가. 취업여부별 생활시간 구조

<표 3-4-1>에서 보듯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은 개인유지시간으로서 하루 평균 9시간 55분~11시간 1분, 비율로 볼 때 41.2%~45.9%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전업주부의 개인유지시간이 가장 많은데, 특히 미국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개인유지활동에 사용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개인유지시간이 많은데, 한국의 경우 미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취업남성보다 취업여성의 개인유지시간이 더 적다.

취업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볼 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수입노동시간에 사용하고 있다. 여성취업자의 경우 수입노동시간이 18.2%~25.8%를 구성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23.6%~29.7%를 구성하고 있어 남성취업자의 취업노동시간이 더 많다. 남녀 모두 한국 취업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수입노동에 사용하고 있고, 핀란드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적다.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여성취업자의 경우 가

사노동에도 하루 중 11.0%~14.2%의 시간을 사용하지만, 남성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2% 미만이고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 7%대이다. 동양 남성의 낮은 가사노동참여가 두드러져 보인다.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에 16.6%~26.5%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하루 평균 6시간 22분), 미국주부가 가장 적은 시간(하루 평균 3시간 59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다.

<표 3-4-1> 취업여부별 생활시간구조 (요일평균)

단위 : 분, %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전업	여성	남성									
	주부	취업자	취업자									
개인유지	637	600	607	661	625	595	649	631	627	645	618	613
	44.2	41.6	42.1	45.9	43.3	41.2	45.1	43.8	43.5	44.7	43.0	42.6
취업노동	12	372	428	23	292	351	5	305	410	60	261	339
	0.8	25.8	29.7	1.6	20.2	24.3	0.3	21.2	28.5	4.2	18.2	23.6
가사노동	338	166	28	239	158	101	382	185	23	315	204	114
	23.5	11.5	1.9	16.6	11.0	7.0	26.5	12.9	1.6	21.8	14.2	7.9
자유시간	373	204	259	452	281	306	348	248	294	358	280	290
	25.9	14.2	18.0	31.4	19.5	21.2	24.2	17.2	20.4	24.8	19.5	20.2
이동 및	81	99	121	66	86	92	56	70	86	64	74	83
기타	5.6	6.9	8.4	4.6	6.0	6.4	3.9	4.9	6.0	4.4	5.1	5.8

전업주부의 자유시간이 취업자에 비교하여 많은 점은 모든 국가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전업주부와 취업자 사이의 차이, 취업자 중 남녀의 차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의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고, 일본의 주부가 가장 적은 시간을 갖는다. 한국 취업자는 남녀 모두 자유시간이 다른 3국에 비하여 적을 뿐 아니라 남녀간의 차이도 55분이나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히 많다. 따라서 한국의 취업여성이 가장 적은 자유시간을 갖는다.

취업여부별 이동 및 기타시간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한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가장 적다. 어느 국가에서나 전업주부의 시간이 가장 적고, 취업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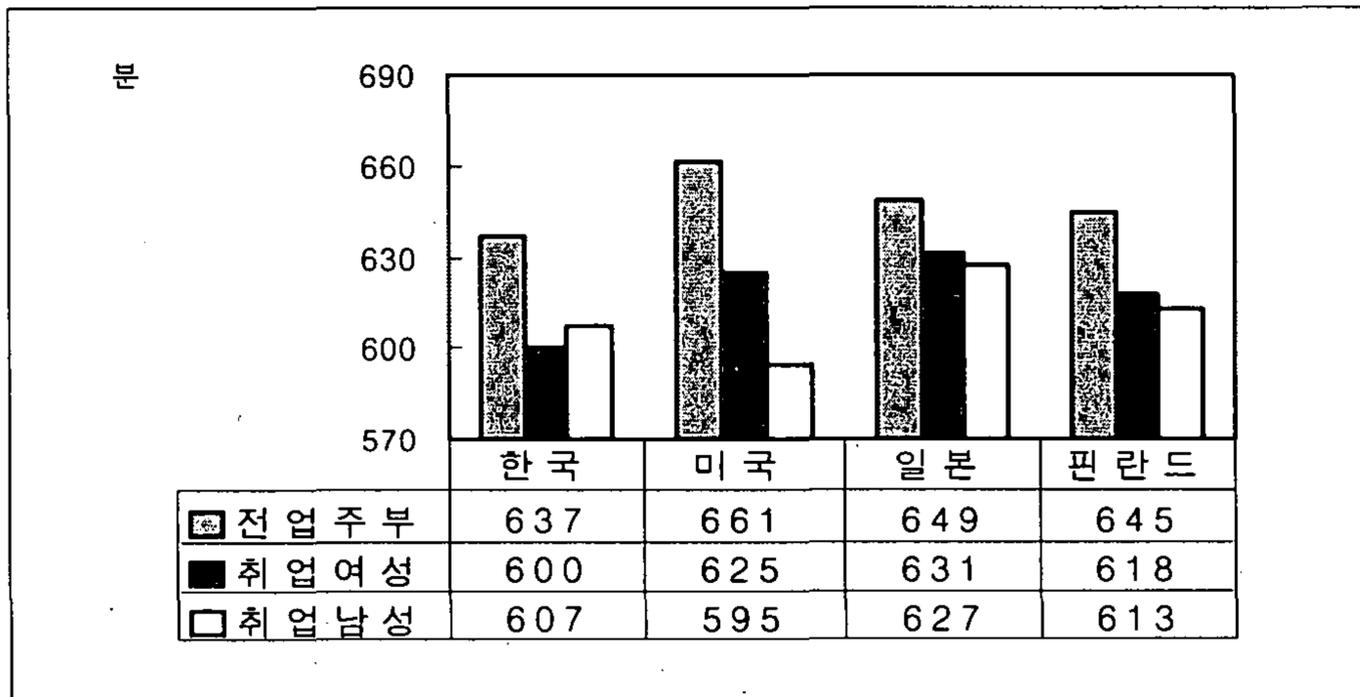
나. 개인유지시간

취업여부별 생활시간을 비교하면 비취업상태인 전업주부가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많은 개인유지시간을 갖는다. 미국, 일본, 핀란드, 한국의 순으로 개인유지시간이 감소하여 전업주부 중 우리 나라 주부의 시간이 가장 적다.

취업자만 비교할 때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개인유지시간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에 비하여 개인유지시간을 적게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취업남성만을 비교할 때는 일본의 남성이 가장 많은 개인유지시간을 사용하고, 미국의 남성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취업여부별 개인유지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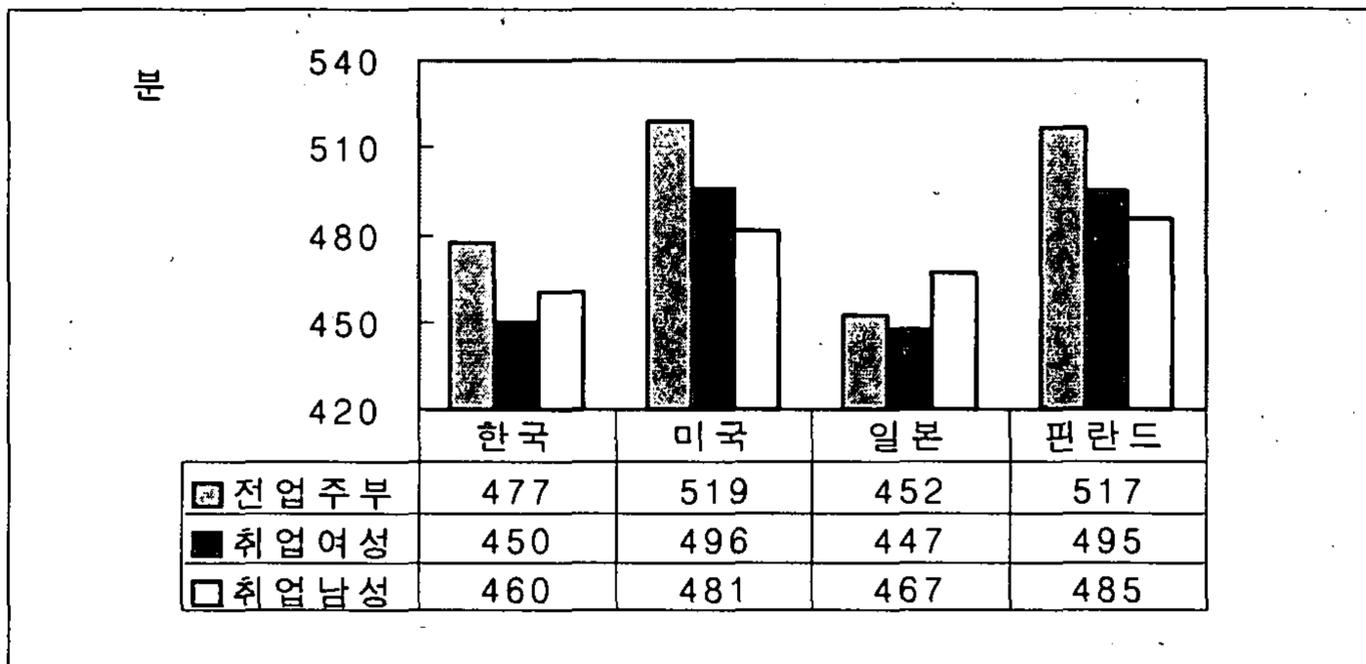
개인유지시간이 취업여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미국의 전업주부는 비교집단 중 가장 많은 개인유지시간을 갖고, 취업남성은 가장 적은 개인유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과 핀란드 사람의 수면시간이 길고, 한국과 일본 사람의 수면시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핀란드에서는 취업자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면시간을 보이는데 비하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취업여성의 수면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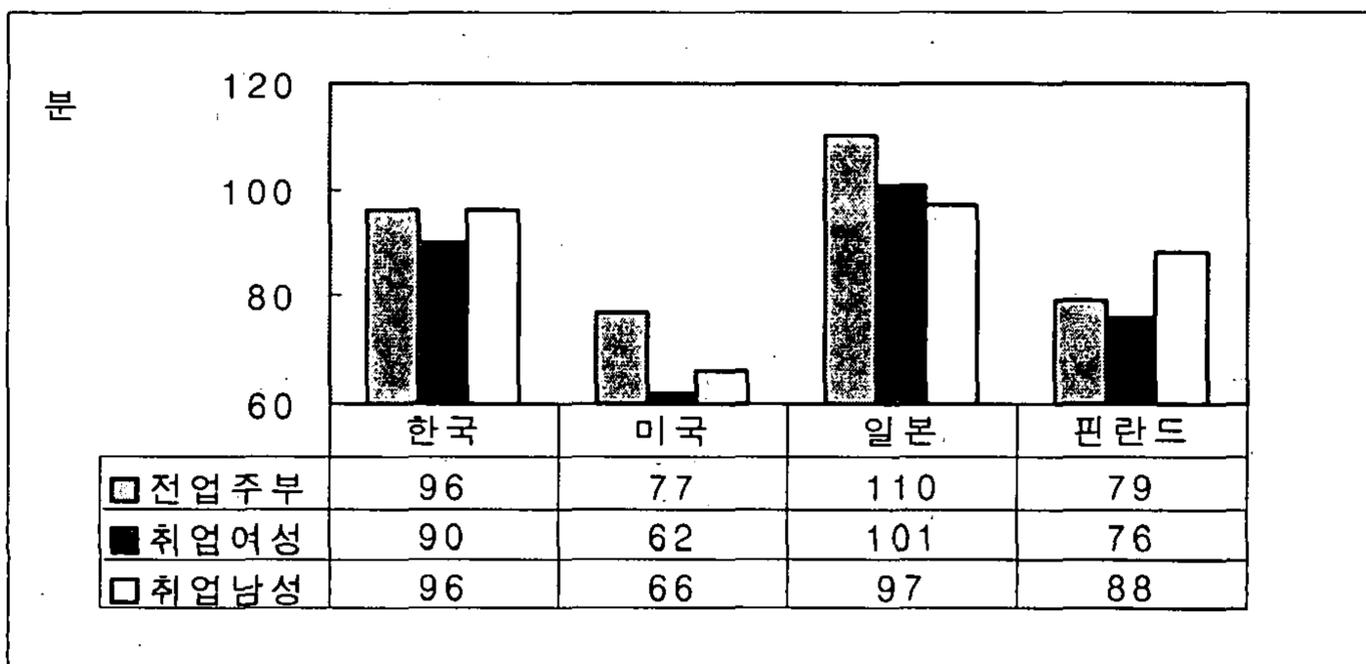
남성보다 적다. 미국과 핀란드에서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시간의 수면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가 취업남성보다 수면시간이 많은데, 일본의 경우 전업주부의 수면시간이 남성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에서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수면시간이 남성보다 더 적은 점을 알 수 있다. 부인이 남편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본의 관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인다고 하겠다.

취업여부별로 종합해 보면 일본 취업여성의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 27분으로 가장 짧고, 미국 전업주부의 수면시간이 8시간 39분으로 가장 길다.

<그림 3-4-2> 취업여부별 수면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그림 3-4-3> 취업여부별 식사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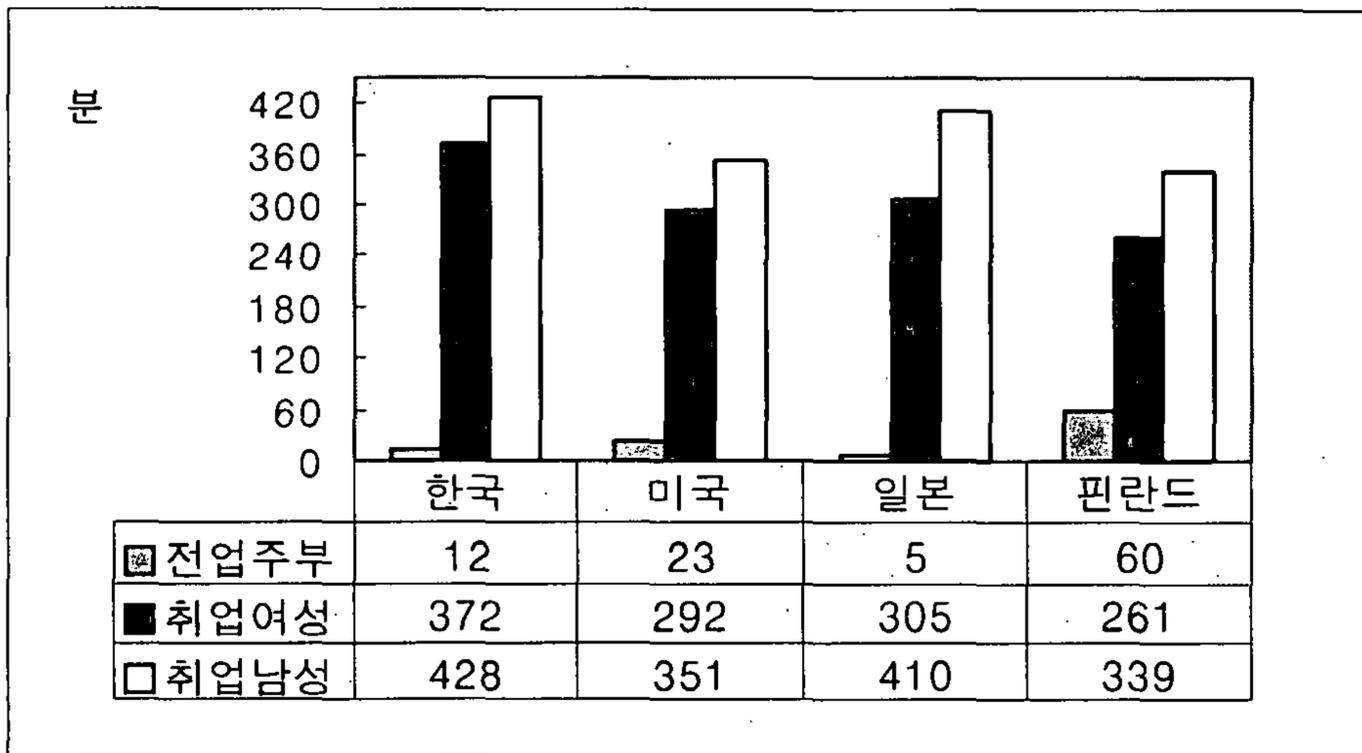


국가별로 볼 때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은 서로 반대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과 핀란드가 식사시간은 어느 집단에서나 적은 경향을 보인다.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인의 식사시간이 가장 길고, 미국인의 식사시간이 가장 짧다. 식사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가장 긴 일본 전업주부와 1시간 2분으로 가장 짧은 미국 취업여성 사이에는 하루 평균 48분의 차이를 보인다.

다. 수입노동시간

취업자의 수입노동시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가장 많다. 한국 다음으로 일본의 남녀취업자가 많은 노동시간을 보이며, 핀란드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적다. 한국 남성취업자의 경우 일본 남성취업자보다는 하루 평균 18분 이상, 핀란드보다는 1시간 29분 더 많고, 여성취업자의 경우 일본 여성취업자보다는 하루 평균 1시간 7분, 핀란드보다는 1시간 51분 더 많은 노동시간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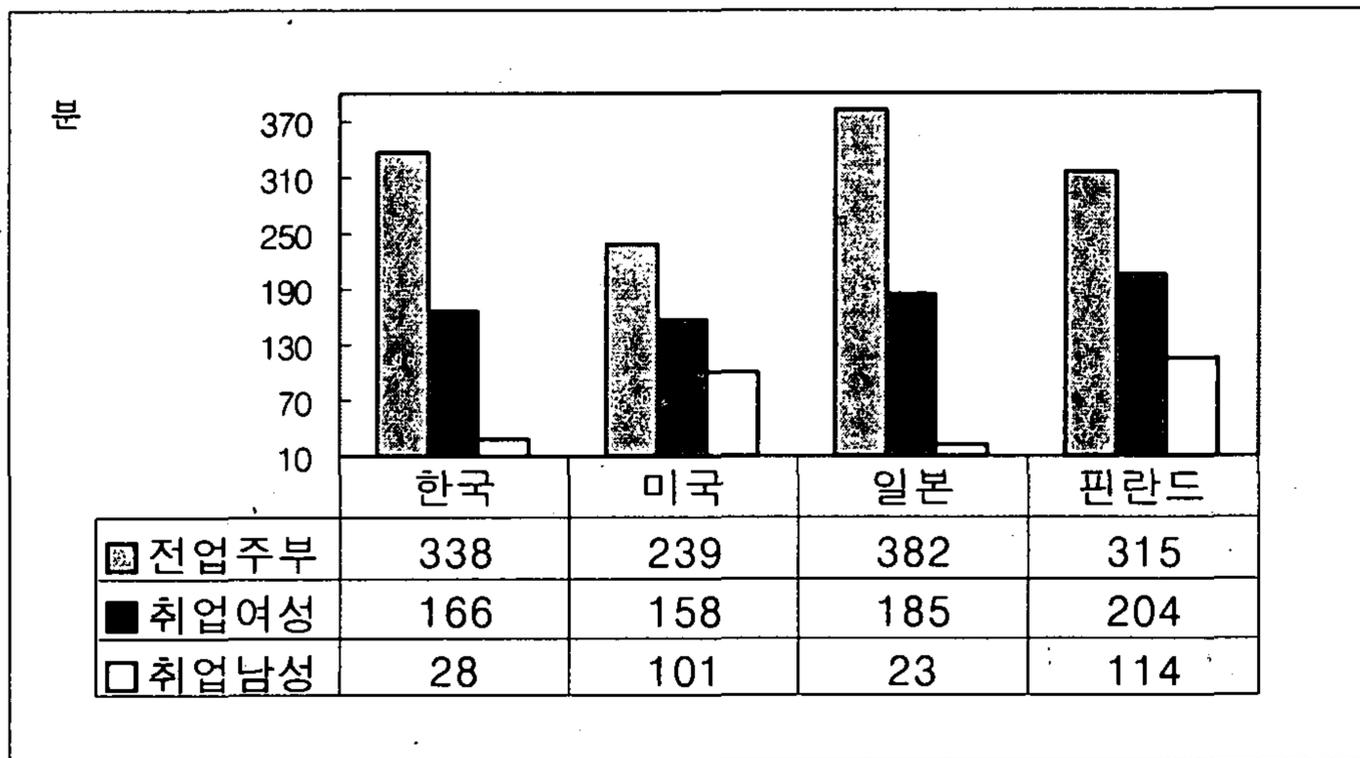
<그림 3-4-4> 취업여부별 수입노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라. 가사노동시간

수면시간이 가장 적은 일본의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시간은 가장 많다. 일본 전업주부 다음으로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많고, 미국 주부의 경우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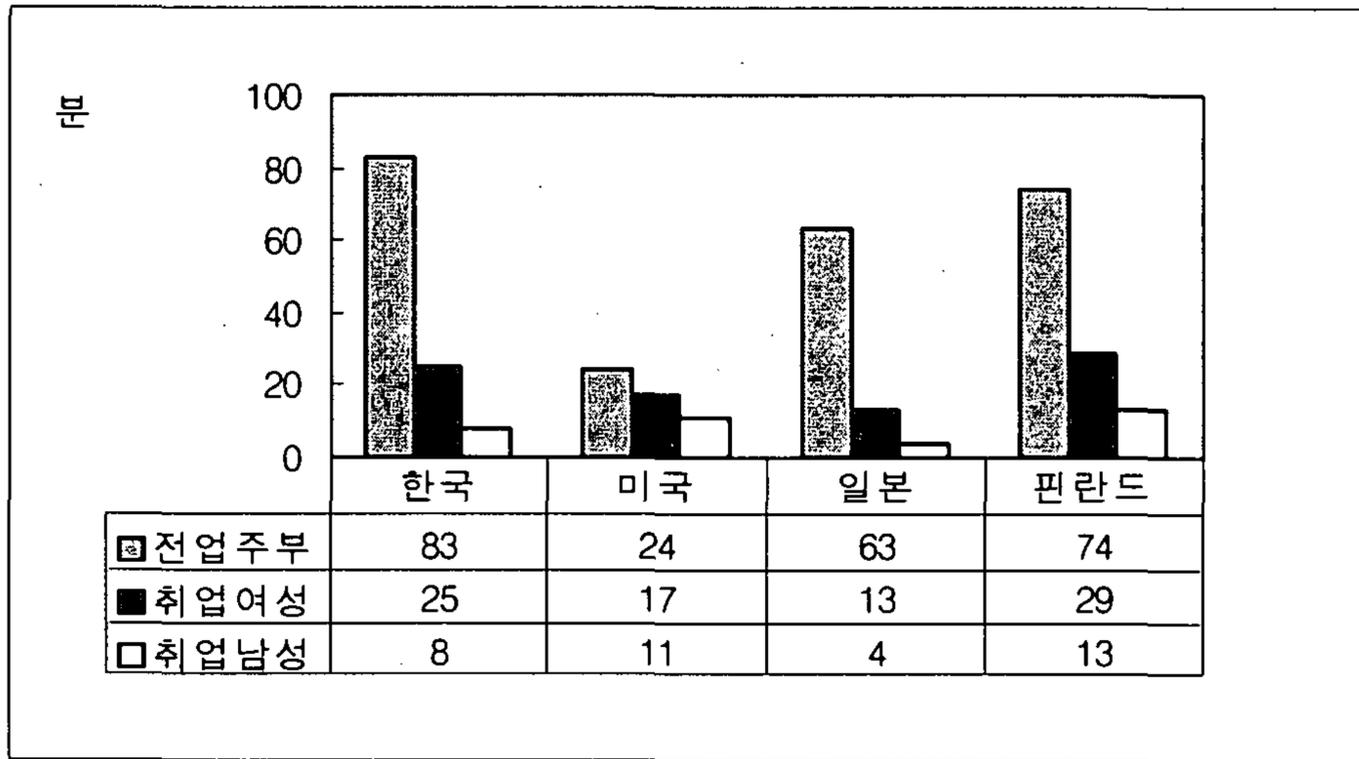
<그림 3-4-5> 취업여부별 가사노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모든 나라에서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여성이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많으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가 미국이나 핀란드에서 보다 남녀의 차이가 크다. 일본과 한국의 남성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특별히 적은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남녀 모두 핀란드에서 가장 많고, 여성의 경우 일본이 핀란드 다음으로 많으며, 남성의 경우 미국이 그러하다.

<그림 3-4-6> 취업여부별 가족원돌보기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에 포함된 가족원돌보기시간을 별도로 비교해 보면 한국 주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주부 다음으로 핀란드, 일본, 미국 순으로 가족원돌보기 시간이 감소해 간다. 취업여성의 경우 핀란드가 한국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많고, 일본의 취업여성이 가장 적은 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가족원과 함께 지내는 것이 휴식으로 분류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여 동일한 분류가 아닌 자료에서의 비교로서 해석에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총노동시간

취업자의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을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한국 취업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인다. 특히 여성취업자의 경우 남성취업자보다 총노동시간이 1시간 22분 더 많아서 하루 평균 8시간 58분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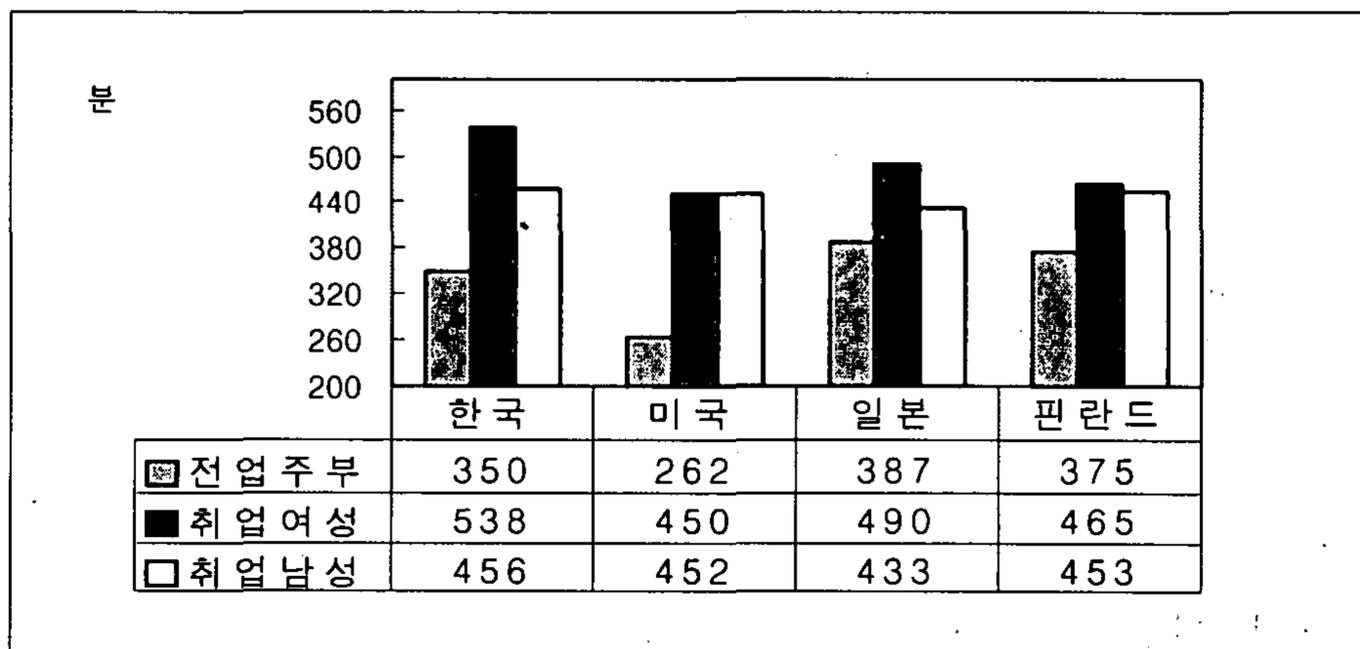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나누어 분석한 경우와는 달리 총노동시간을

비교할 때 우리 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핀란드의 남녀 취업자는 거의 비슷한 노동시간을 나타낸다. 취업자를 남녀별로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만 남성의 총노동시간이 여성보다 약간 많고, 그 외 나라에서는 모두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약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남성만 비교하면 일본 남성취업자의 총노동시간이 가장 적고, 나머지 3국의 경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노동시간으로 본다면 미국의 주부가 가장 적게 일하고, 한국의 취업여성이 가장 많이 일하며, 취업남성 중에서는 일본 남성이 가장 적게 일한다.

<그림 3-4-7> 취업여부별 총노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바. 자유시간

사회활동, 레저활동, 대중매체, 휴식을 위한 시간의 합계를 자유시간으로 볼 때, 모든 나라에서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자유시간을 가진다. 전업주부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미국의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며, 한국 주부의 자유시간이 그 다음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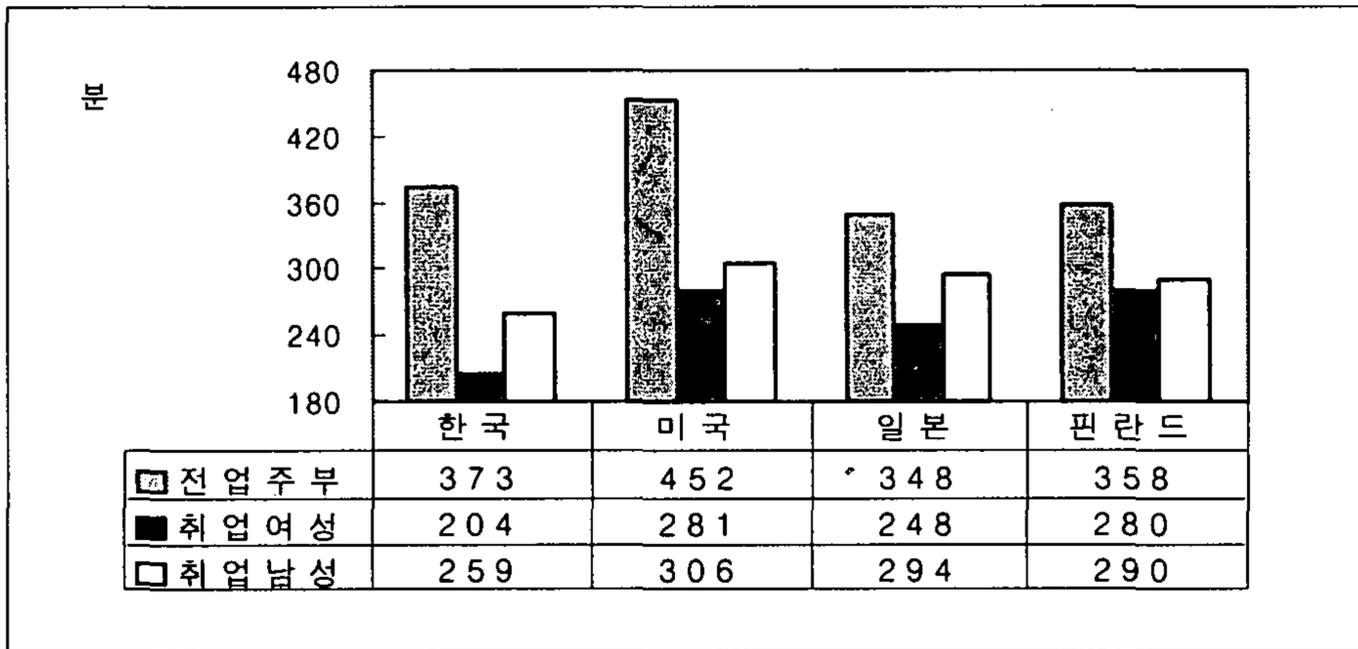
취업여성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자유시간이 가장 적다. 한국 취업여성의 자유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4분으로서 특별히 적어서 자유시간이 가장 많은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미국주부와 비교할 때 하루 평균 4시간 8분 더 적고, 한국 취업여성 다음으로 자유시간이 적은 일본 취업여성과 비교할 때도 44분 더 적다. 취업남성의 경우에도 한국남성의 자유시간이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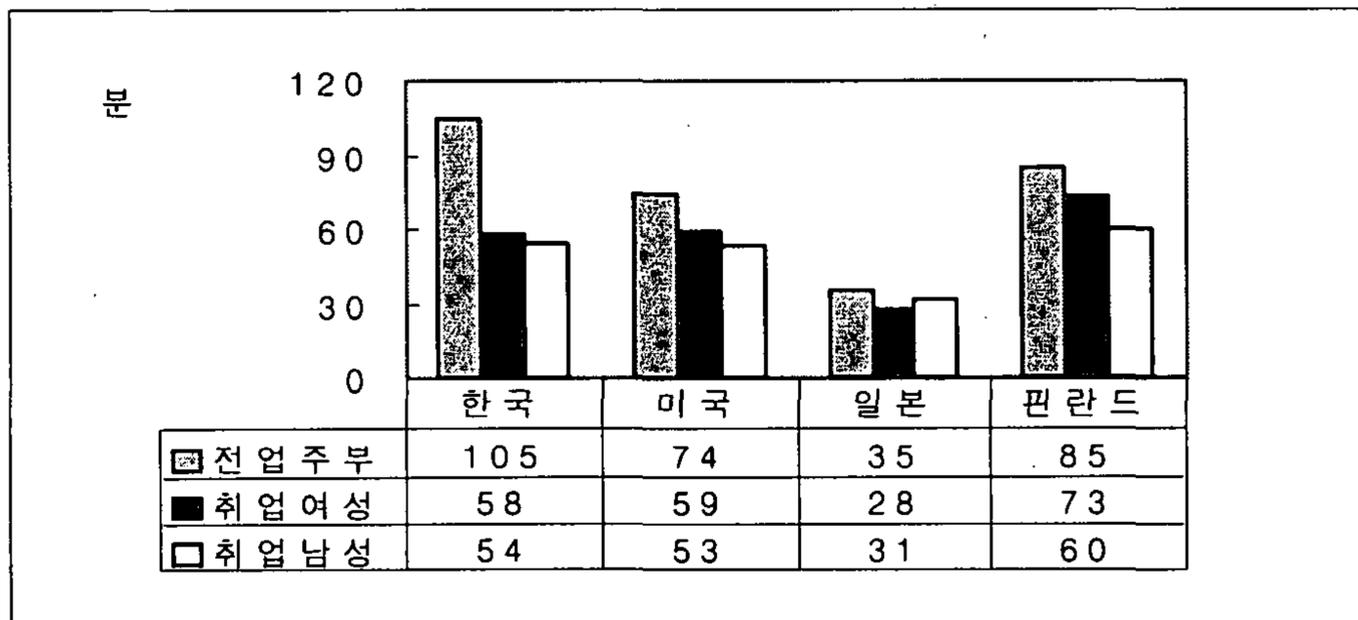
국가별로 비교할 때 전업주부, 남녀 취업자 모두 미국인의 자유시간이 가장 많다.

<그림 3-4-8> 취업여부별 자유시간의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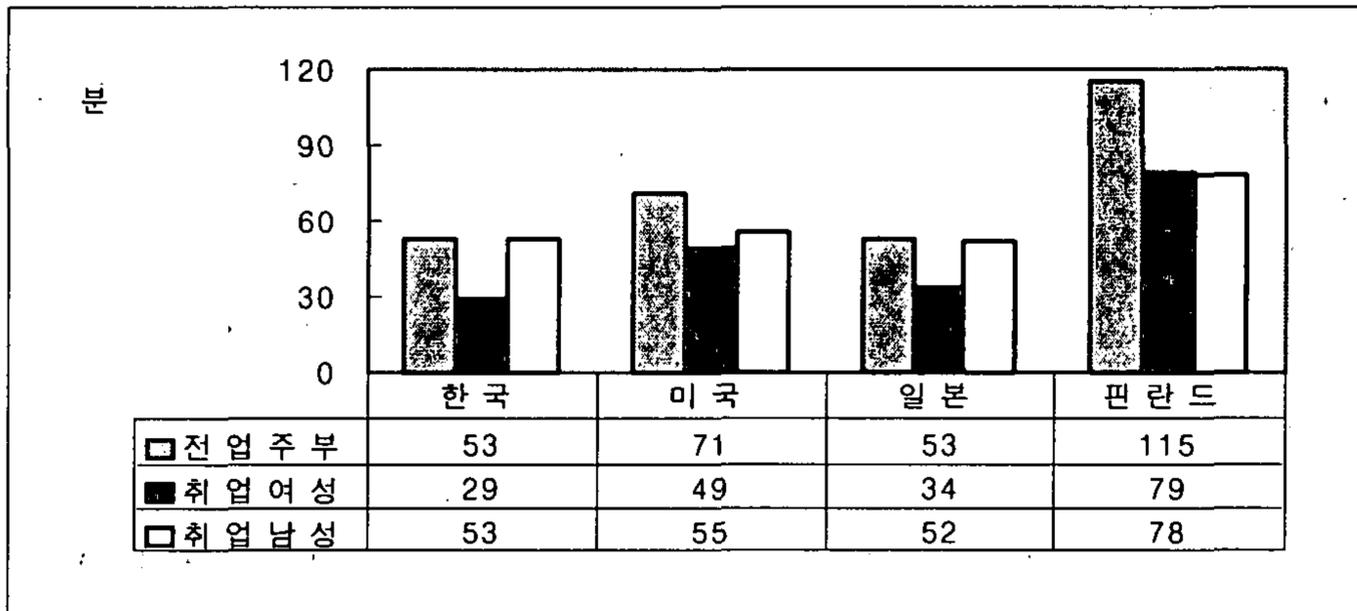
자유시간 중 사회활동시간을 보면 한국 주부가 하루 평균 1시간 45분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의 취업여성이 28분으로 가장 적다.

<그림 3-4-9> 취업여부별 사회활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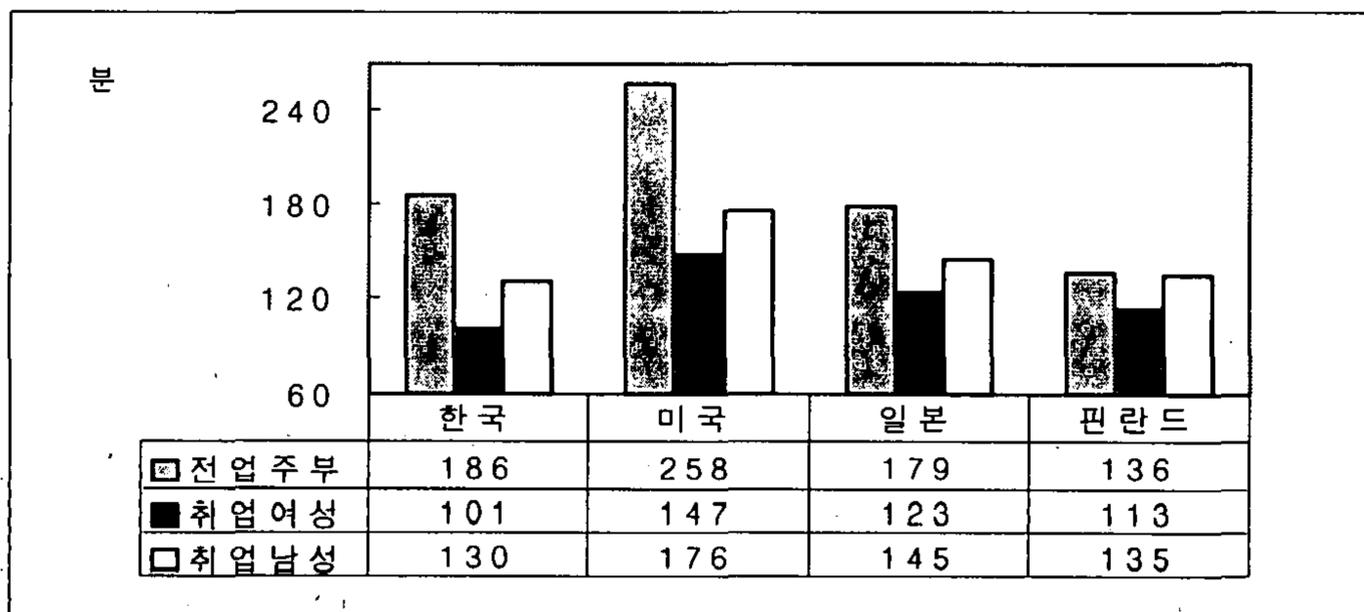
적극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레저활동은 핀란드인들이 가장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주부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55분을, 취업자의 경우 남녀가 거의 비슷한 1시간 18분 ~ 19분을 나타낸다. 모든 집단 중 한국의 취업 여성이 가장 적은 레저활동시간을 보이고, 다음으로 일본의 취업여성이 적다.

<그림 3-4-10> 취업여부별 레저활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자유시간의 내용을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와의 접촉시간이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많고, 미국의 경우 특히 많다. 전업주부가 대중매체와 가장 많이 접촉한다는 일반인의 의식과 같이 모든 국가에서 전업주부의 대중매체접촉 시간이 가장 길다. 그러나 취업자만 대상으로 비교하면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중매체와 함께 보내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 3-4-11> 취업여부별 대중매체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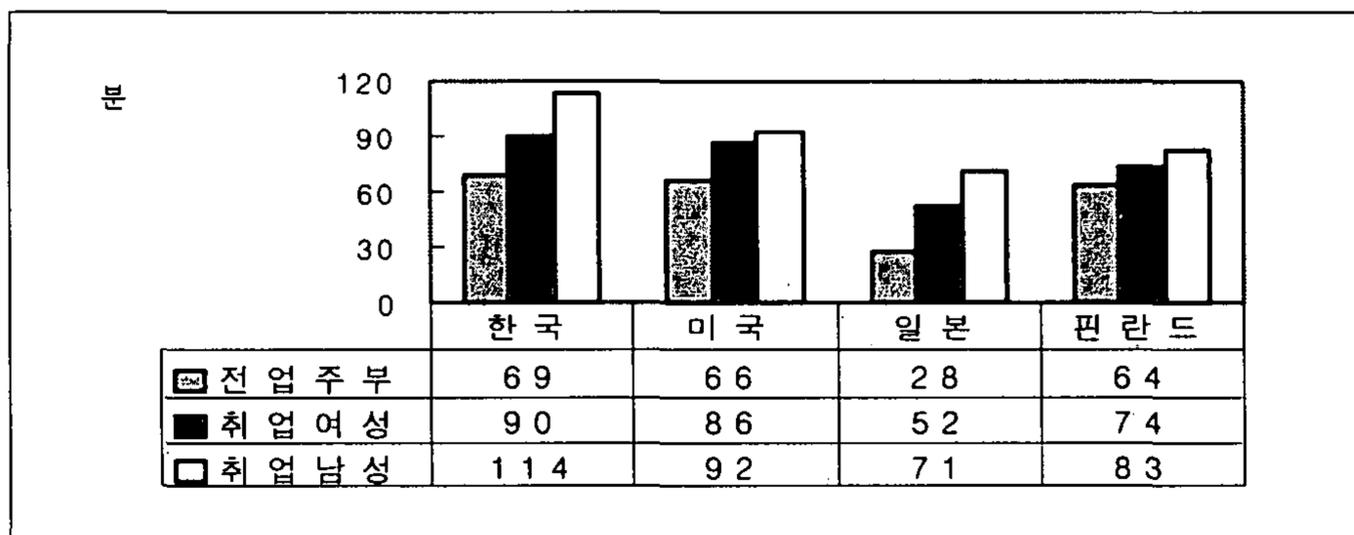


사. 이동시간

국가별로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한국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다. 우리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분담률이 높은 일본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이동시간이 가장 짧은 결과를 보이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 이동이 적은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거나 대중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어느 나라에서나 전업주부의 이동시간이 가장 짧고, 남성 취업자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다. 전업주부의 경우 일본만 하루 평균 30분이 되지 않아 특별히 짧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하루 평균 60분대의 분포를 보인다. 남녀 취업자를 비교할 때 미국의 경우 성별 차이가 6분으로서 가장 적고, 한국이 24분으로서 가장 많다.

<그림 3-4-12> 취업여부별 이동시간의 국제비교 (요일평균)



아. 소결

취업여부별로 생활시간을 비교하면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수입노동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비취업자의 수입노동 이외의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생활영역을 크게 분류할 때 그대로 적용되나 개별 활동별로 분석해 보면 이러한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전업주부의 수면시간이 남성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유무와 관계없이 여성의 수면시간이 남성보다 더 적은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자의 시간사용방식이 크게 다르고, 남녀 취업자 사이에도 시간사용이 평등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핀란드와 미국이 한국과 일본보다는 취업자간 남녀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녀 취업자는 가장 많은 취업노동을 하며, 자유시간은 가장 적다. 특히 우리 나라 여성취업자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비교국의 모든 집단 중 가장 많아 이중역할로 인한 부담이 극심한 문제점이 시간양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업주부가 다른 나라의 전업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특히 길고 자유시간이 짧은 특징을 보인다. 반대로 미국의 전업주부는 가장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며, 가사노동시간은 짧고, 개인유지시간은 가장 길다. 한국의 취업자가 장시간노동의 어려움을 겪는데 비하여 한국 주부의 경우 미국 주부 다음으로 많은 자유시간을 갖는다. 전업주부의 자유시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주부는 사회활동을 비교적 많이 하는데 이는 종교활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 반면 핀란드 주부는 레저활동을 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남성 취업자는 특별히 가사노동시간은 짧고, 취업노동시간이 긴 특징이 있어 생활영역간 부조화가 심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5. 요일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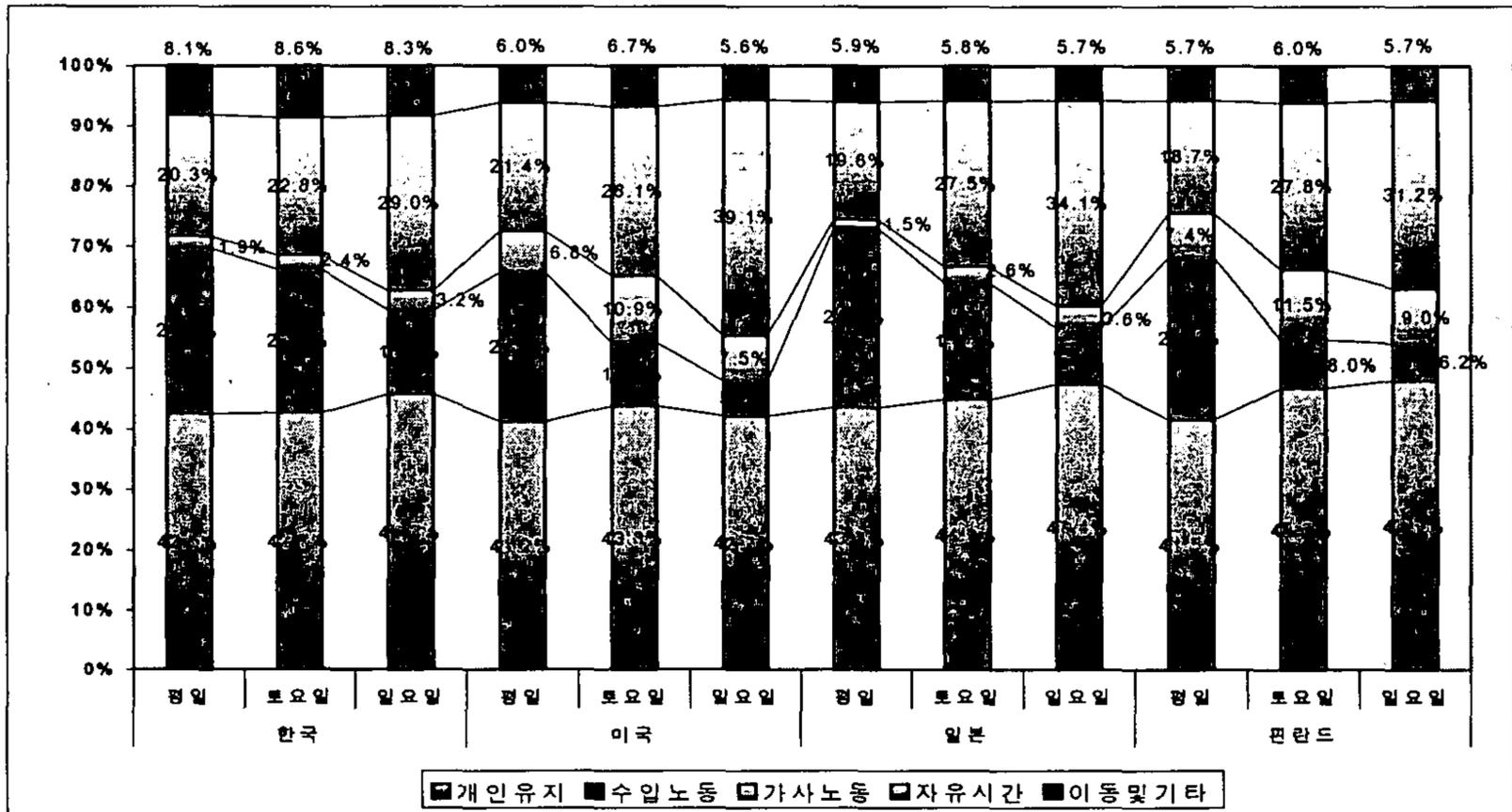
다음은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을 비교하였다.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누어 평일과의 시간차이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요일에 따라 생활시간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근무시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 주5.5일로 토요일의 반일 근무가 원칙이나 미국, 일본, 핀란드는 기준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주5일 근무가 정착되어 있어서 토요일의 생활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평일과 토요일의 생활시간 차이가 많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차이가 많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2002년 7월부터 실시되게 되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생활모습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가. 요일별 생활시간 구조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생활시간 배분을 살펴보았다. 각 생활행동의 대분류에 따른 하루의 생활행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림 3-5-1>과 <그림 3-5-2>에 나타나있다.

<그림 3-5-1> 성인남성의 요일별 생활시간구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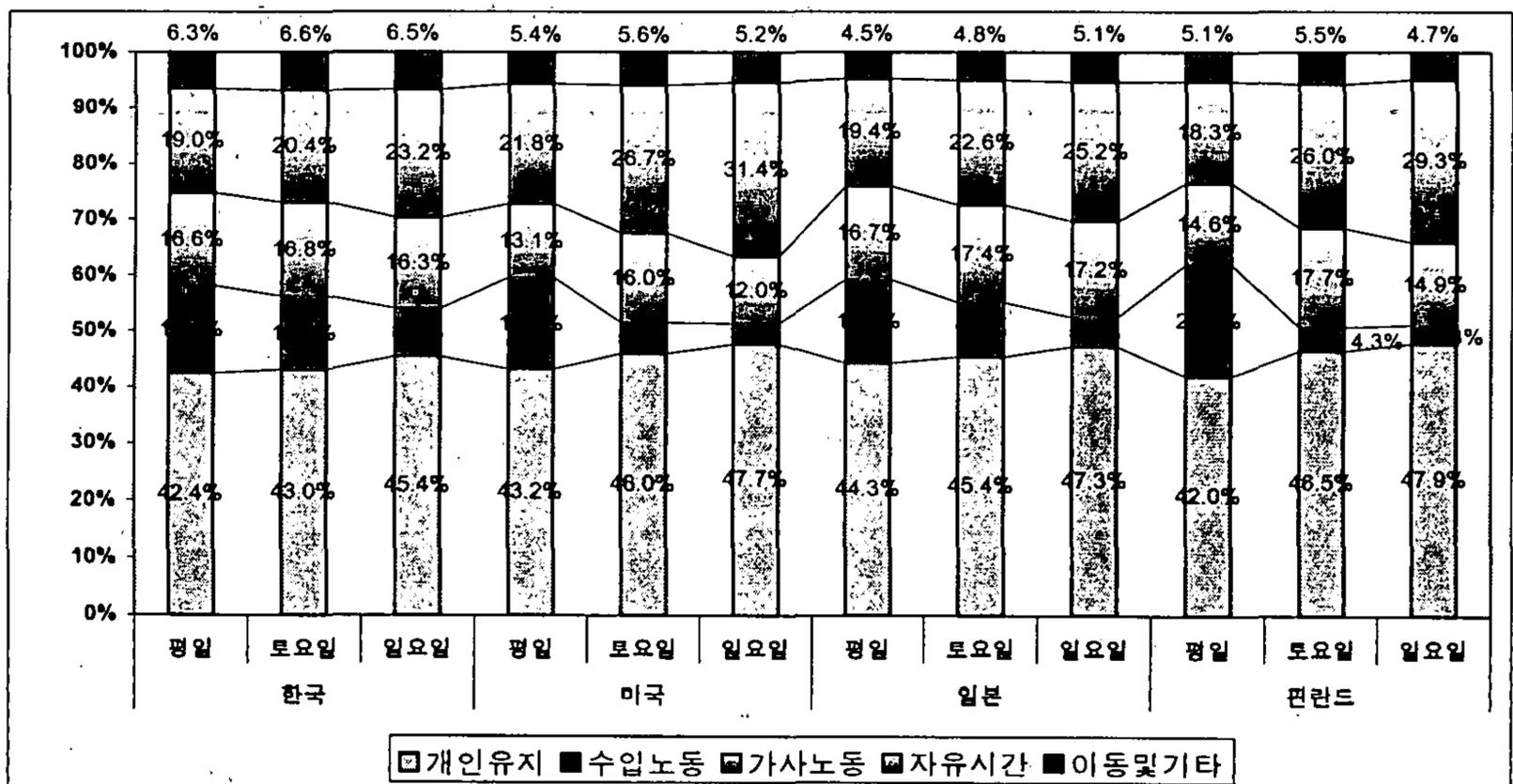


<그림 3-5-1>에서 성인남성의 요일별 생활시간구조를 보면, 평일은 4개국 모두 개인유지시간이 가장 많고, 다음은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 그리고 자유시간, 이동 및 기타의 순서로 배분되어 있다. 그러나 토요일의 생활시간구조는 나라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한국은 토요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개인유지시간, 총노동시간, 자유시간의 순인데 비해 미국, 핀란드의 경우는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총노동시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토요일 반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일요일은 4개국 모두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총노동시간의 배분을 갖는다. 전 요일에 걸쳐 하루 중 비중이 가장 큰 개인유지시간은 전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토요일, 일요일

일에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평일 개인유지시간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이다. 수입노동시간은 국가에 따른 요일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일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한국으로, 한국 남성들의 토요일 수입노동시간은 평일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27.2%→23.5%). 그러나 미국의 남성들은 평일 전체의 24.5%를 소비하던 수입노동시간이 토요일에는 10.4%, 일요일은 5.7%로 감소하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도 평일 26.7%에서 토요일 8.0%, 일요일은 6.2%로 줄어들고 있다. 평일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컸던 일본도 토요일, 일요일은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 비중도 국가에 따라 요일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남성들은 가사노동시간의 비중도 크지 않고, 요일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핀란드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이나 일요일에 비해 토요일에 크게 증가한다. 자유시간의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각국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동시간은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 미국, 핀란드가 토요일의 비중이 평일이나 일요일에 비해 컸다. 이동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토요일 근무를 위한 통근.통학의 비중이 큰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통근.통학 이외의 이동시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2> 성인여성의 요일별 생활시간구조

(단위 : %)



<그림 3-5-2>에는 성인여성의 요일별 생활시간구조가 나타나 있다. 평일의 생활시간구조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4개국 모두 개인유지시간, 총노동시간, 자유시간, 이동의 순서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토요일 한국과 일본의 여성은 자유시간보다 총노동시간이 많은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자유시간이 총노동시간보다 많다. 일요일은 한국여성들만 자유시간보다 긴 총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여성들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 요일에 걸쳐 노동시간이 자유시간보다 더 길어서 노동 중심적인 생활시간구조를 가진다. 평일 개인유지시간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핀란드 여성들의 개인유지시간 비중이 컸다. 요일별 생활시간 구조에 따르면 우리 나라 여성들의 생활시간구조는 요일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생활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핀란드나 미국의 여성들은 평일은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큰 생활을 하는 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사노동시간이나 자유시간의 비중이 큰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각 생활행동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국가간에 요일별 차이가 어떠한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 수면시간

<표 3-5-1> 성인남성의 요일별 수면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461	475	464	473
토요일	463	509	481	510
일요일	505	531	514	564

<표 3-5-2> 성인여성의 요일별 수면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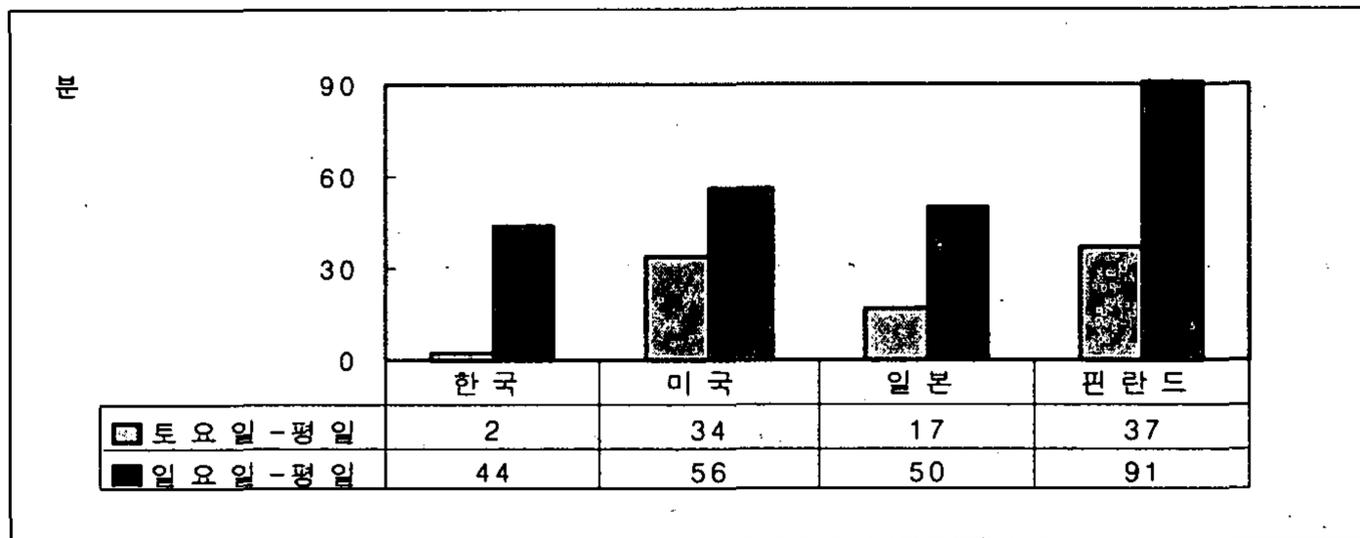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456	491	446	484
토요일	461	522	462	522
일요일	496	544	490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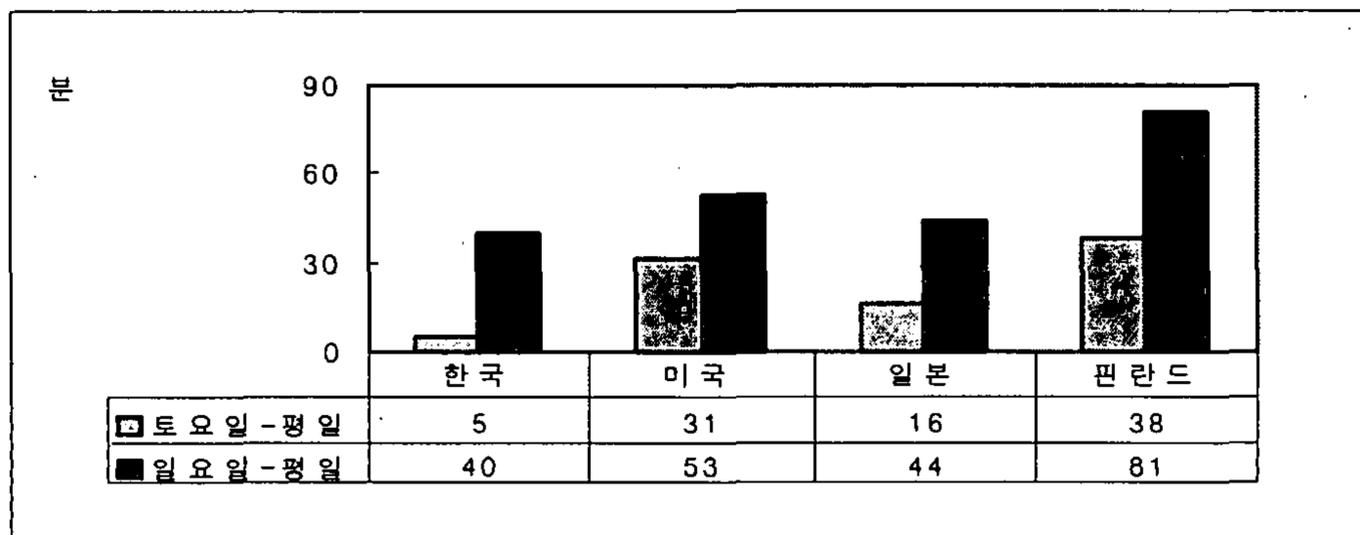
평일 성인남성의 수면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미국(475분)이고 가장 짧은 나라는 우리 나라(461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핀란드의 성인남성이 가장 잠을 많이 자는데(510분, 564분) 비해 우리 나라의 성인남성이 가장 잠을 적게 잔다(463분, 505분). 성인여성의 경우 평일 수면시간은 미국이 가장 길고(491분) 일본이 가장 짧으며(446분), 토요일은 미국과 핀란드가 길고(522분) 우리나라 여성의 수면시간이 짧으며(461분), 일요일은 핀란드가 가장 길고(565분) 일본이 가장 짧다(490분).

<그림 3-5-3>, <그림 3-5-4>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평일의 수면시간은 짧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면시간은 평일에 비해 길다. 미국과 핀란드의 성인남녀는 평일에 비해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수면시간이 길어져서 요일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성인남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일요일의 수면시간은 증가하나 토요일은 평일과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림 3-5-3> 성인남성 수면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그림 3-5-4> 성인여성 수면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다. 식사시간

<표 3-5-3> 성인남성의 요일별 식사시간 국제비교

(단위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96	68	97	86
토요일	97	76	99	109
일요일	99	78	102	89

<표 3-5-4> 성인여성의 요일별 식사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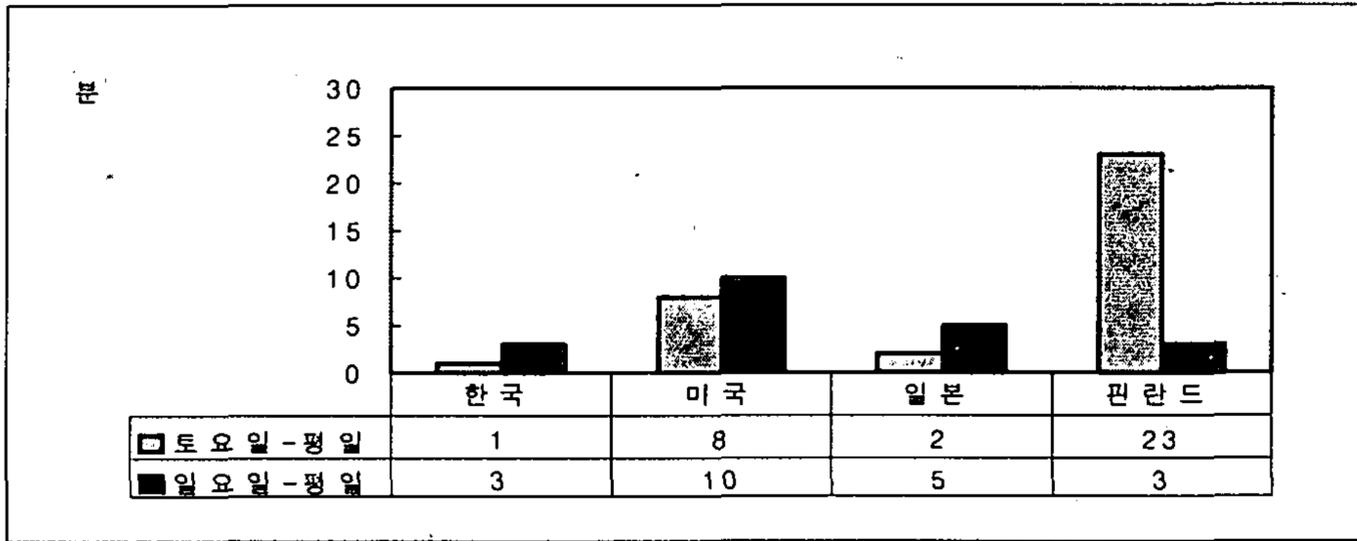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92	64	103	73
토요일	95	74	104	89
일요일	97	78	108	82

평일과 일요일의 식사시간은 일본의 성인남성, 토요일은 핀란드 성인남성의 식사시간이 가장 긴데 비해 미국 성인남성의 식사시간은 전 요일에 걸쳐 가장 짧다. 미국남성은 평일과 일요일은 일본남성에 비해 1일 각각 29분, 24분, 토요일은 핀란드에 비해 33분이 짧은 식사시간을 갖는다. <그림 3-5-5>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성인남성은 요일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은데 비해, 핀란드 남성의 식사시간은 요일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다. 특히 핀란드 성인남성은 토요일 식사시간이 일요일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나라성인들의 경우 일요일이 토요일에 비해 식사시간이 긴 것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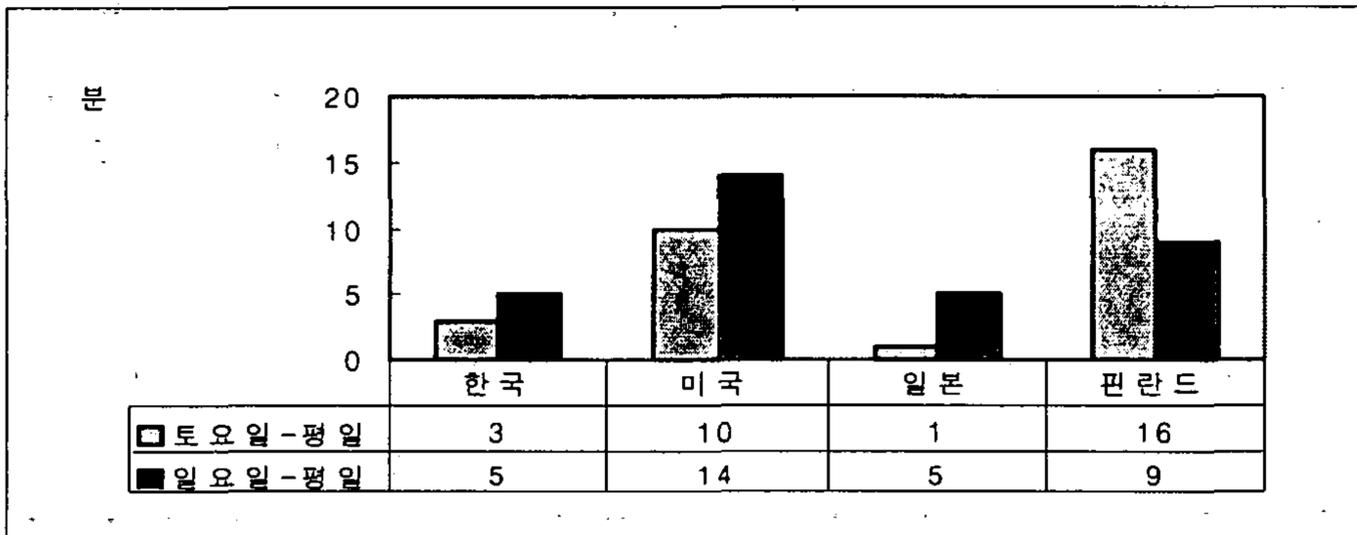
<그림 3-5-5> 성인남성 식사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분



<그림 3-5-6> 성인여성 식사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분



성인여성들의 경우는 일본의 여성들이 전 요일에 걸쳐 가장 긴 식사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여성들의 식사시간은 가장 짧다. 미국여성들의 식사시간은 일본여성들에 비해 평일은 하루 40분, 토, 일요일은 30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6>에서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본 성인여성은 평일과 토요일의 식사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 반면, 핀란드 여성의 토요일 식사시간은 평일에 비해 훨씬 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비해서도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일에 따른 식사시간에서 특징적인 것은 핀란드의 토요일 식사시간이 평일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비해서도 월등히 길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식사시간이 평일에 비해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긴 것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 수입노동시간

<표 3-5-5> 성인남성의 요일별 수입노동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374	331	416	373
토요일	329	137	272	114
일요일	192	82	130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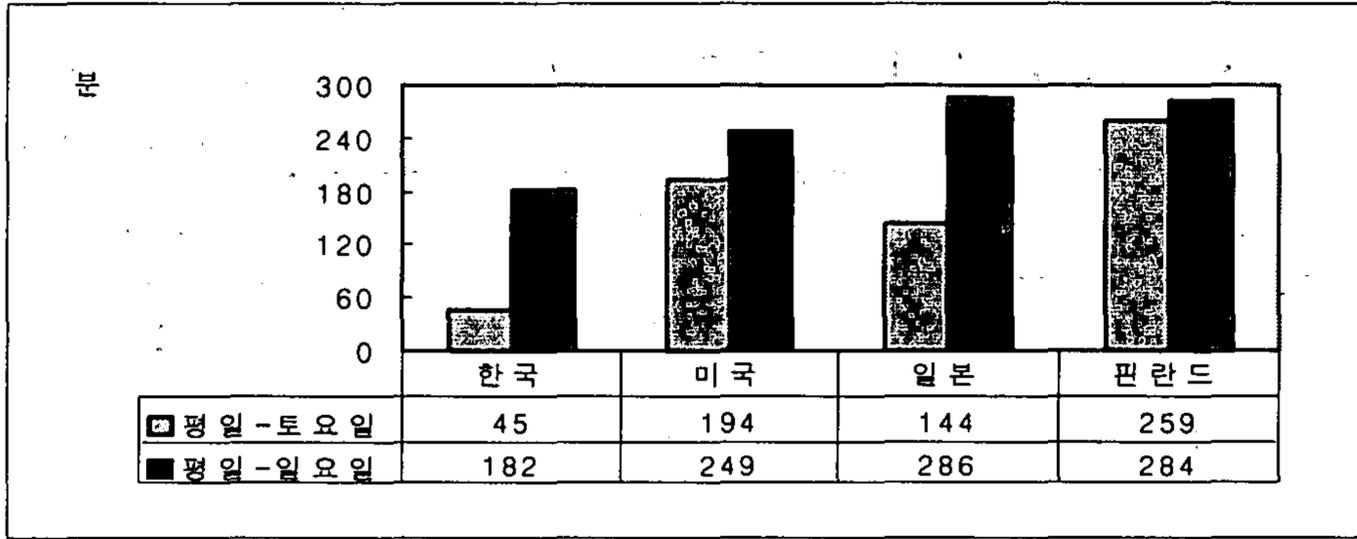
<표 3-5-6> 성인여성의 요일별 수입노동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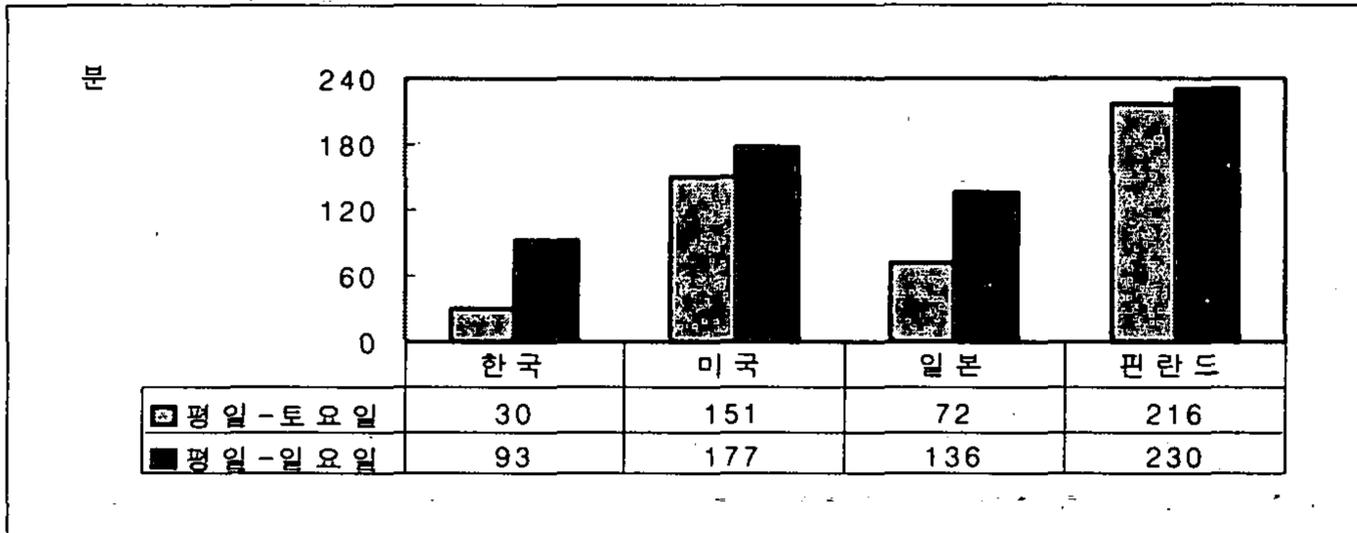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215	221	211	277
토요일	185	70	139	61
일요일	122	44	75	47

평일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성인남성들은 일본 사람들이고(416분), 미국의 성인남성들이 가장 근무시간이 짧다(331분).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길며(329분, 192분), 핀란드 남성들은 토요일(114분), 미국 남성들은 일요일에(82분) 일을 적게 하고 있었다. 일요일 우리나라 남성은 미국 남성에 비해 110분을 더 근무하고 있다. <그림 3-5-7>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핀란드는 차이가 컸으며, 평일과 일요일의 수입노동시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나라는 일본이었다.

<그림 3-5-7> 성인남성 수입노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분



<그림 3-5-8> 성인여성 수입노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분



국가별, 성인여성들의 요일에 따른 수입노동시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평일 성인여성들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핀란드이고(277분), 가장 짧은 나라는 일본이다(211분).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수입노동시간은 우리나라 성인여성이 가장 길고(185, 122분), 토요일은 핀란드(61분), 일요일은 미국 여성들의 근무시간(44분)이 가장 짧았다. 평일 핀란드 여성들의 수입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핀란드의 여성 취업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3-5-8>에서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수입노동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평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가장 적었으며,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이다. 즉 핀란드 여성들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확실한 휴일임을 나타낸다.

마. 가사노동시간

<표 3-5-7> 성인남성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28	98	21	106
토요일	34	157	38	166
일요일	46	116	52	130

<표 3-5-8> 성인여성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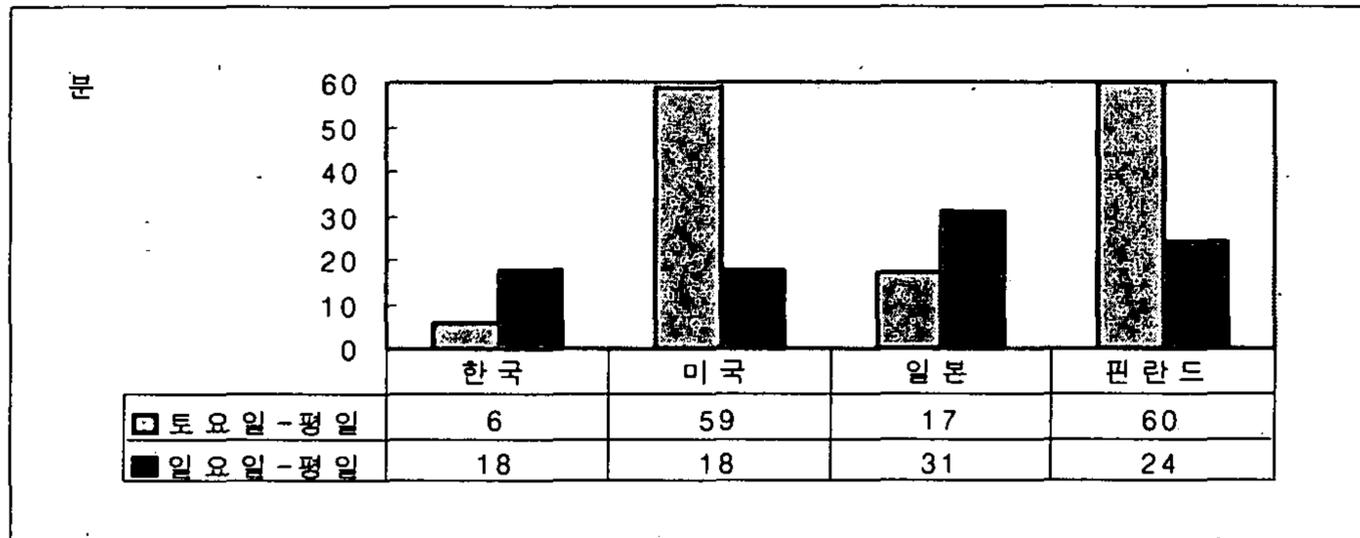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239	189	241	210
토요일	241	231	250	256
일요일	234	173	247	214

성인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 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길었다. 핀란드의 남성들은 요일을 불문하고 가사노동시간이 길었으며, 평일 가사노동을 가장 적게 하는 남성은 일본 남성들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짧았다. 특히 핀란드나 미국의 성인남성들이 평일이나 일요일에 비해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훨씬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증가하였다<그림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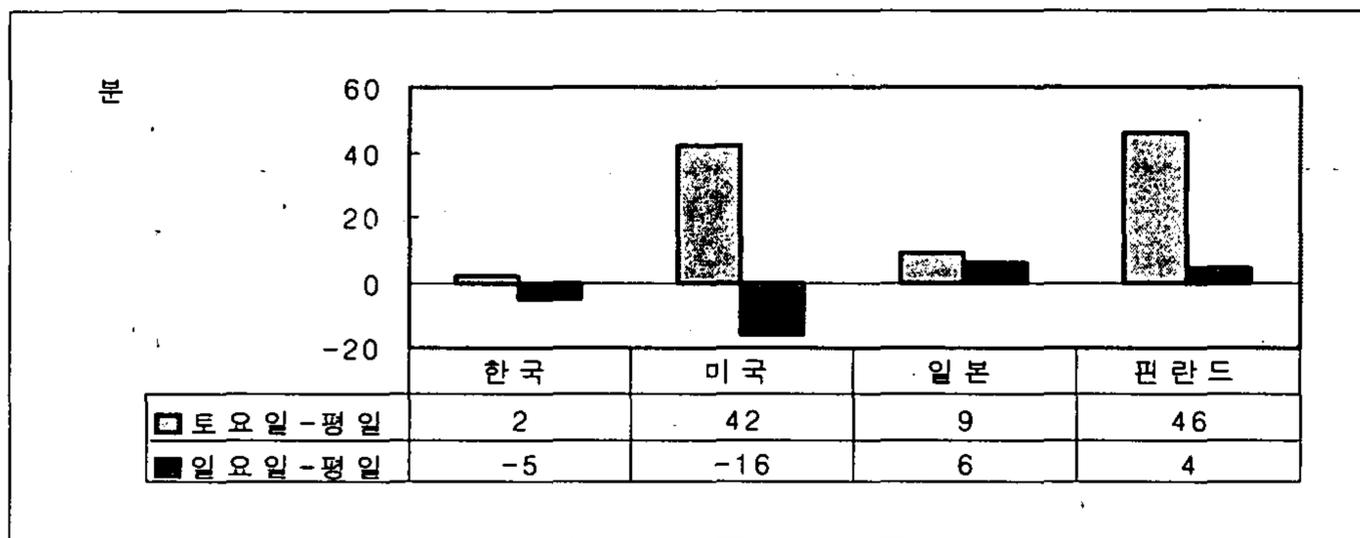
<그림 3-5-9> 성인남성 가사노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분



<그림 3-5-10> 성인여성 가사노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분



성인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요일에 따라 성인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 요일에 걸쳐 일본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미국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짧다. 한국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요일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이나 토요일에 비해 짧았다. <그림 3-5-10>에서 요일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경우는 미국의 여성들로 특히 미국 여성들은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일요일에 비해 58분이나 길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토요일에 가장 길었다. 그러나 성인여성을 취업과 비취업으로 나누게 되면 요일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즉 여성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이 짧고 토요일 일요일이 길지만, 전업주부는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이 길고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 비해 짧다

바. 사회활동시간

<표 3-5-9> 성인남성의 요일별 사회활동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54	42	24	49
토요일	64	81	45	89
일요일	94	108	55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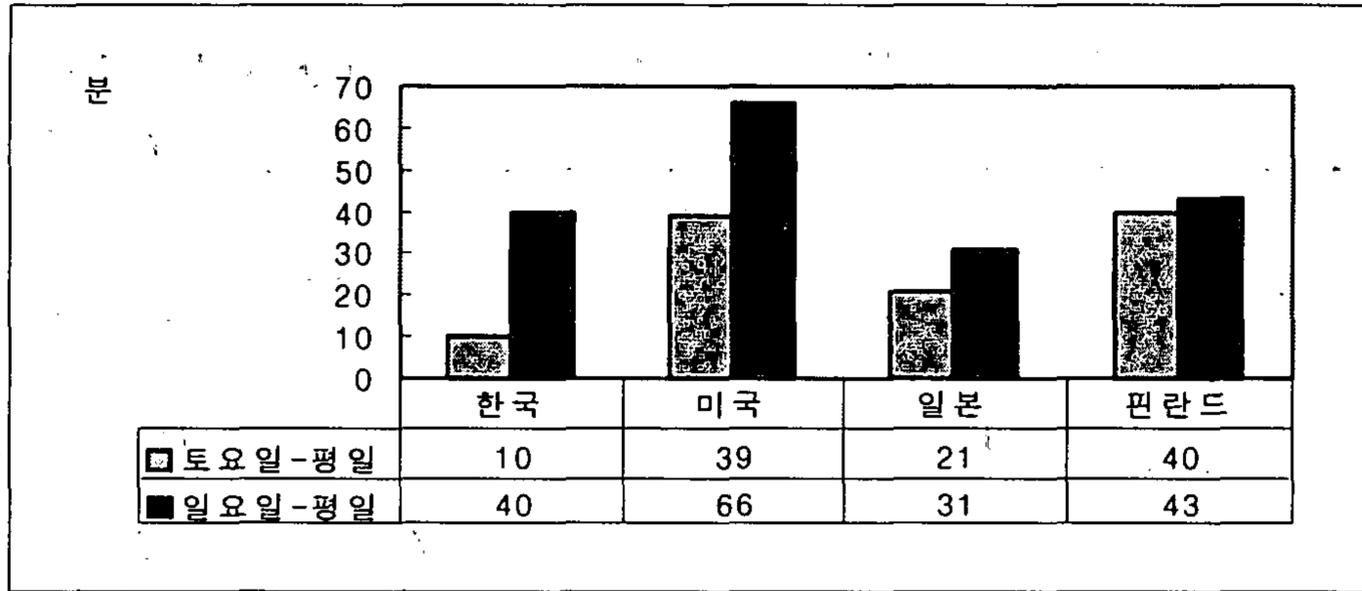
<표 3-5-10> 성인여성의 요일별 사회활동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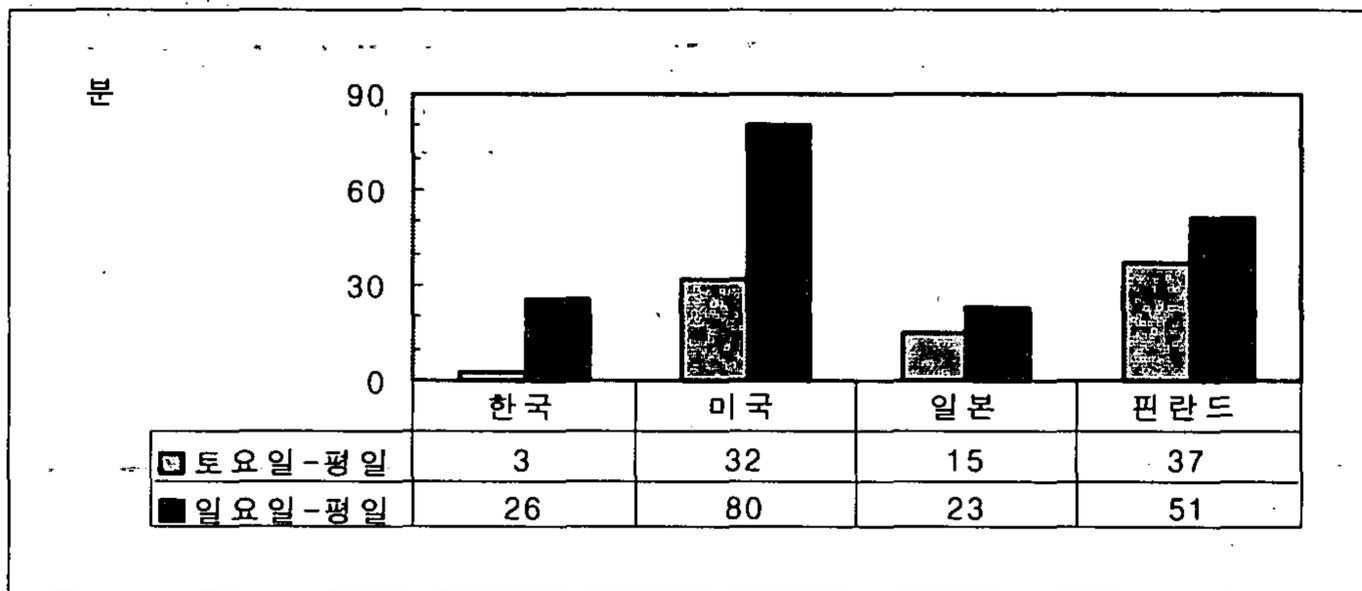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54	42	24	49
토요일	64	81	45	89
일요일	94	108	55	92

사회참여, 종교활동 및 교제 등의 사회활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한국남성들이 가장 길었고(54분), 토요일은 핀란드(89분), 일요일은 미국남성들의 사회활동시간이 길었다(108분). 일본 성인남성들의 사회활동시간은 전요일에 걸쳐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4분, 45분, 55분). 성인남성들의 사회활동은 전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증가했다. 평일에 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사회활동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는 미국의 남성들이었다(<그림 3-5-11>).

<그림 3-5-11> 성인남성 사회활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분



<그림 3-5-12> 성인여성 사회활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분



성인여성들의 사회활동시간은 평일은 한국(76분), 토요일은 핀란드(100분), 일요일은 미국이(125분) 길었으며, 일본여성들의 사회활동시간이 가장 짧았다(각각 26분, 41분, 49분). 한국여성들의 사회활동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의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 핀란드는 평일과 토요일의 차이가 컸으며, 평일과 일요일의 사회활동 차이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다(<그림 3-5-12>).

한국의 성인남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일의 사회활동시간이 길었으며, 토요일은 핀란드, 일요일은 미국 성인남녀의 사회활동시간이 길었다. 일본의 성인남녀는 전요일에 걸쳐 사회활동시간을 가장 적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레저활동시간

<표 3-5-11> 성인남성의 요일별 레저활동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70	52	44	75
토요일	81	80	88	110
일요일	93	81	117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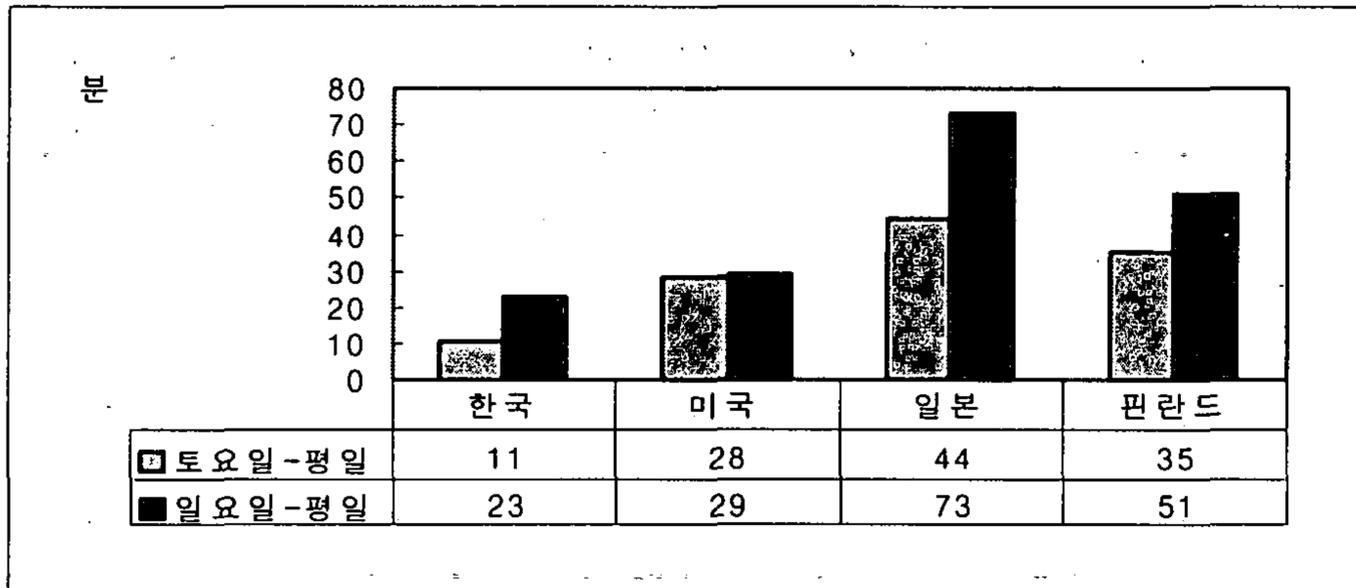
<표 3-5-12> 성인여성의 요일별 레저활동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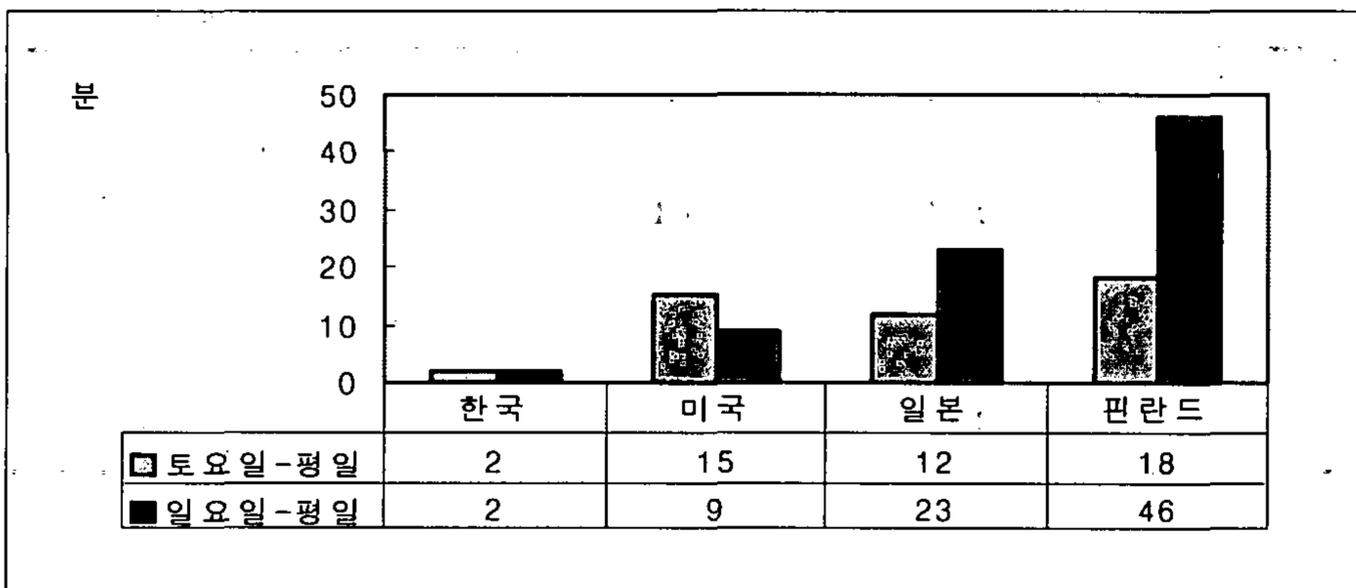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42	54	38	80
토요일	44	69	50	98
일요일	44	63	61	126

평일은 핀란드 성인남성들의 레저활동시간이 가장 길고(75분) 일본 남성들이 가장 짧았으며(44분), 토.일요일은 핀란드 남성들의 레저활동시간이 가장 길고(각각 110분, 126분) 미국 남성들이 가장 짧았다(80분, 81분). 레저활동시간의 요일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었으며 요일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는 우리 나라였다(<그림 3-5-13>).

<그림 3-5-13> 성인남성 레저활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원



<그림 3-5-13> 성인남성 레저활동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 원



성인여성들의 레저활동시간은 평일은 일본 여성들이 가장 짧고(38분), 토요일, 일요일은 한국 여성이 가장 짧았다(각각 44분, 44분). 반면,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핀란드 여성들이 가장 길었다(각 80분, 98분, 126분). <그림 3-5-14>에서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면, 우리 나라 여성들의 레저활동은 요일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 비슷했으며, 요일에 따른 차이가 큰 나라는 핀란드였다. 핀란드 여성들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 토요일 순으로 레저활동시간이 길었다.

아. 대중매체 접촉시간

<표 3-5-13> 성인남성의 요일별 대중매체접촉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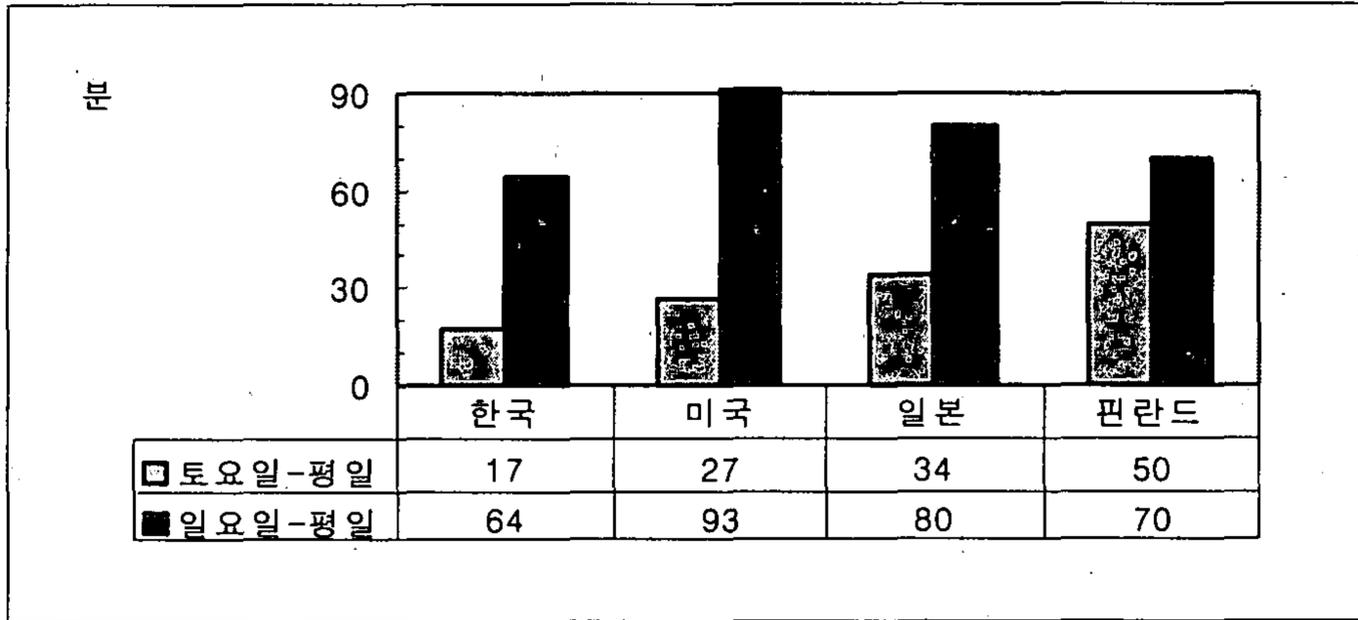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143	186	147	127
토요일	160	213	181	177
일요일	207	279	227	197

<표 3-5-14> 성인여성의 요일별 대중매체접촉시간 국제비교
(단위 :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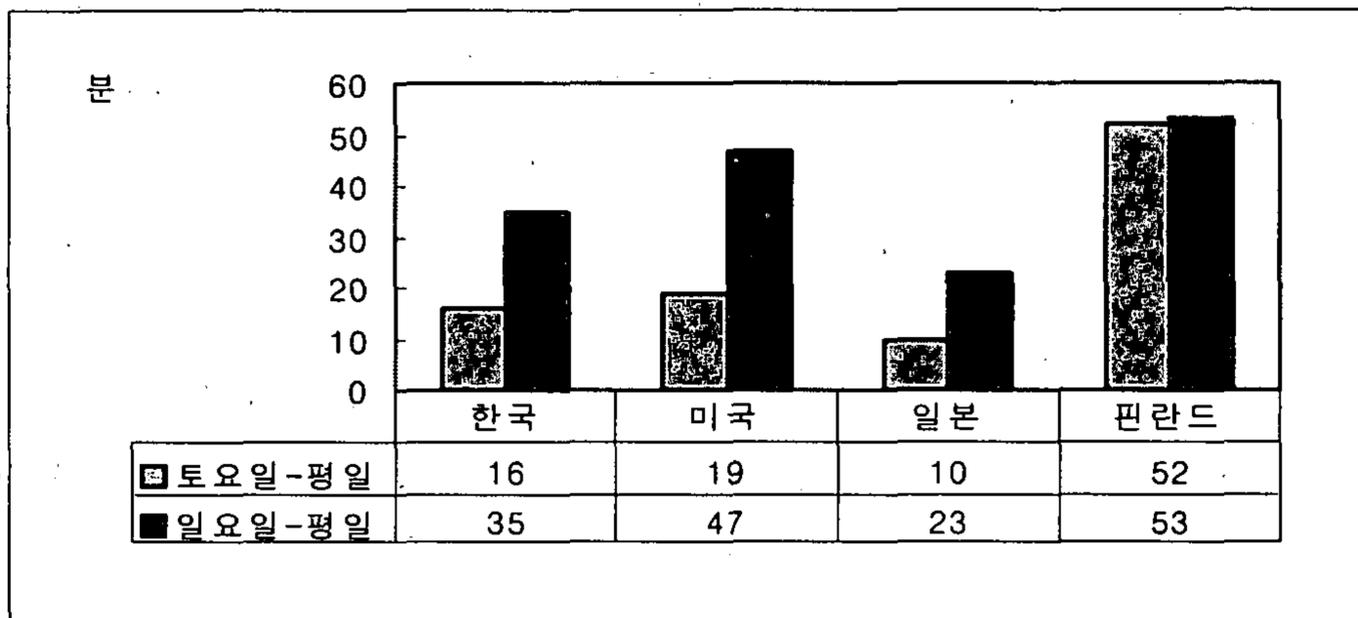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평일	133	181	145	105
토요일	149	200	155	157
일요일	168	228	168	158

미국의 성인남성들의 대중매체 접촉시간은 전요일에 걸쳐 다른 나라 남성들에 비해 길었다(각 186분, 213분, 279분). 핀란드 남성들은 평일이나 일요일에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가장 짧았고(각 127분, 197분), 토요일은 우리 나라 남성들이 다른 나라 남성들에 비해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짧았다(160분). 대중매체 접촉시간의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면,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길었다. 평일에 비해 토요일의 접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핀란드이고 미국남성들은 평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특히 커서 일요일에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길었다(<그림 3-5-15>).

<그림 3-5-15> 성인남성 대중매체 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원



<그림 3-5-15> 성인여성 대중매체 시간의 요일차 국제비교
단위 :원



성인여성들 역시 미국 여성들의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요일에 관계없이 가장 길었으며(각 181분, 200분, 228분), 핀란드 여성의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평일과 일요일 가장 짧은데(각 105분, 158분) 비해, 토요일은 우리 나라 여성들의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가장 짧았다(149분). 요일간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로 나타났다. 이는 핀란드의 평일 대중매체 접촉시간이 1시간 45분으로 매우 짧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3-5-16>).

자. 소결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산업형태나 근무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요일의 개념이 일찍 확립된 미국이나 핀란드 등 서구사회가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양에 비해 요일간의 생활시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는 평일과 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뚜렷해서, 1주일 가운데 일하는 시간과 쉬거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구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평일과 별 차이가 없고, 이에 영향을 받는 수면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활동시간, 레저활동시간 등도 평일과 토요일의 차이가 크지 않다.

생활행동의 항목별로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한국의 남성과 여성은 토요일의 수면시간이 매우 짧고 평일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다른 나라의 경우는 평일에 비해 토요일 수면시간이 많아진다. 또 핀란드인은 평일에 비해 토요일의 식사시간을 길게 가지고 미국인들은 일요일의 식사시간이 길어지는데, 한국과 일본 성인 남녀의 식사시간은 요일에 따른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은 주 5.5일 근무로 인해 반일 근무를 해야 하는 토요일 뿐 아니라 일요일의 수입노동시간도 별로 줄어들지 않는 데, 미국과 핀란드의 성인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확실하게 쉰다. 미국과 핀란드의 남성들에게 토요일은 가사노동을 하는 날이며, 여성들 역시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요일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사회활동은 주로 일요일에 이루어지고, 특히 미국의 성인 남녀는 일요일의 사회활동 비중이 다른 요일에 비해 훨씬 크다. 한국인은 레저활동도 요일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는데, 일본 남성들과 핀란드 여성들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레저활동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대중매체 접촉은 일요일에 가장 많다.

IV. 결 론

성인의 생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중요하게 밝혀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생활시간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남성의 시간사용의 특징은,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특히 통근시간-이 길고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이 짧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국가 중 일본과 거의 유사하나 한가지 차이점은 일본 남성의 이동시간이 짧고 우리 나라 남성은 긴 것이다.

한국 여성 또한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많고 자유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적다는 점에서는 한국 남성과 일치되나 가사노동시간이 긴 점에서는 남성과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 여성은 수입노동시간에 있어서는 남녀 평등에 있어 가장 앞선 핀란드에 이어 2위,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는 한국과 더불어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본에 이어 2위를 함으로써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국가별 수입노동시간의 특징은 보면 남성과 여성을 평균할 경우 한국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남성 여성 모두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미국이다. 또한 남녀간에 가장 동등한 수입노동시간의 분담을 보이는 것은 핀란드이며 남녀가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 성인 남성과 여성의 자유시간은 조사 국가 중 가장 적다. 또한 자유시간을 항목별로 살펴 볼 때, 대중매체 시간이 많은 것은 어느 나라에나 공통된 현상으로 한국 성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과 여성의 이동시간-특히 통근시간-이 가장 긴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전체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생활시간배분의 성별차이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핀란드로 대표되는 서구에 비해 남녀간 불평등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등은 주로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입노동에 있어서 남성의 우위와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우위가 동양권에서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불평등을 규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가사노동의 성별 차이가 근무시간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가용성의 차이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규범의 차이가 큰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규범에서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가사노동보다 수입노동시간의 양국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데, 이는 여성의 근무시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양국이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여성의 근무시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적으므로 근무시간의 남녀간 차이가 커서 일본이 한국보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가 되고 있다. 한편 평등국으로 볼 수 있는 서구 두 나라를 비교하면 미국은 가사노동에 있어서, 핀란드는 근로시간에 있어서 더 평등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여가활동은 남녀가 비교적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여가활동 내역별로 볼 경우 국가간에 차이를 보였다. 종교활동은 한국 여성의 우위가, 교제에서는 핀란드 여성의 우위가, 스포츠는 특히 한국과 미국 남성의 우위가, 대중매체는 4개국 모두 남성의 우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취미에서는 동서양간에 큰 차이를 보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남성 우위가, 미국과 핀란드에서는 여성 우위가 두드러졌다. 결국 문화권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여가활동양식에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성인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의 특성을 비교할 경우 남성의 수입노동 시간은 4개국 모두 20대와 50대 남성이 짧으며, 30대와 40대가 길어 전체적으로 역 U자 형의 수입노동시간 라이프사이클을 가진다. 자유시간은 수입노동시간과 대조를 이루어 30, 40대가 짧고 20대와 50대가 긴 편이다. 한편 여성의 연령별 수입노동시간은 국가에 따라 다른데, 특히 한국과 일본의 30대의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취업을 단절하는 전형적인 M자형 수입노동 라이프사이클을 보인다. 가사노동시간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30대에 이르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증가 정도가 서구 두 나라보다 현저하다.

자유시간은 30대가 짧은데 이는 긴 가사노동시간 때문으로 생각된다. 국가별 연령에 따른 자유시간과 여가 활동의 특성을 보면 한국 성인의 경우, 20대의 남성과 여성은 학습에, 모든 연령층의 여성은 종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4개국 중 핀란드가 여가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대중매체와 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다른 여가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취업여부별로 생활시간을 비교하면 모든 국가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자의 시간사용방식이 크게 다르고 남녀취업자 사이에도 시간사용이 평등하지 않

은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핀란드나 미국보다 취업자간 남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녀 취업자는 가장 많은 취업노동을 하며, 자유시간은 가장 적다. 특히 우리 나라 여성 취업자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비교국의 모든 집단 중 가장 많아 이중역할로 인한 부담의 문제점이 시간양으로도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국의 취업자가 장시간노동의 어려움을 겪는데 비하여 한국 주부는 미국 주부 다음으로 많은 자유시간을 갖는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시간이 특히 길고 자유시간이 짧은 특징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남성취업자는 특별히 가사노동시간은 짧고, 취업노동시간이 긴 특징이 있어 생활영역간 부조화가 심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산업형태나 근무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요일의 개념이 일찍 확립된 미국이나 핀란드 등 서구사회가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양에 비해 요일간의 생활시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3개국은 토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평일과 토요일의 생활시간 차이가 크고, 특히 핀란드의 경우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짧고 식사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은 물론 일요일보다 길어서 토요일이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평일과 별 차이가 없고, 이에 영향을 받는 수면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활동시간, 레저활동시간 등도 평일과 토요일의 차이가 크지 않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가장 큰 변화는 토요일의 생활시간에서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요일은 모든 나라가 유사하게 휴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요일 역시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근무시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길다.

우리는 생활시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긴 점, 가사노동을 포함한 총노동시간에 있어 한국 여성, 특히 여성취업자의 시간이 길어 이중 부담을 가장 크게 안고 있다는 점,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짧아 성별 불평등도가 높다는 점, 긴 이동시간으로 인한 국가적 시간손실이 크다는 점, 육아로 인한 여성의 취업단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요일에 따라 생활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특성 내지 문제점을 분명히 하였다.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국민의 생활양식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각자의 의식 전환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노동력정책, 여성정책, 교통정책 등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시간조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외숙(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 농촌진흥청(1979, 1983, 1988, 1993, 1996)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 문숙재·정영금(1988), 도시주부의 가정생산 시간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103-118.
- 박명숙·백경임(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 대한가정학회지, 35(6), 173-190.
- 상정기(1979), 생활시간구조에 대한 연구, 부산교대논문집, 15(1).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개발 과정, 한국조사연구학회 창간호, 135-148.
- 안영희(1977),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논문집, 16(2).
- 오윤자(1983), 서울시 주부의 생활시간관리 조사연구, 경희대학 석사학위 논문.
-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 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이승미(1997), 가족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지, 제31호
- 이정수(1984), 대학생의 생활행동의 시간적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2(1).
-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 조성은·문숙재(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95-112.

- 조희금(1990),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63-180.
-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1-16.
- 최명숙·이정우·최보가(1987),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추정, 대한가정학회지, 25(4).
- 최영기(1991), 근로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최은숙·이애순(1981),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3(1), 12-20.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 한경미(1993), 시간관리행동과 관련변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83-95.
-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4.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한경미·황덕순(1990), 취업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한국방송공사(1981, 1983, 1985, 1987, 1991, 1996), 국민생활시간조사.
- 허경옥·김인숙(1996),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연구: 가정생산이론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81-195.
- 허경옥(1994a),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허경옥(1994b),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3
-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8.
- 홍향숙·박성희(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 Abdel-Ghany, Mohamed, & Nicols, Sharon(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59-167.
- Amano, H., Matsubaguchi, R., Ito, S., Ito, J., Horiuchi, K., Saito, E.,

- Mizunoya, T., Lee K.Y., Lee, Y.S., Cho, H.K., Kim, O.S., Comparative analysis of time use in Seoul and Tokyo (1995)-Social/cultural activity time, The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5(1), 1998(22-27).
- Arndt, J., Grønmo, S. and Hawes, D.K.(1981). The use of time as an expression of life-style : A cross-national study. In Research and Marketing (P.1-28). JAI Press Inc.
- Clark, S. and Harvey, A.S.(1977). An evaluation of the multinational activity classification and coding system : A working paper. Halifax, Canada : Regional and Urban Studies Centre, Institute of Public Affairs, Dalhousie University.
- Converse, P.E.(1972). Country difference in time-use. In A. szalai(eds.), The Use of Time :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 in Twelve Countries (P.145-178). The Hague : Mouton.
- Doo, Kyung-Ja, & Ju, In-Sook(1997), Time use of employed mothers in Korea: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8(2), 179-190.
- Douthitt, Robin & Zick, Cathleen(1988) Taxes and time allocation pattern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cross cultural comparis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41-157.
- Gerner, J. L., Montalto, C. P., & Bryant(1990), W. K., Work patterns and marital status change, Life 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7-21.
- Gerner, Jennifer & Zick, Cathleen(1983), Time allocation decisions in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3), 145-159.
- Gershuny, J. and Jones, S.(1992). Time budget research in Europe. Oxford.
- Gershuny, J.(1993). "Draft proposal for the methodology of the European

- time use survey." Presented at the EUROSTAT Working Party on Social Indicators, April.
- Hafstrom, J. L. & Schram, V. R.(1983) Housework time of wives: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ERJ 11(3).
- Hara, Y. (n.d.). Time-budget survey : a multinational comparison.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 Harvey, A.S. (1984). Proposal for multinational cooperation in time budget research.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Research Group on Time Budgets and Social Activities.
- Harvey, A.S. and Niemi, I.(1993). Framework for an international standard activity system(ISAC). Presented to the 15th Reunio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Amsterdam, 1993.
- Hiatt, A. R., & Godwin, D. D.(1990), Use of time and preference for time allocation among urban employed married women, Life Styles, 11(2), 161-181.
- Juster, F. T. & Stafford, F. P. (1985) (ed), Time Goods, and Well-Being. ISR, The University of Michigan.
- Klingston, P. W., & Nock, S. L.(1987), Time together among dual earner couples, ASR 52, 391-400.
- Matsubaguchi, R., Amano, H., Amano, H., Horiuchi, K., Ito, S., Saito, E., Ito, J., Mizunoya, T.(1997), Comparative analysis of time use in Seoul and Tokyo (1995)-Paid work time, 1997 Proceedings of the 9th Conference of ARAHE.
- Mikami, H. 1999. Time Use Survey in Japan International Seminar on Time Use Studies. Ahmedabad, India.
- Nicoles, S. Y., & Metzen, E. J.(1983),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ERJ, 7(2).
- Oropesa, R. S., Ponzetii, J. J., & Olson, G. I.(1989), Time demands on families: Is there a bottom line Life 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4).

- Robinson, J.P. & G. Godbey. 2000. Time for Life - The Surprising Ways American Use Their Tim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A.
- Szalai, Alexander(1972), The use of time -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Mouton.
- Shelton, B. A.(1992), Women, Men, and Time: Gender Differences in Paid Work, Housework and Leisure, Greenwood Press, Westport.
webuse.umd.edu/data_analysis.htm
- Zick, Cathleen & McCullough, Jane(1991), Trends in married couples' time use: Evidence from 1977-78 and 1987-88, Sex Roles, 24, 459-487.
- NHK 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1994, 1995). 「生活時間の国際比較」. 東京: 大空社.
- 堀内 かおる・天野寛子・伊藤. (1997b). 家事労働観と生活時間から見る夫妻のジェンダー関係-1995年 世田谷区在住雇用労働者夫妻の調査から一. 日本家政學會誌 48(10).
- 失野眞和(1996), 「生活時間の社會學」. 東京:東京大學出版會.
- 永山貞則斗 寺崎康博(1991): 技術社會における生活時間と生活行動パターン. 季刊家計經濟研究, 2-14.
- 伊藤セツ(1994). 女性労働者の労働時間と生活時間. 労働總研.労働問題研究會編, 「日本の労働時間」. 東京: 學習の友社.
- 伊藤セツ, 天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著(1983). 「生活時間」. 光生館.
- 伊藤セツ・天野寛子 共編著(1988).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光生館.
- 伊藤セツ・天野寛子・森ます美・堀内かおる(1993). 「生活時間と生活文化」. 東京: 光生館.
- 一番ヶ瀬康子 외2인 (1994). 「餘暇生活論」. 有斐閣.
- 日本労働省(1990). 「労働時間短縮に関する提言」
- 日本總務廳統計局(1998). 「平成8年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 第1卷 全國生活時間編.

부 록

1. 미국의 활동분류

개인유지		자녀돌보기	20 유아돌보기	대중매체	91 TV
수면	45 수면		21 자녀돌보기		92 음반/테이프
식사	43 식사		22 도움/교육		94 잡지 읽기
신변에 관한 일	40 세수 등		23 책임어주기 이야기하기		95 신문 읽기
	42 help & care		24 실내에서 놀기	휴식	96 대화
	44 개인위생		25 실외에서 놀기		98 생각/휴식
	47 옷입기		26 이쁜자녀돌보기		
	32 개인유지관련구매		27 자녀돌보기	이동	
	41 자가치료	사회활동		통근, 통학	9 통근
	33 의료서비스	사회적활동			59 통학
	48 NA activities	사회참여	60 전문가/ 조합 활동	그 밖의 이동	29 자녀 보살피기 이동
수입노동			61 이익집단 활동		39 재화나 서비스 관련 이동
근무	1 주업		62 정치, 시민활동		49 개인유지 관련 이동
	2 구직		63 자원봉사		69 조직 관련 이동
	3 근무 중 이동		66 동호회		79 교체 관련 이동
	5 부업		67 아동청소년가족단체		89 레크리에이션 관련 이동
	8 근무 중 휴식		68 기타 조직활동		99 수동적 레저에 관련된 이동
		종교활동	64 종교적모임		
학업	50 수업		65 종교적 실천		
	51 기타수업				
	54 숙제	교제	75 방문		
	56 기타 학습관련 시간		76 파티		
	55 도서관이용		77 바나 라운지에서 교제		
가사노동			78 기타 교제 활동		
가사		레저활동			
식사준비	10 식사준비	학습			
및설거지	11 설거지				
청소, 세탁	14 의복관리	관람 및 행사	70 스포츠행사		
	28 드라이 클리닝		71 오락		
	12 청소		72 영화/비디오		
			73 극장		
기타가사일	13 옥외청소		74 박물관		
	15 차량수선유지	스포츠및옥외활동			
	16 기타수선		80 적극적인 스포츠		
	17 화초돌보기		81 옥외 레크리에이션		
	18 애완동물		82 운동		
	34 관공서/재정서비스	취미및그외여가			
	19 기타 가사노동		93 독서		
	38 심부름에 보낸시간		83 취미		
			84 가정 공예		
구매	30 식료품 구매		85 미술		
	31 의복 구매		86 음악/연극/춤		
	35 차량수선서비스		87 게임		
	36 기타 수선서비스		97 편지/글 쓰기		
	37 그외 서비스				

2. 일본의 활동분류

<p>제1범주 (생리적으로 필요한 활동) (1)수면, (2)개인관리, (3)식사</p> <p>제2범주 (개인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활동) (4)통근, 통학 (5)근무 (6)학교 (7)가사노동 (8)가족원의 신체적 돌보기 (9)자녀양육 (10)구매</p> <p>제3범주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기타 활동) (11)통근, 통학외의 이동 (12)TV·라디오·신문·잡지 (13)휴식·휴양 (14)학습 (15)취미·오락 (16)운동 (17)사회참여 (18)교제 (19)의료 (20)기타</p>

3. 핀란드의 활동분류

<p>1. 생활필수 수면, 식사, 신변에 관한 일</p> <p>2. 일·학업 일, 학업</p> <p>3. 가사 취사, 청소·세탁, 가정잡일, 구매, 자녀와의 대화</p> <p>4. 이동 통근·통학, 그밖의 이동</p> <p>5. 사회활동 사회참여, 교제</p> <p>6. 레저활동 구경·영화, 행락산책, 승부, 취미</p> <p>7. 대중매체 TV·비디오, 라디오, 신문잡지, 책, 음반·CD</p> <p>8. 휴식 휴식</p>

4. 생활시간조사 결과 집계표

4-1. 성인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8	10:26	10:43	10:24
수면	7:45	8:19	7:44	8:16
식사	1:35	1:09	1:41	1:23
신변에 관한 일	0:58	0:58	1:18	0:44
수입노동	4:40	3:42	4:32	4:24
근무	4:28	3:27	4:26	4:15
학업	0:12	0:15	0:05	0:09
가사노동	2:18	2:35	2:18	2:48
가사	1:39	1:56	1:38	2:01
식사준비및설거지	0:54	0:34	-	0:49
청소, 세탁	0:38	0:38	-	0:36
기타 가사일	0:07	0:44	-	0:36
구매	0:09	0:26	0:24	0:24
가족원 돌보기	0:30	0:14	0:16	0:23
사회활동	1:11	1:02	0:31	1:08
사회적 활동	0:15	0:15	0:04	0:07
사회참여	0:04	0:05	0:04	0:07
종교활동	0:11	0:11	-	-
교제	0:56	0:47	0:27	1:01
레저활동	1:00	0:59	0:51	1:28
학습	0:10	-	0:07	-
관람 및 행사	0:02	0:09	-	0:04
스포츠 및 옥외활동	0:20	0:22	0:10	0:25
취미 및 그외 여가	0:28	0:29	0:35	0:49
대중매체	2:27	3:19	2:36	2:11
휴식	0:23	0:33	1:13	0:19
이동	1:36	1:22	0:55	1:18
통근, 통학	0:47	0:22	0:31	0:23
그외 이동	0:49	1:00	0:25	0:55
기타	0:09	0:00	0:20	0:00

4-2 남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9	10:09	10:37	10:21
수면	7:48	8:10	7:53	8:10
식사	1:37	1:11	1:38	1:30
신변에 관한 일	0:55	0:48	1:06	0:41
수입노동	5:56	4:36	6:01	5:08
근무	5:42	4:18	5:54	5:00
학업	0:14	0:18	0:07	0:08
가사노동	0:32	1:50	0:28	1:57
가사	0:20	1:23	0:12	1:25
식사준비및설거지	0:05	0:16	-	0:21
청소, 세탁	0:08	0:12	-	0:15
기타 가사일	0:07	0:55	-	0:49
구매	0:03	0:19	0:12	0:21
가족원 돌보기	0:09	0:07	0:04	0:11
사회활동	1:01	1:00	0:31	1:00
사회적 활동	0:09	0:13	0:04	0:07
사회참여	0:04	0:05	0:04	0:07
종교활동	0:05	0:08	-	-
교제	0:52	0:46	0:27	0:53
레저활동	1:15	1:02	1:01	1:27
학습	0:12	-	0:08	-
관람 및 행사	0:01	0:10	-	0:04
스포츠 및 옥외활동	0:26	0:29	0:12	0:39
취미 및 그외 여가	0:36	0:22	0:41	0:44
대중매체	2:35	3:27	2:44	2:23
휴식	0:24	0:29	1:13	0:21
이동	1:50	1:28	1:07	1:23
통근, 통학	1:04	0:28	0:42	0:26
그외 이동	0:46	1:01	0:25	0:57
기타	0:07	0:00	0:18	0:00

4-3. 여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7	10:41	10:47	10:27
수면	7:42	8:26	7:34	8:22
식사	1:33	1:08	1:44	1:17
신변에 관한 일	1:02	1:06	1:28	0:48
수입노동	3:28	2:59	3:05	3:41
근무	3:18	2:46	3:01	3:32
학업	0:10	0:14	0:04	0:09
가사노동	3:57	3:12	4:03	3:37
가사	2:53	2:21	3:00	2:37
식사준비및설거지	1:41	0:48	-	1:17
청소, 세탁	1:05	0:58	-	0:57
기타 가사일	0:07	0:35	-	0:23
구매	0:15	0:31	0:36	0:27
가족원 돌보기	0:49	0:20	0:28	0:34
사회활동	1:19	1:05	0:31	1:16
사회적 활동	0:19	0:18	0:04	0:07
사회참여	0:03	0:04	0:04	0:07
종교활동	0:16	0:13	-	-
교제	1:00	0:47	0:27	1:09
레저활동	0:43	0:58	0:43	1:29
학습	0:08	-	0:07	-
관람 및 행사	0:02	0:08	-	0:04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4	0:16	0:07	0:31
취미 및 그외 여가	0:19	0:33	0:29	0:55
대중매체	2:20	3:13	2:29	2:00
휴식	0:22	0:35	1:14	0:17
이동	1:22	1:18	0:45	1:13
통근, 통학	0:31	0:18	0:20	0:20
그외 이동	0:51	1:00	0:25	0:53
기타	0:10	0:00	0:22	0:00

4-4. 남성 평일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2	9:53	10:27	9:58
수면	7:41	7:55	7:44	7:53
식사	1:36	1:08	1:37	1:26
신변에 관한 일	0:55	0:50	1:07	0:39
수입노동	6:31	5:53	7:04	6:25
근무	6:14	5:31	6:56	6:13
학업	0:17	0:22	0:08	0:11
가사노동	0:28	1:38	0:21	1:46
가사	0:18	1:16	0:10	1:13
식사준비및설거지	0:05	0:15	-	0:19
청소, 세탁	0:07	0:10	-	0:13
기타 가사일	0:06	0:51	-	0:41
구매	0:02	0:15	0:08	0:23
가족원 돌보기	0:08	0:07	0:03	0:10
사회활동	0:54	0:42	0:24	0:49
사회적 활동	0:08	0:09	0:03	0:06
사회참여	0:05	0:05	0:03	0:06
종교활동	0:03	0:04	-	-
교제	0:46	0:33	0:21	0:42
레저활동	1:10	0:52	0:44	1:15
학습	0:13	-	0:07	-
관람 및 행사	0:01	0:06	-	0:02
스포츠 및 옥외활동	0:23	0:25	0:08	0:32
취미 및 그외 여가	0:33	0:21	0:29	0:41
대중매체	2:23	3:06	2:27	2:07
휴식	0:25	0:28	1:07	0:18
이동	1:49	1:27	1:11	1:22
통근, 통학	1:11	0:36	0:51	0:33
그외 이동	0:38	0:51	0:20	0:49
기타	0:07	0:00	0:15	0:00

4-5. 여성 평일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0	10:22	10:38	10:04
수면	7:36	8:11	7:26	8:04
식사	1:32	1:04	1:43	1:13
신변에 관한 일	1:03	1:07	1:29	0:47
수입노동	3:47	3:56	3:36	4:49
근무	3:35	3:41	3:31	4:37
학업	0:12	0:15	0:05	0:12
가사노동	3:59	3:09	4:01	3:30
가사	2:53	2:20	3:00	2:24
식사준비및설거지	1:41	0:49	-	1:10
청소, 세탁	1:05	0:57	-	0:54
기타 가사일	0:07	0:34	-	0:20
구매	0:15	0:28	0:32	0:30
가족원 돌보기	0:51	0:22	0:29	0:35
사회활동	1:16	0:45	0:26	1:03
사회적 활동	0:18	0:11	0:03	0:06
사회참여	0:04	0:06	0:03	0:06
종교활동	0:14	0:05	-	-
교제	0:58	0:34	0:22	0:58
레저활동	0:42	0:54	0:38	1:20
학습	0:08	-	0:07	-
관람 및 행사	0:01	0:05	-	0:02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4	0:15	0:06	0:27
취미 및 그외 여가	0:19	0:34	0:25	0:51
대중매체	2:13	3:01	2:25	1:45
휴식	0:22	0:34	1:11	0:15
이동	1:21	1:18	0:45	1:13
통근, 통학	0:34	0:24	0:24	0:27
그외 이동	0:47	0:54	0:21	0:46
기타	0:10	0:00	0:20	0:00

4-6. 남성 토요일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5	10:31	10:45	11:13
수면	7:43	8:29	8:01	8:30
식사	1:37	1:16	1:39	1:49
신변에 관한 일	0:55	0:46	1:06	0:54
수입노동	5:38	2:30	4:35	1:55
근무	5:29	2:17	4:32	1:54
학업	0:09	0:13	0:03	0:00
가사노동	0:34	2:37	0:38	2:46
가사	0:21	1:56	0:15	2:05
식사준비및설거지	0:05	0:19	-	0:24
청소, 세탁	0:09	0:23	-	0:23
기타 가사일	0:07	1:14	-	1:18
구매	0:04	0:36	0:18	0:26
가족원 돌보기	0:09	0:05	0:06	0:15
사회활동	1:04	1:21	0:45	1:29
사회적 활동	0:07	0:10	0:05	0:08
사회참여	0:03	0:07	0:05	0:08
종교활동	0:04	0:03	-	-
교제	0:57	1:11	0:39	1:21
레저활동	1:21	1:20	1:28	1:50
학습	0:11	-	0:08	-
관람 및 행사	0:02	0:24	-	0:07
스포츠 및 옥외활동	0:28	0:35	0:18	0:55
취미 및 그외 여가	0:40	0:21	1:01	0:48
대중매체	2:40	3:33	3:01	2:57
휴식	0:24	0:31	1:22	0:24
이동	1:57	1:37	1:02	1:27
통근, 통학	1:03	0:13	0:27	0:07
그외 이동	0:54	1:24	0:35	1:19
기타	0:07	0:00	0:22	0:00

4-7. 여성 토요일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8	11:02	10:54	11:12
수면	7:41	8:42	7:42	8:44
식사	1:35	1:14	1:44	1:29
신변에 관한 일	1:01	1:06	1:28	0:59
수입노동	3:11	1:21	2:21	1:02
근무	3:05	1:10	2:19	1:01
학업	0:06	0:11	0:02	0:01
가사노동	4:01	3:51	4:10	4:16
가사	2:56	2:41	3:01	3:14
식사준비및설거지	1:42	0:40	-	1:32
청소, 세탁	1:08	1:22	-	1:08
기타 가사일	0:06	0:39	-	0:34
구매	0:17	0:57	0:44	0:35
가족원 돌보기	0:48	0:14	0:26	0:27
사회활동	1:19	1:17	0:41	1:40
사회적 활동	0:16	0:13	0:04	0:07
사회참여	0:03	0:02	0:04	0:07
종교활동	0:13	0:10	-	-
교제	1:03	1:04	0:37	1:33
레저활동	0:44	1:09	0:50	1:38
학습	0:06	-	0:06	-
관람 및 행사	0:03	0:19	-	0:07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5	0:18	0:08	0:35
취미 및 그외 여가	0:20	0:31	0:35	0:57
대중매체	2:29	3:20	2:35	2:37
휴식	0:21	0:39	1:19	0:20
이동	1:25	1:21	0:45	1:20
통근, 통학	0:28	0:07	0:13	0:05
그외 이동	0:57	1:15	0:33	1:16
기타	0:10	0:00	0:24	0:00

4-8. 남성 일요일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59	10:53	11:23	11:30
수면	8:25	8:51	8:34	9:24
식사	1:39	1:18	1:42	1:29
신변에 관한 일	0:56	0:43	1:06	0:36
수입노동	3:18	1:28	2:12	1:29
근무	3:12	1:22	2:10	1:29
학업	0:06	0:06	0:02	0:00
가사노동	0:46	1:56	0:52	2:10
가사	0:26	1:31	0:17	1:49
식사준비및설거지	0:07	0:19	-	0:27
청소, 세탁	0:12	0:13	-	0:19
기타 가사일	0:07	0:59	-	1:03
구매	0:06	0:19	0:27	0:05
가족원 돌보기	0:14	0:07	0:08	0:16
사회활동	1:34	1:48	0:55	1:32
사회적 활동	0:19	0:32	0:09	0:13
사회참여	0:03	0:03	0:09	0:13
종교활동	0:16	0:28	-	-
교제	1:15	1:17	0:46	1:19
레저활동	1:33	1:21	1:57	2:06
학습	0:09	-	0:09	-
관람 및 행사	0:03	0:16	-	0:11
스포츠 및 옥외활동	0:37	0:37	0:27	1:02
취미 및 그외 여가	0:44	0:28	1:20	0:54
대중매체	3:27	4:39	3:47	3:17
휴식	0:23	0:29	1:33	0:34
이동	1:52	1:27	0:52	1:22
통근, 통학	0:32	0:08	0:10	0:05
그외 이동	1:20	1:19	0:42	1:17
기타	0:07	0:00	0:30	0:00

4-9. 여성 일요일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54	11:27	11:21	11:30
수면	8:16	9:04	8:10	9:25
식사	1:37	1:18	1:48	1:22
신변에 관한 일	1:00	1:05	1:25	0:43
수입노동	2:05	0:54	1:16	0:47
근무	2:02	0:44	1:15	0:47
학업	0:03	0:10	0:01	0:00
가사노동	3:54	2:53	4:07	3:34
가사	2:58	2:13	2:55	2:55
식사준비및설거지	1:45	0:53	-	1:32
청소, 세탁	1:08	0:47	-	0:56
기타 가사일	0:05	0:33	-	0:27
구매	0:16	0:25	0:47	0:05
가족원 돌보기	0:40	0:15	0:24	0:33
사회활동	1:42	2:05	0:49	1:54
사회적 활동	0:37	0:44	0:07	0:11
사회참여	0:03	0:01	0:07	0:11
종교활동	0:34	0:43	-	-
교제	1:05	1:20	0:42	1:43
레저활동	0:44	1:03	1:01	2:06
학습	0:05	-	0:06	-
관람 및 행사	0:03	0:11	-	0:08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4	0:20	0:13	0:51
취미 및 그외 여가	0:22	0:32	0:42	1:07
대중매체	2:48	3:48	2:48	2:38
휴식	0:20	0:36	1:25	0:24
이동	1:24	1:15	0:42	1:08
통근, 통학	0:15	0:04	0:06	0:03
그외 이동	1:09	1:11	0:36	1:05
기타	0:09	0:00	0:31	0:00

4-10. 남성취업자 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07	9:55	10:27	10:13
수면	7:40	8:01	7:47	8:05
식사	1:36	1:06	1:37	1:28
신변에 관한 일	0:50	0:48	1:03	0:40
수입노동	7:08	5:51	6:50	5:39
근무	7:02	5:39	6:47	5:39
학업	0:06	0:12	0:03	0:01
가사노동	0:28	1:41	0:23	1:54
가사	0:17	1:13	0:08	1:22
식사준비및설거지	0:04	0:15	-	0:19
청소, 세탁	0:07	0:10	-	0:15
기타 가사일	0:06	0:48	-	0:48
구매	0:03	0:17	0:11	0:20
가족원 돌보기	0:08	0:11	0:04	0:13
사회활동	0:54	0:53	0:31	1:00
사회적 활동	0:08	0:12	0:04	0:07
사회참여	0:03	0:05	0:04	0:07
종교활동	0:05	0:07	-	-
교제	0:46	0:41	0:27	0:52
레저활동	0:53	0:55	0:52	1:18
학습	0:05	-	0:06	-
관람 및 행사	0:01	0:10	-	0:04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9	0:26	0:11	0:36
취미 및 그외 여가	0:28	0:19	0:35	0:38
대중매체	2:10	2:56	2:25	2:15
휴식	0:22	0:22	1:06	0:17
이동	1:54	1:32	1:11	1:23
통근, 통학	1:16	0:35	0:46	0:28
그외 이동	0:38	0:57	0:25	0:55
기타	0:07	0:00	0:15	0:00

4-11. 여성취업자 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00	10:25	10:31	10:18
수면	7:30	8:16	7:27	8:15
식사	1:30	1:02	1:41	1:16
신변에 관한 일	0:59	1:07	1:24	0:48
수입노동	6:12	4:52	5:05	4:21
근무	6:04	4:39	5:04	4:21
학업	0:08	0:13	0:02	0:00
가사노동	2:46	2:38	3:05	3:24
가사	2:11	1:53	2:23	2:28
식사준비및설거지	1:19	0:39	-	1:12
청소, 세탁	0:48	0:45	-	0:54
기타 가사일	0:04	0:29	-	0:22
구매	0:10	0:29	0:29	0:27
가족원 돌보기	0:25	0:17	0:13	0:29
사회활동	0:58	0:59	0:28	1:13
사회적 활동	0:13	0:13	0:03	0:07
사회참여	0:03	0:04	0:03	0:07
종교활동	0:10	0:09	-	-
교제	0:45	0:45	0:25	1:07
레저활동	0:29	0:49	0:34	1:19
학습	0:05	-	0:06	-
관람 및 행사	0:01	0:09	-	0:03
스포츠 및 옥외활동	0:07	0:17	0:06	0:29
취미 및 그외 여가	0:16	0:23	0:22	0:47
대중매체	1:41	2:27	2:03	1:53
휴식	0:16	0:26	1:03	0:15
이동	1:30	1:26	0:52	1:14
통근, 통학	0:54	0:28	0:30	0:23
그외 이동	0:36	0:58	0:22	0:52
기타	0:09	0:00	0:18	0:00

4-12. 전업주부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37	11:01	10:49	10:45
수면	7:57	8:39	7:32	8:37
식사	1:36	1:17	1:50	1:19
신변에 관한 일	1:04	1:05	1:27	0:49
수입노동	0:12	0:23	0:05	1:00
근무	0:12	0:08	0:05	0:26
학업	0:00	0:15	0:00	0:33
가사노동	5:38	3:59	6:22	5:15
가사	3:53	3:00	4:29	3:33
식사준비및설거지	2:14	1:02	-	1:50
청소, 세탁	1:30	1:16	-	1:13
기타 가사일	0:09	0:42	-	0:30
구매	0:22	0:35	0:50	0:28
가족원 돌보기	1:23	0:24	1:03	1:14
사회활동	1:45	1:14	0:35	1:25
사회적 활동	0:29	0:24	0:05	0:07
사회참여	0:05	0:05	0:05	0:07
종교활동	0:24	0:19	-	-
교제	1:16	0:50	0:29	1:18
레저활동	0:53	1:11	0:53	1:55
학습	0:06	-	0:06	-
관람 및 행사	0:02	0:07	-	0:04
스포츠 및 옥외활동	0:23	0:16	0:08	0:35
취미 및 그외 여가	0:22	0:48	0:38	1:16
대중매체	3:06	4:18	2:59	2:16
휴식	0:29	0:49	1:21	0:22
이동	1:09	1:06	0:28	1:04
통근, 통학	0:02	0:03	0:00	0:08
그외 이동	1:07	1:02	0:28	0:55
기타	0:12	0:00	0:28	0:00

4-13. 20대 남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08	10:11	10:07	10:36
수면	7:46	8:24	7:47	8:24
식사	1:32	1:00	1:21	1:31
신변에 관한 일	0:50	0:48	0:58	0:41
수입노동	5:55	5:38	6:42	5:07
근무	4:47	4:45	6:09	4:40
학업	1:08	0:53	0:33	0:27
가사노동	0:24	1:12	0:20	1:34
가사	0:15	0:51	0:04	1:04
식사준비및설거지	0:05	0:12	-	0:16
청소, 세탁	0:07	0:09	-	0:11
기타 가사일	0:03	0:30	-	0:37
구매	0:02	0:16	0:13	0:19
가족원 돌보기	0:07	0:04	0:02	0:10
사회활동	1:04	1:11	0:45	1:00
사회적 활동	0:14	0:07	0:02	0:03
사회참여	0:10	0:02	0:02	0:03
종교활동	0:04	0:05	-	-
교제	0:50	1:04	0:43	0:56
레저활동	1:49	1:10	1:13	1:35
학습	0:37	-	0:11	-
관람 및 행사	0:03	0:16	-	0:05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9	0:35	0:12	0:42
취미 및 그외 여가	0:50	0:19	0:50	0:49
대중매체	2:16	2:51	2:12	2:14
휴식	0:17	0:19	1:04	0:18
이동	2:01	1:27	1:23	1:37
통근, 통학	1:09	0:32	0:52	0:27
그외 이동	0:52	0:55	0:31	1:09
기타	0:06	0:00	0:14	0:00

4-14. 20대 여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27	10:47	10:43	10:48
수면	7:49	8:46	7:41	8:40
식사	1:31	0:56	1:31	1:19
신변에 관한 일	1:07	1:05	1:30	0:48
수입노동	4:08	4:17	4:28	3:32
근무	3:25	3:36	4:09	3:07
학업	0:43	0:41	0:19	0:25
가사노동	2:55	2:21	1:31	3:05
가사	1:42	1:25	1:19	1:50
식사준비및설거지	0:54	0:32	-	0:51
청소, 세탁	0:44	0:35	-	0:43
기타 가사일	0:04	0:18	-	0:16
구매	0:12	0:30	0:31	0:28
가족원 돌보기	1:01	0:27	0:40	0:46
사회활동	1:06	1:07	0:45	1:19
사회적 활동	0:08	0:10	0:01	0:05
사회참여	0:01	0:03	0:01	0:05
종교활동	0:07	0:07	-	-
교제	0:58	0:57	0:43	1:13
레저활동	1:10	0:53	0:47	1:34
학습	0:21	-	0:11	-
관람 및 행사	0:04	0:14	-	0:05
스포츠 및 옥외활동	0:09	0:21	0:06	0:21
취미 및 그외 여가	0:36	0:19	0:31	0:55
대중매체	2:16	2:40	2:07	2:03
휴식	0:09	0:25	1:08	0:14
이동	1:42	1:31	1:12	1:26
통근, 통학	0:48	0:26	0:40	0:22
그외 이동	0:54	1:05	0:32	1:04
기타	0:08	0:00	0:19	0:00

4-15. 30대 남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0	10:00	10:02	10:10
수면	7:44	8:09	7:34	8:02
식사	1:36	1:01	1:29	1:28
신변에 관한 일	0:49	0:50	1:00	0:40
수입노동	6:54	5:35	7:27	5:33
근무	6:53	5:19	7:26	5:30
학업	0:01	0:16	0:01	0:04
가사노동	0:32	1:42	0:28	2:03
가사	0:14	1:14	0:06	1:21
식사준비및설거지	0:04	0:16	-	0:20
청소, 세탁	0:06	0:10	-	0:15
기타 가사일	0:04	0:48	-	0:46
구매	0:03	0:18	0:13	0:21
가족원 돌보기	0:15	0:10	0:09	0:22
사회활동	0:53	0:58	0:27	1:01
사회적 활동	0:07	0:11	0:03	0:07
사회참여	0:02	0:05	0:03	0:07
종교활동	0:05	0:06	-	-
교제	0:46	0:47	0:24	0:54
레저활동	1:01	0:58	0:52	1:16
학습	0:09	-	0:07	-
관람 및 행사	0:01	0:11	-	0:05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9	0:28	0:11	0:37
취미 및 그외 여가	0:32	0:19	0:34	0:34
대중매체	2:09	2:51	2:08	2:15
휴식	0:17	0:23	1:03	0:17
이동	1:58	1:35	1:20	1:25
통근, 통학	1:17	0:35	0:52	0:29
그외 이동	0:41	1:00	0:28	0:56
기타	0:06	0:00	0:13	0:00

4-16. 30대 여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04	10:33	10:18	10:16
수면	7:34	8:22	7:20	8:15
식사	1:35	1:02	1:38	1:15
신변에 관한 일	0:55	1:09	1:21	0:47
수입노동	3:11	3:49	2:58	3:53
근무	3:10	3:39	2:57	3:49
학업	0:01	0:11	0:01	0:04
가사노동	5:08	3:22	5:23	4:06
가사	3:15	2:11	3:34	2:36
식사준비및설거지	1:54	0:44	-	1:18
청소, 세탁	1:14	0:58	-	1:00
기타 가사일	0:07	0:29	-	0:18
구매	0:20	0:33	0:38	0:26
가족원 돌보기	1:33	0:39	1:11	1:03
사회활동	1:11	1:00	0:30	1:16
사회적 활동	0:15	0:15	0:05	0:06
사회참여	0:03	0:03	0:05	0:06
종교활동	0:12	0:12	-	-
교제	0:56	0:44	0:25	1:09
레저활동	0:38	0:50	0:38	1:17
학습	0:07	-	0:08	-
관람 및 행사	0:01	0:12	-	0:03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2	0:21	0:08	0:29
취미 및 그외 여가	0:18	0:18	0:23	0:45
대중매체	2:06	2:36	1:57	1:44
휴식	0:12	0:28	1:05	0:15
이동	1:18	1:21	0:50	1:12
통근, 통학	0:25	0:24	0:21	0:21
그외 이동	0:53	0:57	0:29	0:51
기타	0:10	0:00	0:23	0:00

4-17. 40대 남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1	9:47	10:09	10:13
수면	7:40	7:53	7:36	8:03
식사	1:39	1:05	1:35	1:28
신변에 관한 일	0:52	0:49	0:58	0:42
수입노동	6:42	5:25	7:21	5:20
근무	6:41	5:17	7:21	5:19
학업	0:01	0:08	0:00	0:00
가사노동	0:26	1:50	0:20	2:05
가사	0:18	1:23	0:08	1:36
식사준비및설거지	0:05	0:17	-	0:23
청소, 세탁	0:07	0:13	-	0:18
기타 가사일	0:06	0:53	-	0:55
구매	0:03	0:19	0:09	0:22
가족원 돌보기	0:05	0:08	0:03	0:08
사회활동	0:56	0:47	0:29	1:01
사회적 활동	0:08	0:14	0:04	0:11
사회참여	0:02	0:06	0:04	0:11
종교활동	0:06	0:07	-	-
교제	0:48	0:33	0:24	0:49
레저활동	0:59	0:57	0:49	1:23
학습	0:05	-	0:06	-
관람 및 행사	0:01	0:10	-	0:03
스포츠 및 옥외활동	0:23	0:26	0:12	0:37
취미 및 그외 여가	0:30	0:21	0:31	0:33
대중매체	2:21	3:17	2:18	2:24
휴식	0:23	0:25	1:02	0:20
이동	1:54	1:31	1:16	1:15
통근, 통학	1:12	0:34	0:51	0:24
그외 이동	0:42	0:57	0:25	0:51
기타	0:06	0:00	0:15	0:00

4-18. 40대 여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9:52	10:28	10:04	10:17
수면	7:16	8:18	7:04	8:14
식사	1:34	1:02	1:40	1:15
신변에 관한 일	1:01	1:08	1:20	0:48
수입노동	4:07	4:04	3:47	4:04
근무	4:06	3:52	3:47	4:01
학업	0:01	0:13	0:00	0:02
가사노동	4:07	3:17	4:42	3:36
가사	3:26	2:27	3:49	2:01
식사준비및설거지	2:05	0:50	-	1:26
청소, 세탁	1:14	1:00	-	1:02
기타 가사일	0:07	0:37	-	0:29
구매	0:18	0:32	0:41	0:27
가족원 돌보기	0:23	0:18	0:12	0:12
사회활동	1:21	0:57	0:26	1:12
사회적 활동	0:26	0:12	0:05	0:08
사회참여	0:04	0:04	0:05	0:08
종교활동	0:22	0:09	-	-
교제	0:55	0:45	0:21	1:04
레저활동	0:33	0:45	0:37	1:28
학습	0:04	-	0:06	-
관람 및 행사	0:01	0:09	-	0:03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4	0:15	0:08	0:30
취미 및 그외 여가	0:14	0:21	0:24	0:55
대중매체	2:08	2:36	2:12	1:58
휴식	0:18	0:29	1:04	0:18
이동	1:24	1:24	0:45	1:08
통근, 통학	0:33	0:24	0:21	0:22
그외 이동	0:51	1:00	0:24	0:47
기타	0:10	0:00	0:23	0:00

4-19. 50대 남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18	9:59	10:27	10:26
수면	7:42	7:57	7:43	8:14
식사	1:40	1:18	1:41	1:33
신변에 관한 일	0:57	0:43	1:02	0:39
수입노동	5:46	4:41	6:49	4:13
근무	5:46	4:39	6:49	4:12
학업	0:00	0:02	0:00	0:00
가사노동	0:33	2:05	0:21	2:12
가사	0:25	1:44	0:09	1:47
식사준비및설거지	0:06	0:17	-	0:26
청소, 세탁	0:10	0:13	-	0:17
기타 가사일	0:09	1:14	-	1:04
구매	0:03	0:18	0:10	0:23
가족원 돌보기	0:05	0:04	0:02	0:01
사회활동	1:03	0:57	0:29	0:59
사회적 활동	0:09	0:13	0:04	0:09
사회참여	0:03	0:06	0:04	0:09
종교활동	0:06	0:07	-	-
교제	0:54	0:44	0:25	0:50
레저활동	1:05	0:52	0:51	1:35
학습	0:04	-	0:05	-
관람 및 행사	0:01	0:08	-	0:03
스포츠 및 옥외활동	0:31	0:27	0:12	0:41
취미 및 그외 여가	0:29	0:17	0:34	0:51
대중매체	2:53	3:25	2:30	2:52
휴식	0:28	0:31	1:02	0:34
이동	1:45	1:30	1:14	1:10
통근, 통학	0:59	0:26	0:50	0:20
그외 이동	0:46	1:04	0:25	0:50
기타	0:08	0:00	0:17	0:00

4-20. 50대 여성 요일평균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개인유지	10:06	10:20	10:27	10:24
수면	7:33	8:04	7:16	8:15
식사	1:32	1:11	1:47	1:19
신변에 관한 일	1:01	1:04	1:23	0:51
수입노동	3:34	3:16	3:29	3:03
근무	3:34	3:10	3:29	3:03
학업	0:00	0:06	0:00	0:00
가사노동	4:09	3:30	4:21	34:45
가사	3:25	2:47	3:26	3:18
식사준비및설거지	2:03	0:53	-	1:41
청소, 세탁	1:14	1:10	-	1:04
기타 가사일	0:08	0:44	-	0:33
구매	0:18	0:35	0:40	0:26
가족원 돌보기	0:26	0:09	0:15	0:01
사회활동	1:25	1:01	0:28	1:18
사회적 활동	0:26	0:19	0:04	0:08
사회참여	0:05	0:05	0:04	0:08
종교활동	0:21	0:14	-	-
교제	0:59	0:42	0:24	1:10
레저활동	0:29	1:01	0:42	1:44
학습	0:02	-	0:05	-
관람 및 행사	0:01	0:03	-	0:03
스포츠 및 옥외활동	0:17	0:15	0:08	0:31
취미 및 그외 여가	0:09	0:42	0:29	1:10
대중매체	2:20	2:54	2:28	2:20
휴식	0:24	0:37	1:01	0:23
이동	1:23	1:21	0:41	1:03
통근, 통학	0:28	0:18	0:18	0:14
그외 이동	0:55	1:03	0:23	0:49
기타	0:11	0:00	0:23	0:00